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0월 14일(음력 8월 26일) 수요일(주간)

사람 탤런트 배용준

'한국 아름다움…' 화제



한국 전통문화 메신저로 나선 한류스타 배용준. 사진제공=시드페이퍼

"유명인이 되기에 앞서 진정한 문화인이 되라고 신신당부하신 (혜국) 큰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긴다."

한류스타 배용준이 한국을 여행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며 느낀 소감을 써내려간 포토 에세이집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시드페이퍼 刊, 이하 한아여)에서 충주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을 만난 느낌을 쓴 글이다.

한국의 문화, 예술, 전통에 대한 13가지 테마를 더 잘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난 배용준의 이야기를 담은 <한아여>는 출간되자마자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단순한 한국문화 소개를 넘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는 제2의 '답사 신드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 책에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불교포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해사 백흥암과 운부암, 오대산 월정사, 충주 석종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의 순천 야생차밭에서의 선차(禪茶) 체험 △황룡사지와 미륵사지, 운주사 등 불교유적 답사 △도예명장 천한봉 거사의 문경요 도자기 만들기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78호)과의 만남 등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여간 머물며 스님과 불자 예술인, 사찰, 문화유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있다.

"나는 비록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사찰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떻게 수많은 문화재를 배출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늘 궁금했다. 사실 한국 문화에서 불교적 색채를 제외한다는 것은 핵심을 제외한 그 나머지만을 논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1년여 간 불교문화와 더불어 가정식, 김치, 한복과 살림살이, 옻칠, 한글과 세종대왕, 경복궁과 천상열차분야지도, 술과 풍류, 한옥, 풍경 등을 둘러보고 경험한 배용준의 심정은 어느새 구도자의 마음과 닿아있었다. 배용준은 머리말에서 "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를 알아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행을 통해 삶을 온 몸으로 배웠던 것 같다. 연기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우 기자

'포교노하우' 공개해요

2009빛고을아카데미, '여래의 사자 만나다' 주제로 27일부터


혜인 스님.


정락 스님.


명진 스님.


지홍 스님.


법륜 스님.


청화 스님.

광주사암련 · 불교TV · 현대불교 공동주최

호남지역 불자들의 신행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해온 빛고을불교아카데미가 '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섯 번 째 문을 연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2009 빛고을불교아카데미는 10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문화센터 3층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포교 현장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인 스님들의 생생한 포교경험담으로 엮어진다. 수행과 전법의 사명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신념과 포교철학,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들이 바른 신행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10월 27일) '신심과 원력의 길'을 주제로 강의할 혜인 스님(제주약천사 회주)은 약천사와 단양 광덕사 불사를 주도하며 느낀 무한한 감동과 가피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된다.

100만 배 기도 등 간단없는 정진과 불사를 수행으로 삼아 온 혜인 스님의 법문은 스피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쩌렁쩌렁 하다. 두 번째 강좌(11월 3일)에서는 前 조계종포교원장 정락 스님이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주제로 강의한다. 정락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다양한 법회 현장에서 법문을 하면서 포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작은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원력의 삶이 곧 성불의 씨앗을 가꾸는 삶임을 강조한다.

세 번째 강좌(11월 10일)는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맡는다. 주제는 '도심 속 천년 사찰을 깨우다'. 봉은사 주지를 맡으면서 1000일 두문불출 기도를 선언하고 오직 절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신행과 불사를 독려했던 스님의 이야기는 현대 도심사찰의 포교 성공 모델이 되고 있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이 강의하는 네 번째 강좌(11월 17일)의 주제는 '아름다운 불광공동체'다. 은사 광덕 스님이 불을 지핀 불광공동체 운동의 성과를 통해 도심포교와 불교의 현대화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다섯 번째 강좌(11월 24일)에서 '수행, 일상에서 행복을 찾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빈그릇 운동' 등으로 환경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며 국제구호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스님의 이야기는 참불자의 삶을 제시하게 된다.

마지막 강좌(12월 1일)는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맡는다. 청화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는 등 정열적인 수행의 길을 걸어 왔다. 등단 40여 년 동안 쉼 없이 써 온 시들은 스님의 수행이력서이기도 하다. 깊어가는 가을 밤 청화 스님의 시심이 불자들에게 줄 감동의 크기는 무등산을 넘어 수미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각 강사로 나선 스님들의 포교과정을 담은 영상물과 사진자료 등이 같이 공개된다. (062)376-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트레킹-5면에 안내



사찰음식 대향연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 · 사찰음식대향연 조직위원장) 등은 10월 8~10일 수원 봉녕사에서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했다. 한국사찰음식의 어제와 오늘의 가치를 다시 보고, 내일의 가능성을 기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대표 사찰음식 전시와 사찰 음식 사진 전시, 국제 세미나, 외국인 대학생 템플스테이,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관람객이 우화궁에 전시된 사찰음식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창간 15주년 특집 48면 발행

A
- "축하합니다" – 각계 인사 축하사인 ---- 3면
- 15주년에 만난 사람 –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 7면
- 선지식을 찾아서 – 운성 스님 ---- 12~13면

B
- 도심속 문화와 휴식이 있는 사찰 ---- 1~2면
- 우리가족 이야기 – 탤런트 김용림 ---- 3면
- 달력에서 자주 보는 사찰풍경 ---- 5면
- 종교와 선거, 선거와 불교 ---- 6~7면
- 수행은 연습 생활이 실참 ---- 8~10면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 ---- 12~13면
- 독자와 기자가 말하는 현대불교 ---- 14면
- 긍정의 힘 ---- 17면
- 경전에서 배우는 생활 속 긍정 ---- 18면
- 템플스테이 진화를 말하다 ---- 20~21면

동방대에 도서기증 본사, 4000여 권


정상옥 동방대학원대 총장(오른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본사 임연태 편집부국장.

현대불교가 불교도서 4000여 권을 서울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 도서관에 기증했다.

동방대학원대 정상옥 총장은 10월 8일 총장실에서 현대불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상옥 총장은 본사 임연태 편집부국장에게 전달한 감사패를 통해 "귀사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자료전집의 4000권 상당의 불교와 관련된 귀중한 도서들을 우리 학교에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기증한 장서 가운데 불교 문학과 예술, 학술분야의 최신 서적들은 본 대학원의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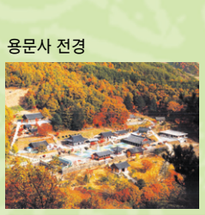
임연태 부국장은 "앞으로도 불교도서 기증과 더불어 문서포교 및 문화포교에 상호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조계종 선거인단 '확정'

7~11일 24개 교구본사서 교구종회 통해 선출



10월 7일 열린 직할교구종회에 참석한 200여 스님들.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가 10월 7일 직할교구를 시작으로 11일까지 24개 교구본사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직할교구(주지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으로 지관(총무원장) 공운 도서 학명 용하 환적 명본 가섭 혜경 명수 스님을 선출했다.

직할 교구종회에는 313개 소속 사찰 주지 중 196명이 참석했으며, 당연직 선거인단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제외한 선거인단 9명 선출에 9명이 입후보해 무투표 결의로 결정됐다.

이날 교구종회에 앞서 지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총무원장만이 종단을 이끌고 외호하는 것이 아닌 스님들 모두가 함께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법망구 정신으로 선거인단 선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종회 위임진행은 집행부 수석부장인 총무부장 원학 스님이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기획실장 장적 스님이 맡았다.

직할교구에 이어 각 교구본사도 교구종회를 열고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신흥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해인사, 쌍계사, 고운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등 13개 본사는 7일, 용주사, 백양사는 8일, 월정사, 은해사, 불국사, 범어사, 통도사, 선운사, 봉선사는 9일 종회를 열고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그 외 금산사는 10일, 관음사는 11일 교구종회를 통해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각 교구종회서 선출된 선거인단 신원조회를 거쳐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직할교구종회를 비롯한 각 교구본사 종회에는 '사부대중이 함께여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불교단체 모임' 회원들이 선거인단 선출 과정을 모니터링해 관심을 끌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10·27법난 기리는 행사 '다채'

조계종·법난명예회복위, 심포지움 기념전시회 등

'10 · 27법난'발생 29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이하 명예회복심의위)는 10월 9일 '10 · 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피해자스님 초청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1시 '기념법회'와 '10 · 27법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기념 학술심포지움이 진행됐다. 더불어 '언론보도를 통해 본 10 · 27법난의 진실'이라는 주제의 기념전시회가 27일까지 이어진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신군부 세력이 합동수사본부를 내세워 특정 종교와 교단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국가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10 · 27법난이다"며 "아픈 상처이지만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말끔하게 털어버리는 자리이길 바란다. 두터운 앙금을 씻기 위해서는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상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하며 불교계의 지금 노력이 약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회는 10 · 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이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불교계 숙원사업을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10월 9일 열린 '10 · 27법난 기념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당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예회복심의위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10 · 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조계종 10 · 27법난역사기념관 건립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부지선정위원회)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역사기념관 건립부지를 '조계사'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장적 스님, 사회부장 세영 스님, 호법부장 정만 스님, 문화부장 수경 스님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9곳의 후보지 중 △역사성 △경제성 △접근성 △상징성 △인지도 △효율성 △경제적 유지가능성 △지자체의 협조여부 △사후관리 △인허가 용이성의 10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조계사를 최종 선정했다.

부지가 조계사로 결정된 상황에서 계획에 대해 세영 스님은 "우선 역사교육관 건립 예산 1500억 원이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활동방향은 차후의 문제다"며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태고종 인공 스님, 지관 스님 예방

7일 만나 봉원사 소유권 분쟁 의견 나눈 듯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신임인사 차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예방에는 태고종 신임 부원장으로 내정된 청봉 스님과 법현 스님이 함께 했다.



첫 회동한 지관 스님(왼쪽)과 인공 스님.

인공 스님은 지관 스님에게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최근 등재됐다. 지관 스님이 전에 영산재보존문화회 등을 잘 이끌어 세계에 불교문화를 알려달라고 하신 것은 앞날을 내다보신 법력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인사를 건냈다.

지관 스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한다"며 "여러모로 노고가 많으신데, 태고종을 잘 이끌어 달라"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은 16일 개최예정인 '조계종 · 태고종 봉원사 소유권 분쟁'의 서울고법 조정을 앞두고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에 앞서 태고종은 한국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총무원 실 · 부장 인사 등 집행부 구성에 각 교구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취임식은 28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 봉행

13일 태고총림 선암사서 120명 대상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13일 전남 순천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34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을 봉행한다.

태고종 각 사찰에서 행자교육을 이수한 120여 남녀 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수계산림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예불,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등 교육일정이 진행된다.

수계식은 30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되며 수계식을 마친 사미, 사미니들은 종단 교육기관인 법륜승가대학, 동방불교대학, 선암사 전통강원, 보덕사 비구니전문강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후 태고종 정식 승려로 정진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승려법 개정안 입법예고

20일까지 입법예고, 승려분한신고 종법 명시 골자

조계종 총무원은 승려분한신고의 종법상 명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된 승려법 개정안에 따라 승려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모든 재적승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승적이 말소된다. 말소 이후 2년은 유예기간으로 다시 분한신고를 할 경우 말소가 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권제적 된다.

직권제적된 승려는 별도의 분한신고 기간에 복적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복적 이후에도 제적 기간은 승랍에서 삭감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 분한신고 미필로 2002년 이후 직권제적된 자와 2010년 이후 직권제적된 자의 복적 신청은 1회에 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승려법에는 군종교구의 군승관리도 명시됐다. 군승의 경우 군종교구장이 제적원을 제출,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어 승적을 제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차문화관 개관

천태종, 中 베이징에

천태종이 중국 베이징에 한국 차문화관을 개관하고 한국불교와 다도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천태종은 10월 9일 베이징 영광사에 '베이징차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차문화관은 100㎡ 규모의 전통한식 기와집이다.

천태종은 이번 베이징 차문화관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국악, 천연염색 등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태종은 2007년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를 통해 베이징 영광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노덕현 기자

군종특별교구 43기 신임군승 모집

19일~11월 13일 접수… 8일 격려법회 개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3기 신임군승을 모집한다.

신임군승 신청자격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사미계 수지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예정)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스님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님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않는 스님이다.

신청은 소정양식의 지원서와 추천서,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가사 장삼을 수의한 명함사진 등 관련 서류를 군종교구 종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일자가 개별 통지되며, 선발 평가 사항은 불교상식과 의식집전, 설법, 교리, 가치관 등이다.

군종장교(법사) 선발시 육 · 해 · 공군 중위 또는 대위로 임관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 군사찰 주지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군종교구는 8일 국방부 호국원광사 백상홀에서 제42기 군승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법회를 개최했다. (02)749-8646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현대불교신문 15th

참선대중화선회 개산 1주년 대선회

단 2일만에 참선의 방향을 잡으세요.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최상승 참선체험, 간화선의 길

참선(간화선)의 수행체계가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보자부터 공부 진전이 없거나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개인 점검도 받지 않고 분명하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 보내는 사람
삶의 목표 없이 되는대로 사는 사람
세상사에 휘둘려 사는 사람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는사람과
기초에서부터 공부 힘을 얻을 수 있는 단계까지
공부 방향과 점검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일을 해야 할 일인지 안해야 할 일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통 모르면서 이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당혹케 하는 일입니다.
인류가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런 상태에 처해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어두컴컴한 밤중에 어디인지 모르고 내쳐져 있는 것과 같고
뒤 엉켜져 가늠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는 한 걸음은 한걸음도
벗어남이 없는 자리에 있는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밝음이 밝음이 아니요
어두움이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는 밝음이 어두움이요
어두움이 밝고 어두움입니다

일구법문을 듣는 것이
천만번 불공하는 공덕보다 뛰어나다

◎ 주요 내용 : 최상승선, 간화선의 길, 올바른 화두참구 방법 간택, 삶의 궁극적 목표와 참선 바른삶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 화두 실참자의 자격

◎ 대 상 :
직장인 주부.자녀 양육인. 교육자. 경영인. 고도의 정신과 역량이 필요로 하는 사람. 정퇴 명퇴자 인생을 바로 알고자하는 사람. 인생을 올바로 정리하고자하는 사람. 대학생.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사람. 부부가족관계가 원만치못한 사람. 불교를 바르게 알고자 하는 분. 인생을 헛되지 않고 보람 있게 살고자하는 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어린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자하는 사람. 올바른 불교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타성에 젖어 사는 현대인.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요하는 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분.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생. 주부. 경영인.참선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 참선을 망설이고 있는 분. 초심자. 불교신앙을 갖고자 하는 분. 화두실참할 수 있는 최소 연령 : 중2(14,5세)면 가능

◎ 일 과 : 법문 및 지도 점검, 정진

◎ 동참비 : 10만원(가족 1인 추가시 5만원)

법문 및 지도점검 : 대 효 스님 (활인선원장)

◈ 날 짜 : 입재 10월 24일(토) 오전 8시
회향 25일(일) 오후 4시
입방 23일(금) 오후 8시

◈ 접 수 : NAVER 카페 활인선원 활인.net

◈ 전 화 : ☎ 1644-5266 / 070-7519-9921
찾아오는 길은 카페에 자세히

교 통 편 – 중부고속 일죽(죽산) IC에서 용인방향10분 거리 (17번국도)
영동고속(경부고속경유) 양지IC에서 진천,죽산방향 20분 거리 (17번국도)

대중교통 – 서울에서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 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1번 4번째정거장 '한평' 하차
지방에서 경부선 상경시 / 평택안성IC 30분

※ 서울은 금요일 오후 6시30분에 조계사 앞에서 버스운행 (승차 희망시 사전연락 요망-정원초과 등)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참선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단 기 출 가 참 선 안 거

100일간 (2009. 11. 26 – 2010. 3. 5)

참선전문도량 활活인人선禪원院 경기도 안성맞춤의 고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정론직필로 불교의 현대화·생활화·세계화 펼치길"



1994년 10월 15일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이 어느덧 열 다섯 살 먹은 늠름한 나무로 자라났다. 그동안 거친 바람과 서리에 다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현대불교는 애독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창간 이후 한결 같이 햇빛과 물, 흙과 거름이 돼 현대불교란 나무를 키워준 교계 지도자들의 축하 메시지 그대로, 정법(正法)을 선양하는 불교언론이 될 것임을 발원한다.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 혜인
■부 원 장 : 동안
■중앙율원장 : 성민
■방 장 : 혜일
■원 로 원 장 : 혜산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 혜관, 천불,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원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도불
교무부장 : 정덕
사회부장 : 원광
문화부장 : 지우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대도
교무국장 : 혜일
사회국장 : 법천
문화국장 : 지운
문화재관리국장 : 도업
기획원장 : 진 성
기획실장 : 노사나
총무과장 : 조 일
서무대리 : 이상일
교육원장 : 혜산
교육부장 : 동산
교육국장 : 지원
호계원장 : 정호
호계부장 : 지오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보운
포교국장 : 서산
국제포교국장 : 청대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도명
감찰국장 : 지호
감찰2국장 : 운산
규정부장 : 월성
규정국장 : 영산
호법부장 : 태산
호법국장 : 법진,다정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 상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도불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 수원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정
강원교구종무원장 : 광덕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종무원장 : 백공
대구교구종무원장 : 원명
경북교구종무원장 : 도오
경남종무원장 : 지원
경남교구종무원장 : 도홍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지각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주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청목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총 림
- 서울총림 해인사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사단법인 본국검도협회
-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 의료법인 효성
-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 사회복지법인 정향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 행 인 : 혜인
논설위원 : 동산
편집국장 : 김상범
이 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묘원, 지성 보현, 수옥, 서호, 성화

▣총무원 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회 장 : 인권식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고 문 : 기찬수
회 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사무차장 : 일 산
기획실장 : 조 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혜원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청산,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가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정 노사나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혜담, 보현, 본각, 수옥, 관불, 향인, 수정, 현조, 보경, 지해, 지홍, 원산, 해월, 성담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국(02)511-2026-7/전송(02)511-2028/총무원장실(02)511-1080
종단사업부 : (02)549-1918/조계종삼화불교신문(02)3445-7375-6

인터넷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학림 : www.njtu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삼화불교신문 : www.jogaejong.or.kr E-mai 주소 : samhwade@naver.com

한글새김전 열어 25일까지 목아박물관

한글을 주제로 다채로운 조형미를 조망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주 목아박물관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제10회 한글새김전을 8~25일 개최한다.

목아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8명의 국내 유명 예술작가들이 한글을 이용한 회화, 공예, 조형, 문학 등 다양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목아박물관 박찬수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우리나를 대표하는 정신문화인 한글을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해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고 바른 글쓰기문화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시청광장서 대중명상 19일 '자비명상과 춤'

서울시청광장에서 대중명상이 펼쳐진다.

평화와비폭력을위한세계행진한국위원회(위원장 지관. 용화사 주지)가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 '평화, 느림에 빠지다-화해상생을 위한 자비명상과 자비춤' 행사를 연다.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세계행진(The World March for Peace and Nonviolence)'은 세계비폭력의 날인 2일부터 1월 2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칠레에 이르기까지 100개 나라, 16만km를 순회하는 전 지구적인 행사이다.

이번 세계행진은 최근 전 지구적인 분쟁과 폭력적인 상황에 대항해 무장해제와 비폭력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마가 스님의 걷기명상과 이종희씨의 춤명상이 차례로 진행된다.

마가 스님의 '걷기명상'은 내안에 있는 폭력성 참회하고 그것을 사랑과 자비로 감싸 안는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며, 춤명상은 지금있는 그 자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자리임을 자각하고 주인됨을 선언하는 명상이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용산참사현장에서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가 열린다.

박선주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 인선 '파국'

BBS이사장 영담 스님,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 노골적으로 비난

BBS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이 사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지 2년 여가 흘렀다. 사장 추천기관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직무대행 체제는 한때 극적인 화해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진흥원이 영입을 추진 중이던 4인의 사장 후보가 BBS의 '사장복무규정'을 이유로 모두 고사하고, BBS 이사장 영담 스님이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파국을 맞고 있다.

진흥원은 10월 5일 이사회에 이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BS 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신진욱 진흥원 대변인은 "5일 이사회 결과, BBS 사장후보 인선 작업은 계속하겠으나, 사장복무규정 등은 BBS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장후보 인선 작업은 진흥원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장복무규정'은 2008년 8월 제정 · 시행됐다. 2007년 12월 홍승기 前 사장이 퇴임한 이후 BBS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아직까지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사장복무규정'에는 사장이 간부 임명시 이사장과 합의해야 하는 등 사장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진흥원 측은 규정 자체가 사장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정 제정 이후 진흥원은 "사장 추천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차례 '사장복무규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진흥원 김규칠 상임이사는 "BBS의 '사장복무규정'과 유사한 사례는 동종업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며 "공영방송인 KBS도 매년 사장경영평가 등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상임이사는 "BBS 정관(제7조 2항)에도 '사장은 방송국을 대표해 방송국을 경영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장복무규정'을 둔 것은 (진흥원 추천) 사장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BS측도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BBS 사장후보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영담 스님은 입장서에서 "6일 기자회견은 진흥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사장복무규정은 폐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사장복무규정에 대해서 영담 스님은 "대다수 전임 사장들이 경영성과는 못 내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무소불위의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며 "법적 책임 주체인 이사회가 사장에 대해 일정부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BBS 측은 "전임 사장들에게 △연간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이 100여 건에 달하는 경우 △허위영수증을 통해 부당청구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진흥원은 BBS 개국 당시 산파 역할을 했다. 진흥원 故 장상문 이사장 때는 장 이사장이 BBS사장을 겸임하며, 사재를 쏟아 BBS의 기틀을 잡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 이사회에서는 진흥원과 BBS의 양 기관 모두 故 장경호 초대이사장의 서원에 의해 설립된 특수관계임에도 법인 대 법인의 일반관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담 스님은 "양 기관을 일반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진흥원과 BBS의 향후 관계설정 등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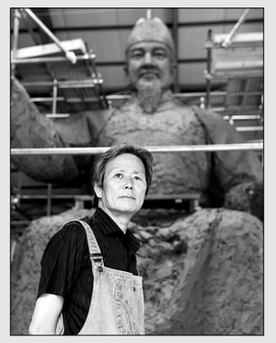
진흥원 측이 BBS에 "매년 8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BBS의 "진흥원으로부터 실질 지원은 없다"는 주장이 상충하는 현실에서 공개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사장 없이 2년 여를 표류하는 BBS의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이 울려퍼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교계의 여론이다.

조동섭 기자

'세종대왕 동상' 공개

불자 김영원 교수, 5개월간 무념 작업





10월 9일 제막식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세종대왕 동상(왼쪽), 세종대왕 동상을 작업한 김영원 교수.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은 세종대왕동상이 공개됐다.

10월 9일 한글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동상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세종대왕동상은 조각가 김영원(홍익대 교수)이 20여 명의 동료 교수 및 제자와 밤을 세워가며 5개월간 작업한 작품. 40대 후반의 모습으로 동상 크기는 6.2m, 기단은 4.2m로 총 10.4m에 달한다. 선(禪)-조각, 기공명상(氣孔冥想), 윤회 등의 사상을 담아 작업에 몰두한 김영원 교수는 "이번 세종대왕 동상 작업이 개인적인 삶에 치우쳐 살다가, 타인을 위한 삶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래서일까. 이번 세종대왕 작업은 지도자적인 위엄과 인자한 어버이 같은 모습이 두루 갖춰져 있다.

대한민국 사람 절반이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세종대왕을 재현하는 일은 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영원 교수는 "그런 부담감에 자괴감까지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중압감을 놓아 버리고 '그냥 하자'라는 일념으로 동상제작에 정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원 교수는 충북대교수불자회를 통해 신행활동을 했으며, 무불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신계사서 13일 남북합동법회

민추본 '복원 2주년 기념법회' 계획 밝혀

금강산 신계사에서 10월 13일 남북합동법회가 열린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대표 명진, 이하 민추본)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의 추진 경과와 행사개요를 발표했다.

민추본 사무처장 진효 스님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현실에서 남불불교 교류와 통합의 상징인 신계사 복원(2007년 10월 13일) 2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합동법회가 향후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2시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남북합동법회는 조계종과 조불련 공동주체로 봉행되며 법회 진행도 남과 북의 공동사회자가 맡는다. 남측 참여인단은 사회부장 세영 스님을 단장으로 40여 명이 방북한다.

법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2시 금강산 온정각 옥규관에서 '남북불교대표단 회동'의 자리도 마련된다. 민추본 박재산 홍보계장은 "남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근황이나 덕담을 묻고, 남북불교교류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8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교육장에서 신계사 복원불사 2주년 기념 토론회 '금강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열었다. 토론회는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불교와 금강산' △이시우 작가(평화사진작가)의 '금강산과 통일미학' △정영철 교수(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의 '남북관계와 금강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선주 기자

정운찬 총리, 지관 스님 예방

7일 접견, "공원 경내지 해결에 적극 노력"



지관 스님과 정운찬 신임 총리.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10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정 총리는 "불교계가 역사적으로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한 만큼 국정운영에 도움이 돼 달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아직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나라의 과제가 많다. '사회통합'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지나온 과거는 거울로 삼을 뿐, 앞으로 함께 해나갈 미래가 중요하다"며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총리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 좌담에서 정 총리는 자리를 함께 한 주호영 특임장관으로부터 자연공원 내 사찰 경내지 해제 문제를 보고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방에 함께 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자연공원 내 사찰들이 4중 5중의 규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이기에, 2010년 공원구역 재조정에 불교계 의사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잘 조사해 문제가 원만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전문서점 15일 오픈

조계종 문화사업단, 정보센터 지하에 개점

조계사 인근에 대형 불교전문서점이 생긴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지하에서 불교전문서점 개점식을 갖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여는 330여㎡(108평) 규모의 서점에는 불교관련 고서와 장서를 비롯해 6000여 종의 불서 2만여 권이 비치된다. 책은 수행과 불교학술, 불교예술, 요가 및 다도, 소설 · 수필류 등으로 구분해 비치되며, 특히 어린이 불서를 눈에 띄게 전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네 명의 직원으로 서점을 운영하면서 점차 3만 여권까지 소장 도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조계타운 인근의 영풍문고, 교보문고의 불서 코너 마저 기독교 코너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 대형 불교전문서점의 오픈은 불서 출판 및 유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前 불교출판문화협의회장인 민족사 대표 윤창화 사장은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총본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불교전문서점 한 곳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불교전문서점 오픈을 계기로 불서 유통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문서포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봉행 (사)대한불교법상종 2009년도 종도 정기교육 및 법계 품수 수여식

미륵존불님께 귀의하옵니다.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에 늘 애쓰시는 대한불교법상종 종도 여러분께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법상종 2009년도 종도 정기교육 및 법계 품수 수여식'을 봉행하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종도교육과 법계품수 수여식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종단 정기교육
◆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 23일(금)까지 2박 3일
21일 오전 10시 입재. 10월 23일 오후 1시 회향
◆ 장 소 :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
◆ 준비물 : 대가사, 반가사비용 100만원(가사색깔 괴색으로 바뀜
- 총무원에서 단체로 구입 가사색 통일) 교육비 10만원, 목탁, 요령 지참
* 가사비용은 교육 전까지 입금해주시면 교육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법상종 종도 법계 품수 수여식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 (종도교육 회향일) 오전 10시부터
◆ 장 소 : 안성 쌍미륵사 용화전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 : 경기 평택시 세교동 569-8 / 전화 : 031)653-1250

불교언론문화상 모집요강 발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이 주최하고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불교언론문화상 모집요강이 발표됐다.

불교언론문화상 시상부문에는 △불교언론문화상 대상 1작품 △불교언론인상 1인을 선정한다. 그 밖에 △TV 부문 △라디오 부문 △신문부문 △인터넷 부문에 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시상한다. △특별상에는 방송, 신문, 애니메이션, 뉴미디어 전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작가, 연기자, 단체 등 3인이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접수는 작품 개요서 1부와 함께 부문별 필수 기재사항과 제출자료를 첨부해 11월 5일까지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작품 후보자 추천은 관련 전문 분야 인사나 본인 추천 가능하다. 대상은 상패와 상금 500만원의 영광이 돌아간다.

시상식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02)745-5811 이은정 기자

다문화가정 캠페인 (사)지혜로운여성

"다름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주민을 국민 또는 사회 주체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출신 국가별 차별의식을 버리겠습니다. 이주민과 친밀한 관계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사)지혜로운여성(이사장 이은영)은 10월 10일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다문화가정 이해증진 캠페인'을 펼쳤다. 여성부(장관 백희영)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1000여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실천 서약서'에 서약하며 이주민 인구 100만을 넘어선 시대에 차별의식을 버리고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존재로 인식 개선을 이끌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행사는 풍물패의 길놀이, 다문화 가정 현황소개 전시회, 소책자 배포, 다문화를 상징하는 스티커 붙이기 등이 진행됐다. 세계 각국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결혼이민자 10여 명과 즉석사진 찍기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상언 기자

"8정도·10선법으로 정진합시다"

조계사, 세존사리탑 · 사적비 제막… '불교 1번지' 위상 강화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에 한국불교의 중흥과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우뚝 솟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0월 8일 조계사 경내에서 '세존사리탑'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녹원 · 원명 · 동춘 · 혜성 · 정무 · 혜정 · 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국대 오원배 교수, 다인건축 장광열 소장, 보광석재 김한열 사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막, 헌향,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표창, 봉행사, 비문 낭독, 축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민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지관 스님은 종정 법전 스님을 대신해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보광석재 김한열 사장, 조계사 신도회 구자선 고문, 조계사 신도 김수정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보광석재 상무 윤재현, 동국대 미술학부 오원배 교수 등 8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봉행사에서 "과거 7층석탑은 1917년 일제시대에 세워져 일본풍의 석탑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80여 년 근현대 한국불교 중심도량인 조계사에 사적비가 없음을 아쉽게 여겨 총무원장 재임 중 석탑과 사적비를 세우기로 결심했다"며 "사부대중은 사리탑과 사적비 건립을 계기로 팔정도(八正道)와 십선법(十善法)으로 정진하며,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원행에 물러섬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비문의 서두와 말미를 낭독하기에 앞서 "무심한 돌맹이에 지관 스님의 금쪽같은 글귀가 새겨져 역사에 길이 남는 금석문이 됐다"고 말했다.

명예원로의원 녹원 스님은 축사에서 "사리탑과 사적비 불사의 원만회향을 축하하며 전 세계 사부대중에게 환희심을 안겨준 지관 스님의 원력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사기간과 18억여 원의 불사비가 투입됐다.


새로 세워진 조계사 8각10층 세존사리탑.

"지관 스님의 높은 뜻을 새겨 탑을 경배하고 원력을 세운다면 세계 불교중흥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번에 조성된 사리탑과 사적비는 2010년 조계사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년 8개월의 공

새로 세워진 8각10층 세존사리탑은 팔정도와 십선법을 상징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탑의 형태로 세워졌다. 탑의 외부에는 8여래상, 8보살상, 8신중상 등을 부조장엄 했다. 내부에는 1913년 스리랑카로부터 전해진 부처님 사리 1과, 소형불상 1만 4000구, 1660년 은진 쌍계사 각판 <법화경> 7권 1질과 25조 가사 1벌 등을 안치했다.

조계종 근현대사가 담긴 사적비는 조계사 80년의 연혁이 정리됐다. 한 · 일 불교 통합 획책에 대응하여 진행된 한국불교 총본산 건립운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담겼다. 총 25자(약 7.5m) 높이로 제작된 비문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사적비의 받침역할을 하는 귀부와 이수는 고달사원종국사탑비(高達寺元宗國師塔碑)의 귀부와 이수를 바탕으로 조성됐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광출판사 창립 30주년

10일 기념행사, 수송동으로 사무실 이전

서울 불광사를 창건해 한국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현대화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1927~1999)의 문서포교 유지를 받들어 불서 출판에 앞장서온 불광출판사가 10월 10일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불광출판사는 10일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종로구 수송동(46-21,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불광출판사는 기념행사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서점 4곳(교보,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30주년 감사 대잔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30년의 스테디셀러와 '다시보아야 할 책들'을 소개하는 도서목록도 곧 제작할 계획이다.

1979년 10월 10일 출판등록한 불광출판사는 그동안 바라밀총서, 불교불학총서, 불광선문총서, 경전 등 불교학을 위한 서적은 물론 불교의 대중적 서적과 아동서적을 출판해 불교출판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월간지 '불광'이 지령 400호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불광출판사는 30년간 펴낸 책이 단행본만 280여 종, 총 450만부 정도가 판매됐다. 2008년 불교계 출판 매출 1위, 2009년 현재 불교계 출판사 중 최다 단행본 발행이란 성과를 내고 있다.

2004년부터 불광출판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은사스님의 뜻에 따라 전법(傳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 비중을 늘리고, 명상과 심리학 등 인접학문까지 출판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경전과 입문서 제작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생명나눔 창립 15주년 음악회

18일 불암사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18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주지 일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병조씨의 사회로 박현빈, 마야, 진시몬, 주병선, 문현주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한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제9회 두산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이 불암사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2001년 설립된 두산장학회(이사장 일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심으로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인과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해인사, 봉선사 등 학인스님 11명과 동국대 재학생, 중 · 고등학생 등 23명에게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불암사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관장 석붕)의 '노인복지기금마련 자비바자회'도 열린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17일, 길상음악회

서울 성북동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가을의 운치를 더해줄 음악회가 열린다. 길상사는 10월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2시와 7시에 '가을 길상음악회'를 개최하며 더불어 가을에 어울리는 미술작품들도 함께 전시한다.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은 "부처님 도량에서 만나는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딱딱해진 마음을 풀고, 찌푸린 마음도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672-5945 이은정 기자

社告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종)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일 :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시●
코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반달-마일리-불불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시-반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인 원 :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참 가 비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접수마감 : 10월 20일(화) ●
사전설명회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 02-2004-8233, 017-236-5769 임연태 부국장
033-647-8848 영봉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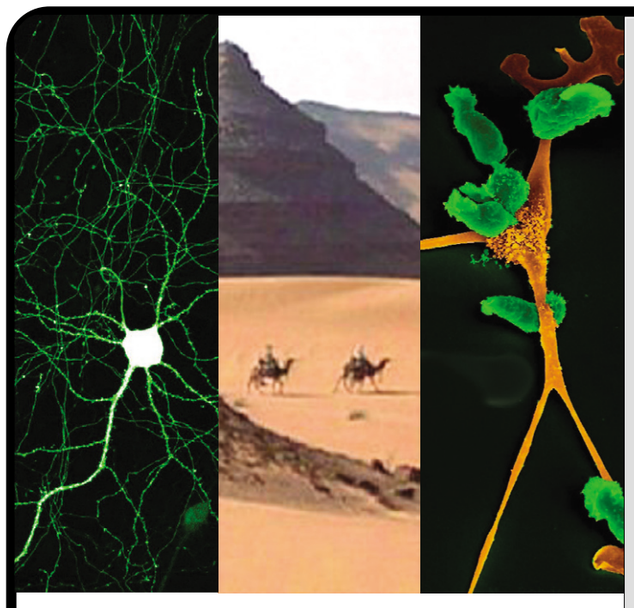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



마음 vs 뇌

Mind vs Brain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

뇌가 마음을 조정하는가!
마음이 뇌를 조정하는가!

뇌가 마음을 조정한다는 생각은 상식이다.
하지만 마음이 우리의 뇌와 몸을 바꾼다는 건 실재다!

1장 _ 마음에 반응하는 뇌와 몸
2장 _ 마음으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
3장 _ 사랑과 배려가 몸의 병을 치유한다
4장 _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
5장 _ 명상 수련에 따른 몸과 뇌의 변화
6장 _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명상수행 : 이완반응 명상
7장 _ 명상과 심신치유 : 신경과학적 근거
부록 _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챙김 명상 – MBSR



장현갑 지음 / 292쪽 / 13,800원

장현갑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와 한국 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와 가톨릭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에 인더월드,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메디슨&헬스 케어 등 5개 분야에 걸쳐 9년 연속 등재되었다.

• 출간 즉시 교보문고·YES24·인터파크·알라딘 인문부문 베스트셀러

100問 100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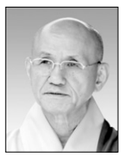
김성철 교수의 체계불학

"그렇다!"

"아니다!"

불광출판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3층 T.(02)420-3200 F.(02)420-3400 http//www.bulkwang.or.kr

일주문



봉화 청량사 스터디투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0월 25~26일 봉화 청량사에서 사찰문화 국내스터디투어를 봉행한다.(02)455-9596



전국비구니회 강연

무비 스님은 10월 28~31일 3박 4일간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유마경> 경전산림법회를 통해 법문한다.



사회복지유공자 추천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11월 2일까지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유공자를 추천받는다. (02)723-5101



구립증산도서관 성교육 프로그램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은 10월 24일 수탁운영 구립증산정보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한다.(02)307-6030



감로사, 승가사 합병 산신재

가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왕십리 승가사의 감로사 이전합병을 기해 10월 26일 호명산 산신재를 봉행한다. 25일 오후 6시에는 전야제도 개최한다.



대구 법왕사 20회 개산대재

실상 스님은 제20회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30일 종신 스님 초청 보살계 수계법회를, 31일 도문 스님 초청 백고좌설법회를 개최한다.(053)766-3747



전국 11개 도시서 강연

정토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광주, 포항 등 전국 11개 도시 순회 강연을 개최한다.(02)587-8990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 개최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개산 999년을 맞아 10월 18일 오후 4~6시 경내에서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를 개최한다.



종로노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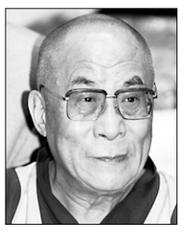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10월 7일 서울의료원의 지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100명을 위한 무료치과진료를 진행했다.(02)742-9500



53선지식 동자전 개최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진형 이사장은 여진불교미술관에서 개관 4주년을 맞아 10월 14~31일 '53선지식 동자전'을 개최한다.

미 의회 인권상 달라이 라마 수상



달라이라마.

미국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사진)가 10월 6일 미 의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피해 비난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사된 일이라 눈길을 끈다. 외교 정책, 경제 및 환경 문제 등에서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11월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다진 뒤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는 시상식에서 "이 상은 나의 남은 생애를 티베트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의 평등과 기본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인권상 시상식에서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잃고 말 것"이라며 인권상 수여의 배경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영산재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영산재보존회장 일운 스님 "세계화의 기회"

"영산재를 통한 태고종 알리기, 한국불교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4차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영산재 등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영산재 등재는 2003년부터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0여 개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영산재 알리기 활동에 나서 온 태고종 영산재보존회의 결실이다.

영산재보존회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은 10월 9일 "불교문화의 꽃인 영산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지금까지 보존과 전승에 힘써온 수많은 선사 스님들 덕분"이라며 "한국불교 전체의 경사로 향후 '영산재'를 통한 한국불교 알리기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산재보존회는 국제학술회의와 세계 순회공연에서 더 나아가 영문 홍보사이트 제작 및 자료집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영산재보존회와 봉원사 측은 조계종과의 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완결되는대로 가람정비 등에 나서 전승박물관 건립 및 전문공연단 발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체격과 교육과정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전문공연단은 서울시와 연계해 상설공연장 등에서 시연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일운 스님은 "2003년 국제학술대회를 추진하며 당시도 '사중살림이 어려운데 무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포교·문화는 종단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영산재와 함께 한국불교를 널리 알려 조계종의 3보사찰과 같이 일반인들이 '불교문화'하면 태고종, 그리고 총본산 봉원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영산재보존회장 일운 스님.

보존회와 태고종 측의 기대에도 불교문화재인 영산재를 널리알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운 스님은 "영산재는 타 무형문화재와 달리 원형 시현에 3일이나 걸린다. 5분이던 영산재보유자가 총재이신 구해 스님 한분 밖에 남지 않아 추가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보유자 인정이 예산 등의 문제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일운 스님은 "보유자 추가 지정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승'을 올곧이 하는 것이 영산재를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촉구했다.

한편,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0월 1일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맞춰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고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국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각 기관장 선출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은 10월 8일 대승사 총무원에서 종회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을 선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총무원장 능인 스님, 법계고시위원장 일파 스님, 원로최고의원 각성 스님, 승정원장 운암 스님, 중앙종회의장 지도 스님이 각각 선출됐으며, 각 부서 및 교구 종무원장은 10월 중에 임명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총무원장에 선출된 능인 스님은 "불교중흥과 불사정신의 원융화합 종단으로 쇄신해 종도들의 권익옹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꽃사진 초대 선암 스님 개인전

출가, 영산재, 연꽃 등을 주제로 사진 작품 활동을 해온 선암 스님이 10월 24~31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연갤러리(관장 강명순)에서 연꽃 개인전을 연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북경 등 해외 및 국내에서 사진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해온 선암 스님의 이번 전시회에는 연꽃을 주제로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연갤러리의 강명순 관장은 "개관 1주년을 맞아 선암 스님 작품 전시가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064)757-4477 이은정 기자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추대

(사)대한불교법상종은 10월 7일 평택 법상종 총무원 유가사에서 열린 제73차 임시종회를 열고 제14대 총무원장에 해월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해월 스님은 종단 체계를 다지고, 10월 23일 평택으로 총무원을 이전, 교육원 등 각 기관을 개설하는 등 종세 확장에 앞장서왔다.

대외적으로는 법상종조인 원측 대사의 행적이 남아있는 중국 서안 흥교사와 교류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태국 코엠사이타이 사원에 한국사찰 불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월 스님은 "종지종풍의 진작과 법맥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과 더불어 불교대학의 설립, 관련서적의 출간 등 법상종 불교사 연구에 전폭적인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엄마·부인 노릇 제대로 못해 미안…"

생명나눔, 10월의 선정 환자 이인자씨

"때 아닌 여름 감기가 날로 심해져 찾은 동네 병원에서 증상이 심상치 않다며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덜컹하는 마음은 이내 아찔함으로 변했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번에는 백혈병이라네요."



어려움 속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인자씨(우)와 남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10월의 환우로 이인자(여·47)씨를 선정했다.

이씨 가족은 IMF때 연쇄부도로 전 재산을 잃고 4억이 넘는 부채만 남아 친척 집에서 살았다.

재기에 몸부림치던 남편을 도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인자씨는 2006년 6월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엎친데 덮친격이랄까 인자 씨는 2009년 6월 또 다시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혈액암으로 입원해 2차 항암치료를 받고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동생과 조직적합성항원(HLA)이 맞아 동생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지만, 이미 16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고 이식수술을 위해 2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입시준비생인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지난 8월 취업해 조금이나마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아들, 그리고 연이은 중병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비어버린 남편을 두고 인자씨는 항암치료의 고통에서도 엄마로, 부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으로 울고 있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태국 승왕 탄신기념 성대한 행사 열려

솜뎃프라 냐나삼바라(Somdet Phra Nyanasamvara) 태국승왕 96번째 탄신기념행사가 10월 1~4일 태국 방콕 WFB세계본부와 마하마쿳불교대학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 행사는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WFB 진각종본부 회장)를 비롯해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아, 몽골 등 WFB 회원국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2일 세미나에 앞서 WFB세계본부 팬 와나메티 회장에게 구호기금마련성금을 전달했다. 이은정 기자

봉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창종 및 초대 종정, 총무원장 취임 대법회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창종의 변

석가세존께서 정각을 이루신 이래 그 진리의 등불이 이 땅에 전래된 지 어언 1,700여년에 이르름에 대자대비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도 깊도다. 석가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그 법은 가섭존자로 부법 상승하여 십삼조사(十三祖師)의 동토, 제 육조 혜능대사에 전승되고, 이 나라 이 땅에 보우국사를 통해 5교 9산이 융성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흐트러져만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불심을 한데 모으고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불기 2553년 9월 17일 중국 광동성 육조혜능대사의 직전 법맥을 찾아 육조사(六祖寺) 대원 방장 예하와 함께 한국불교 고승 여섯분의 증명으로 팔명의 승려가 조동종 제 26세 전법을 전수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법을 영원무궁토록 전법 도생함이 삼보님의 막중한 은혜를 갚는 길일 것이다. 또한 네가지 큰 서원으로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할 책무가 있기에 오늘 불기 2553년 10월 24일 좋은 날 여러 고승 대덕 예하님을 모시고 한국불교전통조계종을 창종하기에 이르렀다.



육조혜능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상급증명전법 전수증사 겸 제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초대 종정 정화당 무진본 큰스님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2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경북 포항시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연봉사 (총무원)

연락처 :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육조혜능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큰스님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합장

산에서 배운 겸손과 나눔 실천… 인생등반도 '성공'

이인정 대한산악연맹 회장

"히말라야는 존재 그 자체가 숭고한 가르침입니다."

1972년 처음 만날 때의 감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동안 70번 가까이 히말라야를 찾았지만 늘 새롭고 신선하고 장엄했다. 이인정(65) 대한산악연맹 회장에게 히말라야는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다.

"산이 가르치는 것은 겸손과 인내 그리고 나눔입니다."

서울 인왕산 아래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회장은 바위로 뒤덮인 인왕산이 놀이터였다. 그래서 산을 좋아했고 산에 오르면 즐거웠다. 이 회장의 산에 대한 열정은 동국대학교 재학 시절 '운명의 지침' 같이 좌표를 굳혔다. 동국대학교 산악부 회원이었던 이 회장은 히말라야를 오르기 위해 설악산에서 훈련을 했다. 그 훈련에서 눈사태에 묻혀 10명의 동지를 잃었다. 1969년 설악산 죽음의 계곡 10동지 조난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 회장은 그로인해 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산에 다가갔다.

이 회장의 산악이력은 한국마나슬루등반대(1980년) 대장, 소련 코뮤니즘봉 등반대장(1992년) 등 수차례의 등반대장 소임을 맡아 등정을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산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매체 창간, 국가 간 교류활동 참여 등으로 폭넓게 이어지고 있다.

산 그리고 산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이 회장은 산으로부터 배운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주)태인이 그 동력이다. 1988년 설립한 (주)태인은 누전차단기와 배전용 차단기 SD-RAM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ISO 9001 등 국제 인증서도 여럿 획득했고 충청북도로부터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6년째 산악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산악부 등에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9월 동국대학교 동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70여회 오른 히말라야 "존재 그 자체가 숭고한 가르침"

한-네팔친선협회, 각계 인사 참여 교류와 지원 사업 전개

北 산악인과 에베레스트 등반, 국립박물관·도서관이 꿈

그러한 실천은 이제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단체인 한-네팔친선협회(이하 친선협회)로 꽃을 피우고 있다. 주한 네팔명예영사를 역임(2001~2006년)한 이 회장은 우리나라에 네팔대사관이 설치되기 전에도 관련 업무를 지원했던 네팔통이다. 산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11월 초에 정식 발족되는 친선협회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와 산악관련 교류 외에도 네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친선협회에 동참의사를 밝힌 인사들의 면면이 매우 다양하다. 한명숙 前 총리와 이연택 前 대한체육회장, 김광운 서울대 교수, 성기학 노스페이스 회장 등이 동참하기로 했다. 엄홍길 박영석 등 산악인들은 물론 박범신 김운경 등 문학인, 양희은 박미선 송은이 등 연예인, 황영조 장미란 등 스포츠 선수, 스님과 신부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민족의 영웅 손기정 선수의 양이들이자 황영조(마라톤) 이은경(양궁)의 양부인 이 회장은 산악박물관과 도서관을 설립한 유일한 산악인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태인빌딩에 한국산악의 역사가 담긴 각종 장비와 유물들을 전시한 산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보물창고다. 일제강점기 때의 산악인들이 활동하던 모습, 고상돈 대장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던 때의 영광과 환희, 그 때의 무전기와 각종 장비, 의류와 기념품들이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산악도서관에는 산과 관련된 도서들이 빼곡하다.

그의 산에 대한 철학이 박물관과 도서관에 응집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 회장은 단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 아니라 산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진정한 산악인인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산도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 앞에서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산은 협동과 인내 그리고 순응의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 회장은 한국등산학교 교장 시절(2000~2008년) '기본에 충실 할 것'을 가장 강조 했다.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기술을 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기본수칙을 무시한 사람이 산에 오르면 사고를 당합니다. 세상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환경이 훼손되고 그게 지나치면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역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파괴되면서 싹트는 것입니다. 저는 산이 가르치는 무욕의 삶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을 오른 사람은 산을 내려오면서 다시 산에 오를 꿈을 키운다고 한다. 성공한 기업인으로 존경받는 산사람으로, 활달자재하게 살면서 '인생등반'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회장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 산악인들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앞서야 하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는 국립산악박물관과 도서관이 설립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개인 박물관과 도서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록과 유물들이 산과 사람을 이어주는 보물이니까 말입니다."

글=임연태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산악박물관에서 30년 전에 쓰던 산악용 무전기를 들어보이는 이인정 회장


오은선 대장(왼쪽), 故 고미영 대장과 함께.


산악박물관의 한 코너.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에드먼드 힐라리경(맨 왼쪽)과 그의 부인, 엄홍길(뒷줄 왼쪽)과 함께.

정확하고 올바른 다라니 독송은 그 공덕이 훨씬 수승하다



덕산/신국판/294쪽/12,000원

천수경과 대비주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

진언의 원문인 범자가 중국의 한자로, 그것이 다시 한글음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진언의 발음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저자는 가범달마와 불공 역 한역본의 대비주, 고려대장경 안의 대비주, 망월사본 대비주,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송되고 있는 대비주 등 여러 판본들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재 독송되고 있는 현행대비주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비주의 올바른 독송음 복원을 시도하였다.

소백산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노선사의 서슬퍼런 선기와 파격의 사자후!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경북 영주 일대에 '욕쟁이 스님'으로 유명하면서도 어린아이같은 순수함과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봉철 선사. 일반 불자들에게는 낯설지만 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가볍지 않은 봉철 선사. 이 책을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일견 파격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번뜩이는 선기와 사자후로 제자들을 제접하는 한 자유인이 내뿜는 선의 향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238쪽/9,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외/신국판양장/400쪽/18,000원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우희종, 김진무 외/신국판양장/504쪽/23,000원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면역학에서의 성찰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윤원철 외/신국판양장/396쪽/20,000원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상좌부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자랑스런 시민상’ 받아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 ‘대상’ 영예


김윤환 대표.

부산 영광도서 김윤환 대표(부산불교실업인회장)가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0월 5일 제30회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산시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명의 시민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수여됐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부산시민헌장 낭독, 자랑스런시민상 시상, 허남식 부산시장 기념사, 제종모 시의회의장 축사,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김윤환 대표는 “이 상은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 부산발전과 부산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부산의 대표문화공간인 영광도서를 창립하고 4년간 일궈왔다. 부산을가꾸는모임 공동대표, 향토사랑시민연합 공동대표, 부산시새마을 회장, 목요학술회 부회장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왔다. 불자로서 부산불교실업인회장으로 독실한 신행활동과 불법홍포로 부산 불교계를 이끌고 있다. 한편, 부산시민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좌천동~문현동 앞바다)에서 있었던 부산포 해전의 승전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0년 10월 5일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천진불 맞이할 ‘환희지’ 열어

해동중 법당 봉불 및 법당 증축 법회 봉행

60여 년 전통의 종립 해동중(교장 손태석)의 오래된 법당이 새 부처님을 모시면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환희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연 해동중학교 법당은 기존 20평에서 30평으로 규모부터 커졌다. 은행나무로 조성한 석가모니불과 불단, 수미단, 좌대, 탱화, 소종 등을 갖춰 법당 규모에 걸맞게 장엄됐다.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마루를 새로 깔고 첨단 시청각 기자재 일체를 설치해 중학생 천진불들과 불자 교직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부산 범어사가 건립한 종립 해동중은 60여 년간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증장시키고, 수계제자로 키우는 등 천진불 양성 1번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불자들이 우리나라 전역 사회 각 계각층에서 불자로서 모범이 되며 활발한 신행 및 포교활동을 통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해동중 법당에서는 불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아침예불과 매주 목요일 ‘선정의 시간’, 월 1회 교직원 법회와 하계 수련법회, 매년 12월 3일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데 매년 60~70%의 학생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있다. 또 파라미타활동을 통해 신입생 환영대회, 거리환경 보존캠페인, 1문화재 1지킴이, 문화탐방, 진로캠프, 템플스테이, 종립학교 간부수련회 등 즐겁고 유익한 신행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해동관음회에서는 연 8회 교리강좌 및 법회를 개최하고, 봉축법회, 성도재일법회, 야외법회 등으로 불법을 전하고 있다. 제1회 전국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는 중학생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소년 포교의 최전방인 종립학교가 앞으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처님 봉안과 법당 불사에 더 많은 어른 불자들과 스님, 사찰, 종단의 도움이 절실하다. (051)400-2313

박지원 기자

가을 ‘차문화’에 흠뻑 빠지다

19일, 제4회 부산국제 茶어울림문화제 개막

부산의 수준 높은 차문화와 차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제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열린다.

10월 19일 국립 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소극장 예지당과 옥외 어울림마당 등 부산국악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오전 10시 30분 부산시 차 정신문화의 근간을 마련한 4대 다인 금당 최규용(백운 옥판차의 목각본 발굴), 목촌 구혜경(부산 차문화 보급의 선구자), 다촌 정상구(부산여자대학 차박물관 설립), 원광 스님(‘차심’ 창간자) 등에 대한 추모헌공차례를 시작으로 11시 개막식, 다촌선비차례 · 주심차법 · 일본차법 · 명상선차 · 오방차례 · 중국 복건성 오룡차법, 궁중 연회차례 등 각기 다른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국내 다회별 차법 및 외국의 차법이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옥외 어울림마당 전층에서는 연지초교 어린이들의 효도 차올리기, 외국 대사부인 행차시연 및 체험, 누구나 행차시연 등을 통해 단순한 다도시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맛보고 만들어 체험할 수 있다. 또, 축제일 정오와 오후 4시에는 각각 가을떡 2000개를 관람객에게 선착순 무료 증정한다.


지난해 열린 제3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 참석한 내외빈들의 모습.

문화제를 주최한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회장 김순향)는 우리의 우수한 차문화가 대중문화 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 차인들의 관심과 열정을 한데 모으기 위해 2007년 발족했다. 부산은 비록 차의 주산지는 아니지만 일찍이 범어사 등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발달해, 현재 차소비율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를 증명하듯 차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김순향 회장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특색으로 발전해온 여러 다회별 차법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물질만능주의시대의 대중문화에서 소외된 차문화와 다도정신을 되새겨, 차향의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대행사로 ‘아름다운 찻자리 전시’가 예지당 로비에서 소장전 전시로 꾸며지고, 체험마당에서는 차 시음 외에도 절하기, 다식만들기, 한복 바로 입기, 행차, 도자기체험, 삼대(조부모, 부모, 자녀) 가족사진 촬영, 차실명(茶室名) 전시 등도 함께 마련된다. (051)809-155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김前 대통령 49재

김해 정토원, 봉행

김대중 前 대통령의 49재가 김해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10월 5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선진규 원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김해사암연합회(회장 지현) 스님들의 권공 축원 법문 관욕 회향 등이 여법하게 봉행됐다. 선진규 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통일의 염원을 몸소 실천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명복을 빌며 불교계가 나서 동서화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김대중 前 대통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토원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 등을 봉행했다. 또, 8월 18일 김 前 대통령 서거 후에는 매일 조석으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왔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천년고찰 · 현대 시설 조화이뤄

선찰대본산 범어사 문화재주변정비 시작

천년고찰 범어사가 달라지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범어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경내 선원, 종합안내소, 해우소 등 문화재주변정비를 마쳤다.


범어사 종합안내소 준공을 축하하며 주지 정여 스님(가운데) 등이 테이프 커팅하는 모습.

2013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범어사가 진행 중인 범어사 종합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비사업은 1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시 지원금 4억원과 불교문화사업단 1억 8000만원, 범어사 자부담금 2억 7000만원 등 8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번에 증축한 건물은 휴휴정사 앞 81.57㎡로 지하 1층, 지상 1층 등 2층 규모의 해우소, 288㎡의 지하 1층, 지상 1층 등 총 2층 규모로 누각과 해우소, 샤워시설 등을 갖춘 선원, 범어사 입구 종합관리안내소 등이다.

정여 스님은 “이번에 증축한 해우소와 종합안내소는 현대적 시설을 전통 건축양식과 적절히 병합해 천년고찰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범어사를 찾은 방문객부터 신도들과 스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불화장 오기웅, 배수정 부부

“저흰 불화 없이는 못살아요”

부부는 용감했다. 한 사람이 평생 단 한번 오르기도 힘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3년 연속 수상한 부부가 있다. 한 작품을 함께 작업한 게 아니라, 각각 지장보살과 석가모니부처님의 설법을 독특한 화법과 색채로 각자의 화폭에 담아냈다. 중요무형문화재 118호 불화장 커플, 오기웅(38), 배수정(30) 부부가 바로 그들이다.


불화장 오기웅 · 배수정 부부

불화장이자 단청 문화재 수리 기술자인 오기웅 씨는 “불화는 제 아무리 빼어난 실력으로 그렸다고 해도 그 속에 정성과 간절한 신심으로 그려야 비로소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이 깃든다는 것을 알기에 점점 많은 작품을 거쳐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진다”며 스스로를 낮췄지만, 그의 이번 수상작 ‘지장보살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특별함이 숨어있다.

화학안료는 단 한 방울도 쉬지 않고, 오직 천연재료만을 사용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했다. 얼굴색과 피부, 연꽃문양은 수정을 썼고, 탱화 전반의 색이 고운 까닭은 진주로 빛을 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땅 속 암반에서 축출한 천연 석채만을 사용해, 화학안료를 조악하게 섞어 색을 내지 않고도, 수백 년간 변함없을 영원의 색으로 ‘지장보살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옹고집 불화장을 남편으로 둔 아내 배수정 씨 또한 만만치 않다. 대학 때 한국화를 전공하던 중 불화의 매력에 심취해 전문적으로 배웠고, 불화장을 이수한 고수다. 그래서 그녀의 그림 속에는 현대적인 색채와 지극한 신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성스러움, 한국화의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기법이 공존한다. 이번에 수상한 ‘석가모니 설법도’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예경하는 여러 제자들을 담았는데 어떤 이는 합장을 한 듯하나 춤을 추고,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조는 이도 보인다.

배수정 씨는 “불화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멍하니 살아가던 내 삶에 경종을 울렸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었다”며 “그 후 평생 부처님을 그리면서 살면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오기웅 씨의 붓끝을 거쳐 간 사찰만 무려 100여 곳이 넘는다. 최근에는 부산 홍법사 새 대웅보전의 전각 등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내 배수정 씨와 함께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탱화강사로 활약했다. 지금은 가덕도의 한 사찰 후불탱화를 조성하고 있다. 수많은 탱화를 그리고 단청을 조성해왔지만, 쉽고 빨리 해내려 허투루 임한 적은 없다.

“석채를 사용하면 2~300년은 거뜬히 변함이 없어요. 한번 조성하면 수백, 수천 년간 보존될 탱화인데 싸다고 아무거나 쓰면 되나요.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그리는 사람의 신심과 한 획 한 획 정성이 들어가야겠지요.”

7년 전 탱화의 매력에 빠졌던 배수정 씨에게 불화를 가르쳐주던 선생님 오기웅 씨는 이제 남편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던 부처님을 그리는 지금, 이들 불화장 부부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055) 905-8089

박지원 기자

봉행

제5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창종 7주년 기념 사암 및 종도 모집]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제 5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선, 중덕 및 대덕, 종덕 및 종사, 대종사 품수를 응할 종단내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명 : **제 5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 일 시 : **2553(2009)년 10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북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부도사**
· 금년도 법계고시는 호계원 부도사에서 시행합니다.
· 사암 및 종도 모집하오며 10월 중에만 입종비 없음.
· 임원 간부 소임을 맡을 분 환영합니다.

- 대선 및 중덕 대상자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2) 승납 5년이상 (대선)
(3) 승납 10년이상 (중덕)

- 대덕 및 종덕 대상자 -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중덕 및 대선 수지자)
(2) 승납 20년이상 (대덕)
(3) 승납 25년이상 (종덕)

- 종사 대상자 -
(1) 법납 30년 이상.
(2) 종덕 법계 5년이상

- 대종사대상자 -
(1) 법납 35년이상
(2) 종사 법계 5년이상

- 대승정 대상자 -
(1) 법납 40년이상
(2) 대종사 법계 5년이상

◇ 법계신청 구비서류
(1) 법계신청서 1부

◇ 사암 등록신청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 입종비 없음

■ 신청마감 : **불기 2553년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 문의전화 : **054)325-0400. 010-6306-0082**

불기2553년 10월 8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호계원 법계 고시 위원회 위 원 장 일파 · 호계원장 현덕

선운사 · 미당시문학관 함께 새로운 도약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 모임 개최… 승려노후수행관 추진 본격화


9월28일 선운사에서 열린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연구소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창 선운사가 미당시문학관과의 연계를 통한 불교문화관광벨트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또, 백파사상연구소와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미당시문학관(이사장 법만 · 선운사 주지)은 9월 28~29일 미당문학관 인근 질마재 마을 주민들과 전국의 문학관 탐방을 다녀왔다.

행사에는 고창군 선운리 질마재 마을 인근 4개 마을 이장,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 70여 명이 참석해 최명희문학관 등 전북지역 4곳의 문학관을 탐방했다. 이어 두 번째 탐방길에서는 원주 박경리문학관, 백담사 만해마을, 양평 소나기마을과 미당의 유품이 보관돼있는 동국대 도서관 미당자료실 등을 둘러봤다.

지역민들은 선운사가 추진 중인 불교문화관광벨트의 정책방향에 지역민들의 희망을 담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법만 스님은 "미당 시문학관을 연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선운사와 하나의 문화 벨트로 묶어야 고창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내년 선운문화제는 '선운사의 역사와 문학'을 주제로 꾸며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선운사에서 한국 근대 불교를 이끈 백파문도의 그간 업적을 재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백파사상연구소 발기인 모임이 개최된 데 이어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추진위원회도 열었다.

백파사상연구소는 향후 △백파스님 관련 전적 수집 및 번역 △백파 · 석전 스님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백파 문도의 법맥도 체계화 △조사전 건립 및 선대 조사 진영 제작 △백파문도의 행장 수집과 정리 및 위상 정립(영호대종사 독립유공자 신청 등) △불교 학술세미나(종책연구) △서적 편찬 및 각종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지매입과 주민 이주 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주민이주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 그간 과정에 대한 격려가 있었다. 또, 노후수행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공모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일요법회 창립
익산 백운사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이 익산 백운사 일요법회에서 강의하고 있다.

익산 백운사(주지 우성)는 9월 27일 일요법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신도들의 기초교리 교육을 위주로 진행되는 일요법회는 월1회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의 강의로 기초교리와 일상생활속의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종교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 사회 곳곳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3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한 첫날 법회는 김진수 단장의 간단한 불교예절과 한가위를 앞두고 차례상 차리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주사 천불천탑 모형 등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서 눈길 끌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설치된 운주사 천불천탑 모형.

세계적 문화축제의 장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운주사 천불천탑을 모형화한 조형물이 들어서 눈길을 끈다.

9월 18일 광주에서 막을 올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전시관 일대에 운주사 탑을 모티브로 하는 입장권판매대, 기념품 판매대, 간이음식점 부스가 등장했다.

이 작품은 디자인비엔날레 공간 연출을 맡은 이탈리아 건축가 시모네 카레나(홍익대 교수)와 마르코 브로노(건국대 교수)가 설계했다.

운주사의 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들 상징물은 총 6점으로 분홍색, 파랑색, 붉은색 등 화려한 색의 천과 재료로 표현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운주사가 갖는 전통문화의 향기와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은 '전통의 새로운 디자인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11월 4일까지 계속되는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48개국에서 519명의 디자이너와 376개 기업이 참여해 1951점의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다.

행사에서는 입고, 먹고, 쉬고, 배우고, 즐기는 인간 삶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해석, 옷(衣) · 맛(食) · 집(住) · 글(學) · 소리(樂) 5개 주제로 나눠 보여 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인의 날 기념 경로축제 '다채'
고창복지관 7일, 어르신 1000여 명 참석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 10월 7일 열린 제2회 복운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7일 복지회관 앞 광장에서 '제2회 경로의 날 – 복운경로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송농악전수관 풍물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작품발표회,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 5명(변영철, 정화자, 김혜옥, 박석영, 김종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표창장도 수여됐다.

공연에는 노인복지회관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난타, 한국무용, 복운실버합창단, 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복운실버악단 등 그동안 복지회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펼쳐졌다.

축하공연에서는 '신나는 예술버스' 초청공연으로 사물놀이 판 굿, 한량무예, 진도북춤, 초청가수공연 및 청솔체육관의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어르신에게 즐거움과 흥겨움을 선사했다.

무공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우리 고유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합동 차례 · 노인잔치
동여수노인복지관

노인의 날과 한가위를 맞아 지역 노인들을 위한 어울림 마당이 펼쳐졌다.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김가현)은 9월 30일 여수시 큰샘골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300여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한가위 차례지내기와 노래잔치를 벌였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1부에 개회식, 인사말, 차례지내기, 풍물공연, 어린이밸리댄스 공연에 이어 무료급식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열음식(우도풍물굿), 건강체조,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어르신 노래자랑, 에어로빅 공연, 비보이 댄스 공연이 진행돼 참석한 어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김가현 관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 만큼 전통명절을 다 같이 지내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른들이 같이 노래부르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국토를 찾아서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악조건 속에서 빛 발하는 '불교활동'

인구밀도당 교회 숫자가 가장 많아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는 군산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불교 신행단체나 불교활동가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업상 혹은 대인관계상 불교활동 사실을 밝히기조차 꺼리는 불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산지역 불교활동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노력들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군산불교신도연합회 안근 회장

이런 악조건 속에 군산 불자들의 모임인 군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안근, 군산신도회)는 열악한 군산지역의 불자들의 구심점으로 군산사암연합회와 더불어 군산불교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신행단체이다.

군산신도회의 뿌리는 군산불교청년회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초 군산불교청년회는 법회장소와 신행공간을 마련하고자 군산불교회관추진위를 구성했다. 군산불교청년회의 원력은 1997년 군산불교회관이 개관하는 성과를 거두며 군산지역 불자들을 아우르는 신도회로 거듭났다.

군산불교회관의 개관과 함께 청년회 등 지역 신행단체들의 법회장소는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장소가 마련됐다. 이후 군산신도회는 명실상부한 군산불교회관의 운영주체로서 활동 중이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즈음해 개신교가 성행하는 도시에서 연등으로 거리를 장엄할 수 있는 것도 군산신도회의 노력 덕분이다. 밤새워 거리에 등을 다는 신도회원들의 노력은 눈물 겨울 정도이다.

군산신도회는 안근 회장이 취임한이래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연등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근 회장 취임 이후, 군산시청 앞 뜰에서 군산 개항 이래 처음으로 기원등이 점등되기도 했다.

군산신도회는 신도회원의 결속을 위해 매월 지역의 소식지를 발행해 왔다. 매년 개최하는 일일찻집을 통해서는 어려운 청소년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장학금과 난방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 매년 정초에는 군산발전기원 조찬법회를 열어 지역기관장들과 수백 여 불자들이 함께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져 지역불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군산불자들을 대표한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지는 중이다. 군산신도회는 선거 때면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공명선거에 앞장서왔다. 군산미군우리땅 찾기 모임에는 천주교와 함께 연대해 대시민활동을 펼지고 있다. 환경문제에도 앞장섰다. 군산신도회는 금강철새보호구역이나 금강하구언에서의 환경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여러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군산불교신도연합회의 활동모습이 든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시조시인 김어수 법사 탄생 100주년

영월서 기념사업 '다채' … 24일 기념시비 제막

"꽃잎 지는 뜨락/ 연두빛 하늘이 흐른다/ 세월처럼 도는 旋律(선율)/ 한결 저녁은 고요로워/ 그 누구 치맛자락이 스칠 것만 같은 밤…."(김어수 시인의 '봄비')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를 창설한 시조시인이자 부산 금정중학교 교장을 지낸 교육가, 조계종 초대 중앙상임포교사로 활동했던 영담(影潭) 김어수(1909~1985) 법사. 범어사로 출가해 25년간 수행한 스님이자 문인, 포교사로 불교계 안팎에서 큰 족적을 남긴 김어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출생지인 영월에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영월군(군수 박선규)과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년균), 한국시조시인협회(회장 한분순)는 공동으로 10월 24일 오후 1시 영월읍 직동리 생가터에서 유가족과 지역주민, 불교계, 문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어수 탄생 100주년 기념 시비(詩碑) 제막 및 김어수공원 표지석 설치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김어수시인탄생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김어수 작품 및 유작전시회(시회전 및 서예전), 김어수 문학강연, 김어수 시집 발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도 펼친다.

김어수 시인의 제자인 추진위원장 상욱 스님(남양주 불암사)은 "김어수 선생의 시 '봄비'를 새긴 시비를 다시 세우고(기존 시비는 시조 율격에 맞지 않아 철거함) 김어수공원을 조성하는 등 그 분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영월군민과 문인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따른다면 향후 추진할 김어수문학박물관 건립, 생가 복원 등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대외협력위원인 문태성 시인은 "이번 기념사업은 '200년 김삿갓'과 '100년 김어수'를 보유한 시인의 고장 영월이 문화의 중심지로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어수 시인을 '제2의 만해'로 선양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담 김어수 법사.

한편, 1909년 1월 4일 강원도 영월 상동면에서 태어난 김어수 시인의 본명은 소석(素石), 어수(魚水)는 법명이다. 1932년 6월 조선일보에 '조시(弔詩)'를 발표해 등단, 24세에 조선불교청년동맹 문화부장으로 항일운동을 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37년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재학시절 <안락국태자경>을 번역하고 교우지 <룸비니>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으며 <회귀선의 꽃구름> <이 짙은 향기를 어이하리> 등 시조집을 비롯해 수필, 경전번역 등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다. 1945년부터 교직생활을 한 시인은 1969년 11월 무진장 스님, 법성 스님, 선진규 법사와 함께 초대 중앙상임포교사에 임명돼 포교사로도 맹활약했다. 1980년 제5회 노산시조문학상을 수상하고, 1983년 한국현대시조시인협회 초대회장에 취임했으며, 1985년 1월 7일 입적했다.

김성우 기자

추석, 나눔의 자비행

신흥사복지재단

설악산 신흥사 산하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 이하 복지재단)이 추석을 맞아 지역민들과 나눔과 자비행을 펼쳤다.

복지재단은 9월 30일 속초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5000여 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자비 나누기=행복더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각 수혜자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과일,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한편, 6월부터 설악산 신흥사 주지소임을 맡은 우송 스님은 취임식 당일 지역민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었다. 이어 8월부터는 속초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면제해 신흥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송 스님은 "종교를 떠나 속초시민들의 함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참다운 복지불사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33) 636-7044

이극래 강원지사장

개산대재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나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화엄사 금산사… 음악회 전시회 수계법회 등

사찰을 창건해 처음 문을 연 개산(開山)을 기념해 열리는 개산대재가 전국에서 잇달아 열려 눈길을 끈다. 대구 동화사 부산 범어사 김제 금산사 등 전국 사찰에서 잇달아 열리는 개산대재는 예년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어루어진 불교문화축제로 거듭났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051-508-3122)는 개산 1331년 기념 개산문예대전을 10월 10~11일 개최한다. 행사는 10일 오후 3시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대웅전 앞에서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11일에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에서는 범어사 대웅전 단청문양 모사도 특별전도 지역민들을 기다린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055-934-3000)는 13일 대적광전에서 제1207주년 개산대재와 다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사찰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한 법회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6~31일 김양수 화백의 선화전 '달마가 꽃을 들다' 특별전을 비롯해 이형준 여행사진작가의 세계문화유산사진전(13~31일), 광해군 복식전 '서원'(17~11월 22일)이 열린다.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055-985-7889)는 17일 제151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행사에서는 보살계 수계식과 만등불사 점등식도 봉행된다.

개산대재에 앞서 10~16일에는 통일대불전에서 '계·정·혜 삼학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를 주제로 7인 고승초청대법회가 열린다.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하동 칠불암 회주 통광 스님이 법문한다.

같은 날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닥종이 인형과 함께하는 고승열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055-372-7000)는 24~26일 개산대재가 열린다. 25일 오후 1시 부도밭에서 헌다례 봉행으로 시작되며, 26일 오전 11시 기념 법요식을 봉행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현근)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었던 혜각 스님 관련 유품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24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12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또,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062-782-0103)는 26일 오전 11시 개산대재를 맞아 역대선사 다례재를 봉행한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 063-548-4441)도 11월 6일 제1410주년 개산대재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연다.

조동섭 기자

마음수련원 개원

25일, 묘적암

팔공산 묘적암(주지 성인)은 10월 25일 오전 11시 불교마음수련원 개원 다례법회를 봉행한다.

월탄 스님을 초청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명상다례법, 기도차, 만다라 등이 시연될 예정이다.

불교마음수련원은 면벽, 좌선, 묵언, 예불, 탑빛걷기 등을 통해 자기성찰 근원적인 문제해결, 근본원인치료를 함으로써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기 위해 건립됐다. (011)9371-8080

손법천 대구지사장

단기출가학교 입교

한국불교대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10월 5일 단기출가학교 6기 입교식을 봉행했다.

입교식에는 직장인, 학생 등 재가자 7명이 삭발과 수계식을 갖고 예비 승려로서 보름간의 단기출가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단기출가 기간 한국불교대학 부설 감포도량에 머물며 기초 불교공부, 참선, 목탁 염불 습의 등을 익히게 된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보현사 삼성각 낙성

태고종 보현사(주지 원봉)는 10월 8일 오전 10시 법제자 건당 및 삼성각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원봉장학회는 21명의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혜초 종정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인공 스님, 중앙사정원장 월운스님, 충북교구 종무원장 원해 스님, 원봉문도회 스님 등과 이대원 충북도의회의장,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 남상우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세종 17왕자·단종 태 봉안된 곳

성주 선석사, 9월 25일 '태문화 학술세미나'

최근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이를 두고 능을 지키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둔 원찰(願刹)의 원력 덕분이라는 말도 나온다. 선왕(先王)을 추모하고 능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원찰은 능침사(陵寢寺)로도 불리지만, 정작 임금의 태(胎)를 모시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태봉 수호사찰'이 있었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김천 직지사는 정종의 태봉 수호사찰이었다. 예천 명봉사와 영천 은해사, 보은 속리사는 각각 문종 인종 순조의 태를 모시고 이를 수호하는 사찰이다.


9월 25일 성주 선석사에서 봉행된 태실법당 낙성식 테이프 커팅 모습.

이런 가운데 세종의 태봉 수호사찰 성주 선석사(주지 혜만)가 9월 25일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태실법당 준공기념 태(胎) 문화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행사에서는 이덕주 성주향토사연구회장이 '조선시대 장태문화'를, 오형근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태아관'을, 황옥자 동국대 교수가 '한국인의 임신 태교 출산에 관한 발달사'를 발표했다.

태실은 태(胎)를 묻은 곳이다. 제대혈 보관시설 등이 없던 과거에는 가정에서 태를 처리해야 했고, '삼가른다'는 말로 표현되는 행위를 통해 탯줄과 아기를 분리했다. 과거 민가에서는 태를 불에 태우거나(燒胎), 물에 떠내려 보내거나(水中棄胎), 일부분을 말려 보관하거나(乾胎), 드물게는 술에 담궈 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조선왕실에서는 왕자의 태처리가 국운과 직결된다는 믿음에서 태를 땅에 묻었다. 왕자가 아기 때 묻으면 아기 태실이라 불리지만 왕위에 올라 가봉(加封) 의식을 행하면 태봉(胎封)이라 불렀다. 태를 묻은 산봉우리는 태봉(胎峰)이라 했다.

이덕주 회장은 "성주에는 조선 태종을 비롯해 세종의 17왕자와 단종의 태가 봉안된 곳"이라며 "전국에서 많은 태실이 한 곳에 모이고 보존이 잘된 곳도 성주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화사 말사인 선석사는 신라 효소왕 1년(692)에 의상 대사가 화엄10찰 중 하나로 신광사(神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고려 공민왕 10년(1361) 나옹 대사가 현재 위치로 옮겼다. 절터를 닦던 중 큰 바위가 나와 '터 닦을 선(禪)'자를 넣어 절 이름을 선석사라 했다. 이후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자 태실과 200m 거리에 위치해 왕자들의 태실을 수호하는 사찰로 지정됐다.

이 회장은 "태봉 수호사찰인 선석사에 현대식 태실법당을 마련해 태를 봉안하게 된 것은 병원에서 처리하던 태를 불전에 안치하고 기도를 통해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오형근 명예교수는 아뢰야식을 중심으로 불교의 태아관에 대해 조명했다. 오 명예교수는 "태아는 단독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유 또는 아뢰야식이 부모의 인연과 화합해 출생하는 것이며 이를 삼사화합(三事和合)이라 말한다"고 설명했다.

황옥자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의 태교법을 비롯해 팔정도 태교법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선석사에서는 태실법당 낙성식 및 자모관음보살 점안식이 봉행됐다.

행사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이창우 성주군수, 백인호 성주군의회 의장 등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허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태는 어머니와 아기를 잇는 생명의 고리요, 아기의 뿌리로 무한가능성의 근원"이라며 "태실법당이 사바에 장엄돼 기도로 생명력을 불어넣어 무한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성취되고 발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혜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태실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높이 기리고 태아와 아기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태실법당을 건립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근육통증으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쑤시고 결리는 근육통증 증상완화 – 파워봉 – 13
근육통증이 있는 부위에 지그시 눌러 주시면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력에 의해 근육통이 완화 됩니다.
의료기제조업허가 제2120호
품목허가 07-87호
GMP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의료용자기발생기입니다.

– 광고심의필 –
2009-GN1-22-0156
▲ 파워봉 – 13
【 노부모님께 효도선물!! 】
★ 파워봉-13이 의료기로 새롭게 태어 났습니다 ★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 어깨 근육통으로 고생하는분
◇ 허리근육통으로 고생하는분
◇ 무릎, 허벅지 근육통이 있는분
◇ 고관절 주변 근육통이 있는분
◇ 손목, 발목 근육통으로 고생하는분
특별보급가 49,000원
※ 방문하시면 직접 체험하실수 있습니다.
※ 효능, 효과를 확인 하신 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제조원 : 로하스메디칼
■ 판매원 : 로하스 메디파크

골격을 바로잡아 스스로 병 고치는
일본진출!
정골요법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치유법!
죽을병에 걸려 병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나서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 건강법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누워서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 『자가치유법』 대공개!

이재복 지음(250면) 값10,000원
골반, 척추, 디스크, 좌골, 오십견
견비통, 상기증, 갑상선, 위장병, 호흡곤란, 당뇨,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혈압, 고관절 수족냉증, 변비, 오장육부의 체온을 높여서 성인병 고치는 놀라운 기지개 운동 공개!
★ 단체지도한 곳
• 국립경찰대학교
• 중앙경찰학교
• 삼성종합화학㈜
• 한국중공업㈜
• 육군73사단
• 한솔개발㈜
• 독일동서의학병원
임상실험 인정증 획득!
복부에 들어있는 만병의 근원 "적취" 쉽게 푸는법 수록!
누구나 쉽게 배우는 통증치유법으로 가족건강 지킨다.
◎ 생체에너지를 강화시키고 몸속에 냉기(독소)를 확 빼내는 법 수록
◎ 노인들의 퇴행성질환 돈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치는 법
◎ 양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쉬운 다리교정법 수록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주소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구초등학교)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6

참회 없이 바른 삶도 없다

탐진치 악업은 끝없어도 한 생각 돌이키면 참회
호국참회도량 도선사, '108 산사순례'로 신행바람

[원문]
아석소조제악업(我昔所造諸惡業)
개유무시탐진치(皆由無始貪嗔痴)
종신구의지소생(從身口意之所生)
일체아금개참회(一切我今皆懺悔)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일념돈탕진(一念頓湯除)
여화분고초(如火焚枯草)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번역]
내가 예부터 지어온 악업은
끝없는 탐진치에서 비롯되었다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 하나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선해(禪解)]
지난 3년 동안 불교 포교의 최대 이슈는 바로 '선묵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 가는 108 산사 순례기도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불교 포교의 일대 혁명이었다. 이 순례기도회는 108산사에서 108배와 108불공을 올려 인간이 가진 108번뇌를 소멸하여 108선행과 108공덕을 쌓아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아가자는 데 있다. 사찰 하나를 찾을 때 마다 이러한 행을 실천하는 일은 마치 보현(普賢)행을 실천하는 일과 같다.

이러한 시발점의 모태(母胎)가 된 곳이 바로 삼각산 호국참회도량 도선사이다. 이곳에서 처음 2006년 10월 통도사에 첫 발을 내 디딘 이래, 2,500여명으로 시작된 순례기도회는 평균 5,000여명으로 늘어나 벌써 37회를 넘기고 있으며 참가 인원만 해도 무려 2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1회 하고도 7년의 긴 세월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불교 포교의 신기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순례기도회의 업적은 한국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스리랑카, 네팔에도 결연을 맺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선묵 혜자 스님이 이러한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이끈 연유는 바로 청담 스님과의 무언(無言)의 약속 때문이다. 청담 스님이 평소 주창하신 것은 바로 한국불교 포교였다. 청담 스님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최일선에 나서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만든 대선사이다. 평소 청담 스님의 유지를 받들었던 선묵 혜자 스님은 도선사 첫 소임을 맡은 후 7관세음 33일 기도를 봉행 하던 날, 꿈속에서 도선사의 포대 화상이 모셔진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청담 스님을 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4년 7월 또 한 번의 7관세음 33일 기도를 봉행하던 중 기도 회향 당일 청담 스님 석상(石像) 뒤편 하늘에 '일심(一心)의 형상을 띤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한다. 스님에게 있어 이 형상의 의미는 다름 아닌 청담 스님과 불보살님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고. 그 후부터 스님은 모든 일을 자신 있게 추진해 나갔다. 그 가운데 시작한 것이 바로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발족이었던 것이다.

도선사 하면 청담 스님의 공덕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스님의 생애는 한국불교 근세사의 한 단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수행자였으며 결코 산 속에서만 은거하는 소극적인 수행자가 아니었다. 세상 속에서 불타의 정견(正見)을 펴기를 서원한 행동하는 수행자였다. 따라서 근세의 고승들이 그들대로의 투철한 정진을 통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면 청담 스님은 그러한 내면적 견성(見性)보다는 중생 속에서 자기의 원력을 성취함으로써 성불에 도달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선묵 혜자 스님을 보면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옳을 정도로 거침이 없고 어떤 일에도 주저하는 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회향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선사의 유래를 살펴보자. 도선사가 있는 삼각산은 예로부터 수도로 건립된 곳이며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가 전개되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호국참회기도 도량이다. 이 사찰을 최초로 창건한 개산조(開山祖)는 신라말엽의 도선 국사이다. 그는 신라의 국운이 쇠퇴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 흥덕왕 원년에 영암에서 태어났다.

스무 살에 혜철(惠哲) 대사에게 불도를 전해 듣고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한다.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어 그 후 백계산에 옥룡사(玉龍寺)를 창건했는데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이 때 스님의 명성을 들은 헌강왕은 스님을 대궐로 모셔 법문을 듣곤 했다. 스님이 입적하시자 왕은 요공 국사(了空國師)의 칭호를 내렸다. 대방중창기(大方重創記)에 따르면 불법과 천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지를 두루 답사 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수려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사찰을 건립한 뒤 신통력으로 사찰 옆에 우뚝 서있는 큰 바위를 반으로 잘라 그 한쪽 면에다 주장자로 새겼다고 한다. 불가사의 한 것은 정으로 쪼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석불전(石佛殿)이다.

그 후 조선조 광무(光武) 7년에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국가 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후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각자인 청담 대선사가 불교의 역사적 사명인 민족적인 문화과업과 불교중흥 그리고 조국통일 성취를 위하여 참회를 통한 호국을 제창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와 여러 신도들의 도움으로 호국불교의 의지가 한데 모아져 세워진 것이 오늘날의 도선사이다.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아석소조제악업 개유무시탐진치.'
내가 저 먼 과거로부터 지은 바 여러 가지 악업들은 모두가 다 저 시작도 끝도 없는 과거로부터의 탐진치 때문이라는 뜻이다. 참회라는 말은 원래 불교용어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조석으로 외우는 <천수경>에는 '참회게'가 있다. 여기에 '십악참회'가 있다.

'종신구의지소생 일체아금개참회.'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지은 허물, 내가 이제 속속들이 참회 하나이다. 불교는 참회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즉 참회란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의 '크샤마(kṣama)'를 음역한 참(懺)과 의역한 회(悔)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는 포살과 자자 의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친다는 뜻이다.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아무리 오래 동안 쌓인 죄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문득 사라지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불교의 참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회의 내용은 <천수경>에 잘 나와 있는데 모든 악업들은 '신구의' 삼업으로 생기며 이제 이 일체를 다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바로 십악참회인데 마지막으로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하고 진언을 외운다.

한국 불교 포교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며 불교운동가였던 청담 스님이 떠난 지 25년, 오늘의 한국불교는 어떠한가. 스님의 원력은 얼마나 큰 결실을 맺고 있는가. 청담 스님의 행동하는 위대한 수행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한국불교에 자양(滋養)이 되어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6

알음알이 수행은 중생의 업보

[원문]
二乘外道皆無識佛 識數脩證 墮在因果中 是衆生業報 不免生死 違背佛意 卽是謗佛衆生 殺却無罪過 經云 闡提人不生信心 殺却無罪過 若有信心 此人是佛位人 若不見性 卽不用取次 謗他良善 自無益 善惡歷然 因果分明 天堂地獄 只在眼前 愚人不信 現墮黑暗地獄中 亦不覺不知 只緣業重故 所以不信 譬如無目人 不信道有光明 縱向伊說亦不信 只緣盲故 憑何辨得日光 愚人亦復如是 見今墮畜生雜類 誕在貧窮下賤 求生不得 求死不得 雖受是苦. 直問着 亦言我今快樂 不異天堂 故知一切衆生 生處爲樂 亦不覺不知 如斯惡人 只緣業障重故.

알음알이로 닦아 증득하는 것은 인과에 떨어지는데, 이는 중생의 업보인지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라. 이런 중생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중생인지라 죽여도 죄가 없느니라. 경전에도 '천제인(闡提人)은 신심을 내지 않으니 죽여도 죄가 없다'고 하셨느니라. 만약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라.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 절대로 어진 이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스스로를 파는 것이라 이익이 없느니라.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하며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까닭에 흑암지옥에 떨어져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업장이 무거우므로 믿지 못한 까닭이니라. 소경이 해에 빛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설사 그에게 말해주더라도 믿지 않음은 눈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알아라. 일체중생은 태어난 곳을 즐거움으로 삼느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니라.


日 에도시대 '정면 달마도'(宮本武藏 作, 영청문고 소장)

[해설]
책이나 법문을 통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남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수행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득이 된 다음에 설법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나도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생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중생인지라 죽여도 죄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은 너무 심하지만 이만큼 불법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죄가 무겁다는 얘깁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을 천제인(闡提人)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불을 만나도 성불하지 못한 답니다.

'만약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라.'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발심한 그 때가 곧 깨달음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두는 그 순간이 곧 성불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염불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 절대로 어진 이를 비방하지 말지니라.'

본인이 성품을 보지 못하였다면 남을 비방해선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행한 것은 인과에 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 까닭에 흑암지옥에 떨어져서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업장이 무거우므로 믿지 못한 까닭이니라.'

생사가 없는 실상(實相) 자리를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거나 축생의 몸을 받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업이 무거워 믿지 못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설사 그에게 말해주더라도 믿지 않음은 눈이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햇빛을 알 수 있겠느냐.'

구름이 많이 끼면 태양의 빛을 볼 수 없듯이, 중생은 불성의 무지에 의해 마음이 오염이 되어 마치 장벽에 막혀 있는 것과 같아 진리를 설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중생은 업에 의해서 받은 몸이므로 축생의 몸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업력에 의해서 어떤 몸을 받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접 물어보면 '나의 지금 즐거움은 천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느니라.'

축생의 몸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 물질에 끄달려 사는 중생은 밤벌레가 화려한 불빛을 쫓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미물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는 말들을 합니다. 마음 닦는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면 축생의 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성불할 수 있다'는 말은 재가 불자들도 성품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바로 알고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좌불와를 몇 십년 하고, 오랫동안 염불하고 계율을 지켜도 성불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교전통의식 교육안내



종교는 3대 요소가 생명입니다. 첫째는 종주, 둘째는 교리, 셋째는 의식입니다.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天上天下無如佛 十方世界亦無比

우리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과 심심미묘한 법과 장엄하고 여법한 의식이 3대 요소입니다.
불자라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의식은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전통의식교육원에서는 불교전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10여년에 걸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기과정(2박 3일)으로 세속인의 임종 후 시달림에서 발인, 매장, 화장, 사십구재 의식까지,
주로 안체비에 해당하는 의식교육을 실시합니다.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교육내용**
· 안체비 : 시련, 신중작법, 시왕단(양례왕공), 대령관욕, 시식
· 사물 다루는 법 : 목탁, 요령, 태징, 북
◆ **참가자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가능
◆ **교육접수기간** : **2009년 10월 22일까지**

◆ **교육기간** : **2009년 10월 25일(음 9월 8일) ~ 27일(음 9월 10일)**
◆ **교 재 비** : 5만원 (교육비는 무료)
◆ **장 소** : 학림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62-33번지
◆ **문 의** : 062)222-4133 (모집인원 선착순 접수)

학 림 사 불교전통의식 교육원

과거의 업 풀며 새로운 업 심는 '현재'에 충실하라

대구 광덕사 주지 운성 스님



열세 살의 소년은 자신의 소원대로 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심 강한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소년은 학교보다 부처님 계시는 절이 더 좋았다. 어머니의 치마끈 붙잡고 절에 졸졸 따라다니던 예닐곱 살 때부터 절에 가면 집에 오기가 싫었다. 어린 나이에도 집에 있으면 금색을 하고 근엄하게 법당에 계신 부처님의 안부가 궁금했고, 코끝에 와 닿는 향내가 그리웠다. 열세 살이 되자,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야물어졌는지 혼자서도 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가출을 시도해 절로 가 버렸다.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소년의 가출은 며칠 만에 끝을 맺고 집으로 잡혀왔다. 두 번째로 가출을 시도해 절로 갔는데, 금방 잡혀오게 됐다. 부모님이 또 다시 가출을 할까봐 단속을 했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허술한 틈을 보아 세 번째로 가출을 단행했는데, 이번엔 가출이 아닌 출가가 됐다. 부모님도 '수행자'가 될 아들의 운명을 예감했는지, "천상 너는 스님이 될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더 이상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

소년은 열세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는데, 한 번도 속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다 나르고, 불 때어 밥하고, 도량이며 방이며 청소하는 그런 행자생활이 고달프다는 생각은커녕 신바람 나게 해내었다. 어른스님들이 어린 행자에게 "넌 아무래도 세세생생 중이었나 보다"고 한 마디씩 던졌다. 이 말도 무척 듣기 좋았다. 통도사의 월하 큰스님을 은사로 계를 수지하고 운성(雲惺)이라는 불명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던 그 날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가창댐을 따라 연이어진 산에는 쑥대머리 같은 갈대의 하얀 꽃이 가을빛을 그려내고 있다. 한낮의 태양빛이 뜨겁다 해도 한결 눅어져 그늘에 들어서면 까슬까슬한 기운이 느껴진다. 수면에 내려앉은 산 그림자는 물색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산색과 물색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에 마음을 주고 걷다보면 광덕사라는 팻말과 마주치게 된다. 만일염불기도도량 광덕사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다.

운성 스님은 어릴 때 출가했기 때문에 월하 스님으로부터 남모르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자신의 공부는 드러낼 것이 없다면서 은사 월하 스님 이야기로 이어갔다. 은사스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스님이 가시고 나면 방장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쭈었더니 "아무도 없어야" 그러시더란다. 그래도 열반하시기 전에 정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건 산 사람들 몫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일침을 놓더란다. 은사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니 참으로 혜안을 지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월하 스님은 아주 자애로운 분이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대쪽 같은 분이었어요. 종단이 분란에 휩싸였을 때 박 대통령이 종단의 분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종단의 영향력 있는 원로스님 다섯 분을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그때 종회의원이 21명이었는데 재가불자도 종회의원에 넣자는 의견을 박 대통령이 제시했을 때, 월하 스님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분질렀데요. '속인 한 사람이 스님 이십 명을 다 잡아먹어요'라는 월하 스님의 말씀에 박 대통령은 박장대소했고, 스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데요."

월하 스님은 환속한 제자까지도 챙길 정도로 정이 깊은 분이었지만, 잘못을 했을 때는 가차 없이 야단을 쳤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대중들 앞에서 야단을 치곤했는데, 운성 스님은 이것 또한 큰사랑의 표현이라 여긴단다.

"은사 스님은 생전에 불교의 인과론은 숙명론이 아니라 내일을 창조하고 오늘의 과오와 고뇌를 근원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어요.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업을 푸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 현재에 충실하라고 일렀어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과보는 어제의 행위가 원인이 됐고, 오늘 내가 짓는 행위는 내일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월하 스님의 귀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주었다.

스님은 선객이 돼 선방을 떠돌면서 공부를 하다 사고로 크게 다쳐 선방에 앉을 수가 없었다. 대중생활조차 힘들어서 작은 토굴을 마련해 홀로 수행정진했다. 은사스님은 토굴생활을 못마땅해 했고 몇 번이나 스님 곁에 와서 대중생활을 하라고 일렀다. 이즈음에는 어른스님을 좀 더 많이 모시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단다. 토굴생활은 스스로가 자신을 다잡아나가야 하기에 밤낮없이 염불수행에 매달렸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수행자로서 오롯하게 살아낼 것을 시시각각 요구했다. 고성염불로 목에서 피를 쏟을 정도로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렸다.

광덕사는 1993년 시월 초하루 날 '만일염불기도' 입제식을 올렸다. 일만일(一萬日)을 세어 본다. 이십칠 년 하고도 반년을 더 꼽아야 하는 긴긴 시간들이다. 기도를 입제한 지 십육 년이 지났으니 앞으로도 장강처럼 긴 십일 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스님은 "우주의 시간에 비한다면 또 그 동안 우리가 윤회 전생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라고 한다. 스님의 셈본과 우리의 셈본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사이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도량을 오고가기에 궁금해 여쭈었더니 절에서 키우는 아이들이라 했다. 수십 년 전부터 "내 힘에 버겁지 않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 둘 돌보기 시작했는데, 스님 손을 거쳐 간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13세에 절로 첫 가출… 세 번째 가출 출가로 이어져
아이들 돌보는 것 "하늘같은 불은에 대한 작은 회향"

"저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무리 바빠도 나 이외에는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정해놓았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외에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나 공부가 더 필요한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도장 등 취미학원과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에도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 앞서가는 아이가 되도록 원력을 세워서 키우고 있다. 스님은 말씀 끝에 "학교에 들어가는 돈은 돈도 아니데요. 저도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라면서 웃었다. 아이들이 원하면 대학교도 다 시켜주고 있다고 하니 스님의 원력 참으로 크다. 그래서 주위에서 스님과 인연 맺은 아이들은 '복이 많다'고 한단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몰래 데려가서는 망쳐놓는 경우'라고 한다. 아이들을 거두는 것은 '하늘같은 불은(佛恩)에 대한 작은 회향'이라면서 이야기를 자꾸만 염불수행으로 돌렸다.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인지 아니면 죽기 전에 극락세계를 이루어야 하는지' 여쭈었다. 스님은 "신심이 부족한 사람은 극락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데,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며 <아미타경(阿彌陀經)>은 누가 물어서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임을 강조했다. <아미타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억 불토를 지나가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명호는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극락을 의심하면 안 되지요. 정토불교는 수행과 더불어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의 아미타불이 한없이 밝고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의 불성과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만 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정토에 가려면 과학적으로 보면 현재의 인공위성으로 가도 1조억 년이 걸려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은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데려가지 않고는 도저히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 가운데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이 있어요. 임종 시에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아파서 '아'소리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무아미타불'이 나오겠어요? 오랜 세월동안 염불 수행이 습성이 돼있는 사람이라면 기력이 떨어져 소리를 낼 수 없다하더라도 생각이 살아있다면 염불을 할 수 있어요. 꾸준히 수행한 사람이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경전에 선연하게 기록된 아미타 세계를 의심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못내 서운하다는 듯 '전백장 후백장'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백장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노인 한 사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뒷자리에서 법문을 듣고는 대중을 따라 물러가곤 하였다. 어느 날은 법문을 마쳤는데도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기에 백장 스님이 "어디에서 온 누구신지?"하고 물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어라."

"어느 날 제자가 '수행이 뛰어난 자도 인과(因果)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과에 걸리지 않는다(無碍因果)'고 답했습니다. 그 인과로 여우 몸을 받게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부디 한 말씀해 주셔서 여우 몸을 벗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좌가 물은 것처럼 그대로 물어라."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자 백장 스님은 벼락 치는 듯 큰 소리로 "인과에 어둡지 않도다(不昧因果)"하고 답했다. 노인은 이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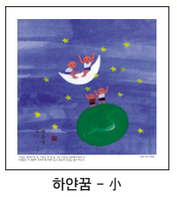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생 해탈’ 원력 있어야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절을 올리면서 “저는 이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부탁하건대 뒷산의 여우굴을 찾아 승려처럼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백장 스님은 대중을 이끌고 산 뒤쪽의 동굴 속에서 죽은 여우를 한 마리 끄집어내어 승가의 법도에 따라 장례식을 치렀다.

“이것은 선가(禪家)에서는 ‘전백장 후백장’이라는 하나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무애(無碍)나 불매(不昧)나 뜻이 다르지 않는데도 전백장 스님이 자기의 소견대로 함부로 말한 인과로 이백생 동안 여우 몸 받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님들도 법문을 할 때 자기 소견으로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도 삿된 일이라 했다. 인용을 하더라도 방편은 방편일 뿐 부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극락세계가 어디 있나? 하면서 ‘극락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망언이라. 뼈깎는 수행으로 극락이 내 마음 속에 있을 정도로 견성을 이루었을 때 극락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함부로 극락은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두가 염념상속(念念相續)해야 하듯이 염불수행 또한 망념(妄念)이 섞이지 않도록 일심으로 염념상속해야 염불삼매에 이를 수 있는 것이기에 염불선도 결코 쉽지 않단다. 일체중생 모두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업이 두텁고. 번뇌에 휩싸여 있어 수행이 수순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선에는 염불선과 화두선이 있는데, 어느 것을 하더라도 견성하면 되는 것이지 더 수승하다고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단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원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자는 성불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팔만장경을 다 외워도 금생에 성취 못하면 다 외도(外道)라. 왜냐하면 죽어서 다음 생에 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어디 태어날지 모르는데, 다음 생에 깨닫겠다고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말고 사람 몸 받고 불법을 만난 금생에 정진해 해탈해야 합니다.

극락세계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는데 극락국토에서는 하품하생에서 중품중생으로 올라가려면 2000억년을 닦아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바세계에서는 잘만 닦으면 일 년만 해도, 삼 년 만해도 중품중생으로 바로 올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 해결하겠어요? 아미타부처님의 48대원이 염불수행을 발원한 중생들을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불행자는 꼭 아미타부처님에게 ‘명을 마치면 나를 극락세계로 데려가 달라’고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주에 무수한 부처들이 있는데 꼭 아미타불을 불러야 하는 것은 “아미타불의 근본 서원이 가장 강력하고 그 서원은 오탁악세에 가장 알맞기 때문”이며 또 “아마타불의 공덕과 지혜, 신통력과 수행력, 중생을 제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무한하기”때문이란다.

광덕사를 ‘만일염불수행도량’으로 만든 연유를 알 것 같다. 스님의 정토관은 확고하다. 스님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님의 치열한 수행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평생을 염불수행으로 일관해 온 중국의 우익 스님은 결가부좌하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든 채로 입적했다고 하는데, 운성 스님의 원력도 그러하다.

산문을 나서니 노을이 내려앉은 호수와 나무들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마치 극락세계라도 갔다 온 듯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낯설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운성 스님은 …

1941년 경남 합천출생. 1956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0년 통도사 강원에서 사집 수료. 제방에서 6하안거 성만. 1988년 사회복지법인 화성양로원 이사장, 1992년 (사)대구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부원장, 1998년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회장, 1998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 역임. 지금은 소백산 장안사 회주이며, 대구 광덕사에 주석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4. 한국현대불교의 중흥조 운허 대종사

불교를 중흥한다는 것은 절을 짓고, 종단을 만들고, 종도들을 양성하는 데도 있지만 불조(佛祖)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법보(法寶)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의 한문을 대본으로 한 경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학자나 스님, 전문적인 불교신도가 아니면 가히 접할 수 없는 난관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번역해 보기도 하였지만, 한계에 부딪쳐 20여종 번역에 로 완성한 <금강경> 원고 팔천매를 통째 내 주시면서, “필요한 대로 쓰시고 보내주십시오” 하니 “너무 고마워 할 말이 없다” 하고 책이 나온 뒤에는 불교사전 두 권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감사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뒤 불교통신대학 교재를 편찬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더니,


동국대 역경원을 설립한 운허 스님(가운데)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나는 가족이 있거든. 그런데 비구승 측에 있다 보니까 자식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이 좋긴 좋으나 나는 거짓된 중노릇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특히 스님은 “나 같은 옹색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법을 핑계하여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셨다.

그래서 기산 스님은 “운허 스님 같은 양심가가 없어. 오늘 대처승이 내일 비구가 되어서 남의 절 빼앗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동국대 역경원 설립… 불경 번역 · 사전 편찬에 앞장서

불과하였고, 해방 후 만(卍)상회를 중심으로 몇몇 서점과 사찰에서 경전을 번역한다고 하였지만, 모두가 하늘 가리는 부채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한학을 전공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독립운동에 앞장 서 만주 땅에 갔던 운허용하(耘虛龍夏, 1892~1980) 스님께서 불가에 입산한 뒤 교육과 역경 두 곳에 원력을 세워 광동 중 · 고등학교를 세우고, 한편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을 설립하여 거국적인 불사를 실행함으로써 명자 그대로 8만 대장경이 우리 눈앞에 한글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이 일이야 말로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쾌사(快事)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운허 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불교사전을 편찬하고 계실 때, 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성북동 청룡암을 찾았을 때이다. 기산 노사께서는 필생의 작업으로 “다른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으면 나도 참석하겠다” 하여 1972년 상락향 수도원에서 김동화 박사님과 김대은 스님을 함께 모시고 ‘초 · 중 · 고 · 대학’의 20여 권의 통신교재를 편찬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일이 있다.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전통교육도 무시할 수 없으니 두 가지를 병행해서 교재를 편하되, 초 · 중과(1 · 2학기)에서 불교신자의 자질을 맞추게 하고, 고등과 대학과(3 · 4하기)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통신대학 교재가 스님의 말씀대로 편찬되었다.

그 뒤로 김교남 선생(광동학교 교장)님과 함께 한번 오시고, 또 한번은 그냥 혼자 오셔서 상락정에서 두어 시간 홀로 앉아 계시다가 점심공양을 하셨는데, 그 때 나직한 말씀으로 “부끄러운 중노릇을 하고 있다” 피력했다.

라고 하셨다. 실로 스님 회갑 때 스스로 지은 게송을 보면 스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빈 털털이 처량하게 안겨드는 나그네에게/ 조촐한 환갑상을 차려주니 그래 고맙구려/ 충성을 다하던 처음의 뜻, 꿈결로 돌아갔는데/ 부처를 섬기려던 반평생도 헛 이름만 빚졌네/ 아내와 유명을 달리한 일 못내 가슴 아픈데/ 전쟁터에 죽어간 아들 소식 가장 마음에 걸리는구려/ 지나온 60년 일을 돌이켜 보노라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나도 진정 모르겠구려.”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생각했지만 특히,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후락씨가 특사로 북한에 갔을 때 거의 철야정진 하시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기원하셨으니 말이다.

스위스 기술로 만든-초절전형
12㎡(3.5평) 실내 전체를 22℃까지… 전기료 1시간 35원
505W 낮은 전력으로
New Convection Technology
이코노 히터 2
초절전 전기판넬히터
난방효과 더욱 강력해진
동절기 근무시간 이후 대체난방 해결사
(33㎡(10평) 10시간 사용 전기료 한달- 35,000원)
(주택의 경우 누진세 적용되므로 별도)
난방비 최저 50% 절약하고, 탄소마일리지 받자
1. 사무실, 오피스텔, 병원, 연구실, 도서실, 휴게실, 기도실, 지하실
친환경적 자연 원리 이용-난방비 50% 이상 절감
2. 시간외 근무, 주말 근무시 난방이 않되는 업무용 빌딩의 대체 난방
화재위험 없고, 별도 공간차지 하지 않는 초절전형
3. 외풍, 건물외벽방, 발코니 난방해결
전체 보일러 온도 높이지 않고, 추운 사각지역 해결
● 벽에 부착, 공간을 차지 하지 않음.
●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냄새없고, 소음없음.
● 산소소모 하지않아 24시간 가동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음
● 알르레기 유발할 먼지을 일으키지 않음.
● 건조하지 않아 눈이나 입술이 마르지 않음.
● 유지관리비 없음, 디자인이 우아함.
초속 0.4m@38℃
대기열
전도열 90%
복사에너지 10%
3m
4m
- 자연의 원리에 따른 친환경적 -
밑 바닥에 있는 찬 공기가 히터쪽으로 모여서 따듯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 올라가고, 자연 순환하게 하므로 실내 전체가 골고루 따뜻하여 집니다.
전자파차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번호 : SY07003-8001
제조물책임배상 보험 : 1억원 가입.
NAVER 검색창에 주안상사 를 쳐보세요 www.juanscorp.net
ECONO-HEAT THE WARMTH OF A HOME
(주) 주안상사 JUANS CORPORATION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69-1번지
대리점모집 및 문의
070-7124-9301, 9303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8>

신자유 · 글로벌 자본주의도 궤도수정 불가피

소득격차 · 지구환경파괴 등을 고려하는 경제성장 필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의 반세기를 한마디로 '경제성장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21세기는 바로 '지구 환경의 시대'로 부르고 싶다. 그 지구환경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황사와 산성비, 사막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인류의 기초적인 생존조건인 지구환경이 광범위하게 파괴되고 있어서 그러한 환경 파괴에 즉각 쐐기를 박지 않으면, '우주선 지구호' 그 자체의 존속이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둘째, 지구환경의 파괴는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시대의 태내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시대를 주도해 온 성장지상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운영의 기본전략이 불가결하다. 그것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환경정상회의가 채택한 키워드인 '지속(지탱)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장래의 지구환경을 현재 보다 악화시키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하며, 그 필요조건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자 한다.

⑴ 자연환경이 본래 갖고 있는 스스로의 재생 · 정화 · 처리능력을 유지하는 것.

⑵ 자정능력이 유지 가능한 범위내로 생산 · 소비량을 억제하는 것.

⑶ 자원은 보전과 절약 곧 재생산 기술자원(어류, 삼림 등의 동식물자원)은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고갈성자원(석유,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은 절약할 것, 또는 재생기술자원의 이용으로 전환하는 것.

⑷ 자원의 재생활용(recycle)과 재이용(reuse)을 촉진하는 것.

셋째로 지구환경시대란, 근대 공업문명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과잉폐기라는 구조에 대신하는 새로운 원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다.

자원에너지를 낭비하고 거대한 산과 같이 쌓인 폐기물을 토해 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근대 공업문명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기에 이른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근대공업문명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밝은 빛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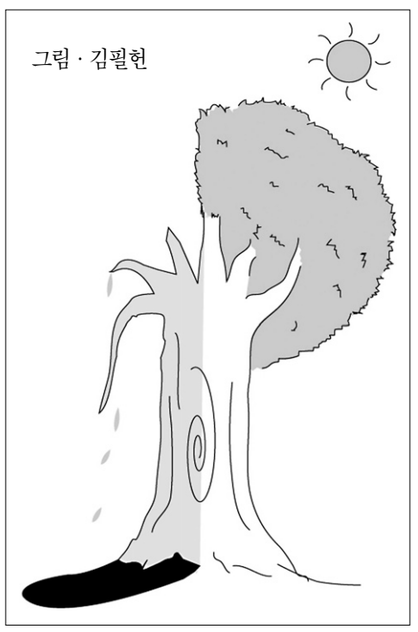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의 근대경제학에서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 경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적절한'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형평이 달성된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 · 격차나 지구환경의 파괴는 정치 행정이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근본교의다.

이 교의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줄여서 자유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경제의 파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시장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 중국까지도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전개해온 것도 그와 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원리주의의 자유시장 방임론이 세계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적어도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한 지금,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시장경제가 아무리 세계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해도 사회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안이한 주장은 받아들여 질 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방임상태의 시장원리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 즉, 경기변동의 불안정화, 소득격차의 확대, 지구환경의 파괴 등에 대해서 너무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에 있다.


그림 · 김필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주의자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부(國富)의 파이가 커지면, 그 혜택이 세계 전체시장으로 파급되어 이윽고 각 지역의 누구나 풍요로워진다고 주장한다.

격차 확대나 금융위기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시장의 순환과정에서 어쩌다 일어난 것이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현상'일 뿐이며, 재정투자 등 케인즈식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면 민주주의와 시장의 자동조정능력에 의해 경제침체의 부작용이 시정되고, 지구촌 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봄이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浮論)과 같다. 그는 1978년 이후 사회주의 중국대륙을 개혁 · 개방하면서 상하이(上海), 우한(武漢),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일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그 뒤에 발전시킨다. 먼저 발전한 지역이 늦어진 지역을 이끌어서 최후에는 모두가 풍요롭게 된다. 먼저 부유해진 지역이 많은 세금을 지불하여 빈곤지역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이 개혁 개방 노선은 이후 30년간 중국경제발전을 가속화한 원동력이 되었지만, 주지하다시피 중국 경제성장의 한편에선 소득 불평등의 확대나 환경파괴와 공해문제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경제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대로 돌진한다면, 지구촌에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거의 싹쓸이 하면서 지역 · 계층 간, 소수 민족 간 소득 격차와 환경오염은 중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발달한 동부 연안 옆으로는 1인당 소득이 1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빈곤지역이 태반인 중서부지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이 붕괴되거나 정치 체제적 혼란과 인민의 폭등이 일어나거나 해서 중국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자유방임의 시장원리주의나 신자유주의 혹은 글로벌자본주의도 사회주의 중국과 같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발 금융시장 파탄이 먼저 닥쳤고 이제 그 수습의 방법을 두고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저평가된 인민 위안(元)화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고,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주의 노선을 지구촌에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향후 원유가격의 재상승, 공해의 확산마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고도성장은 온갖 장밋빛 전망을 낳고 있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나 글로벌 자본주의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쩔수 없이 궤도수정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⑱ 프로정신

허달의 불교와 코칭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돌아 보자"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아침 신문에는 16강의 관문을 당당히 실력으로 통과한 이집트 U-20 청소년 월드컵의 '홍명보 리더십' 기사가 실렸다. 어린 선수들과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에 대한 축구계의 우려를 '신뢰와 존중의 리더십'으로 말끔히 씻어내고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칭찬 기사였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말을 인용, "지금부터의 매 경기가 선수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들의 감독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기술한 대목의 진정성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열흘쯤 지난 일이지만, 조선일보 9월 24일자에는 TV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마에스트로 강 역을 맡아 열연했던 탤런트 김명민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다. 그가 새로 맡은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의 루게릭 환자 역을 연기하기 위해 식사 조절만으로 체중 20 ㎏을 감량했다는 '지독한 프로정신'에 대한 기사였다. 어째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함께 하며 체중 감량을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었다. 루게릭 환자에게는 없어야 할 근육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이다.

만난 것은 늦었으나, 내가 한문과 서예를 배우던 연하의 스승이자 지기(知己)이며, 또한 술 벗으로 현천(玄川)이라는 서예가이자 한학자, 시조시인이 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뇌일혈로 쓰러지더니, 뇌수술을 받고서야 깨어나 목숨은 건졌으나 오른쪽 거동이 불편한 몸이 되었다. 그 역경을 이기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 왼손 서예를 시작하더니 마침내 회갑전을 열었다. 거기 왼손 글씨로 써 걸었던 뜻 깊은 자작시를 우리 말로 번역해 소개하면, 이러하다.

"백발의 인생은 늙어가지만/ 항심(恒心)은 변치 않는 뜻이 있다오/ 시서(詩書)는 평소에 좋아하였고/ 약주(藥酒)는 한 잔으로 가볍게 든다오/ 또 산장에 봄날이 좋아/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땅 가득 수풀 꽃이 떨어지는데/ 금낭에는 스스로 얻은 시 한 편."

현천이 병 후에 끈기와 인내로 각고(刻苦)하여 터득한 내려놓음(下心), 이것 역시 목숨을 건 불굴의 프로정신으로 가슴을 울린다.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뒤 '히딩크 리더십'을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세계적 코치의 남다른 프로정신을 원칙과 전략 양 측면에서 접근하여 하이 파이브(HI-FIVE)라고 재미있게 영어표현의 머리글자를 따서, 요약한 적이 있다.

원칙(HI): 꿋꿋함과 소신(Hardiness), 공정성 (Impartiality)
전략(FIVE): 기본의 강조(Fundamentals), 혁신추구(Innovation), 가치공유(Value Sharing), 전문기술 활용(Expertise)

특히,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꿔 선수들이 두뇌를 활용, 생각하는 축구가 가능토록 지도함으로써 그 수준을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며, 칭찬과 인정을 통해 선수들 내부에 잠재된 강점을 찾아내 이를 최대한 신장시켰다. 그 뿐 아니라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팀워크를 이루게 한 것은 히딩크 감독이 코칭 리더십의 진수를 드러낸 것이어서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연재 컬럼의 글을 읽은 어느 동료 코치 한 분이 고마운 피드백을 해 주었다.

"허 코치의 글 내용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코치의 수동적 역할만을 조명하는 데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요? 코치가 고객에 미치는 능동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듣고 보니 옳은 말이어서, '프로정신'을 빌어 그 답에 대신하려고 코치의 마음가짐 몇 가지 예를 위에 들어보았다.

잘 알려진 증자(曾子)의 글 "하루에 자신을 세 번 돌아다 본다(吾日三省吾身)"를 코치의 좌우명으로 인용해 보자.

마지막 구절 '전불습호(傳不習乎)'는 "익히지 않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을 뒤돌아 반성한다는 것이니, 이것 역시 요즘 표현으로라면 철저한 프로정신을 나타낸 것이 아닐는지.

■ 한국코칭센터 고문

2009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8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8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1년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시험일시
· 2009년 12월 6일(일) 오후 1시 ~ 오후 6시
(필기시험 및 면접)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9년 10월 19일(월) ~ 11월 14일(토)

응시장소
· 박문각행정고시학원
(서울 종로구 조계사입구, 제일은행 본점 뒷편)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 4매(반명함판)

응 시 료
· 응시료 60,000원
(국민은행 023501-04-144340 예금주: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접수방법
· 학교별 일괄접수

접수유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및 면접 →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 2010년 1월 9일(개별 및 학교별 통지)

문 의
· 연합회 사무국 TEL 02)734-9595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 국 불 교 교 육 단 체 연 합 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4-9595 FAX 02)732-1207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목마름은 물로 끌 수 있지만 마음 탈 땐 무엇으로 끌 수 있나?





그림 · 최문정

대연거사는 앞에 녹차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만큼 성법스님의 문수암 얘기에 빠져 있다가 겨우 한 마디를 했다.

"혜암 큰스님께서는 양말을 선물 받고 좋아하시던가요."

"칭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미소를 지으시며 담담하게 받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문수암에서의 은사스님과 이틀 동안이 가장 추억에 남습니다."

대연거사가 더 물을 말이 없어 잠시 침묵하자, 성법스님이 시계를 보면서 양해를 구했다.

"점심 공양은 호국사에서 하시지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지금 시내로 나가봐야겠습니다. 공양간은 이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절을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호국사에서 하루 머물러도 좋고요."

"아닙니다. 오늘 해인사로 가봐야 합니다."

대연거사는 해인사로 가 원각스님과 함께 중봉암을 찾아보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다. 혜암스님이 48세 때 정진하였던 해인사 위쪽에 자리했던 토굴이 바로 중봉암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중봉암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했다. 1970년대 들어서 해인사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봉암을 철거했던 것이다. 가야산 산길에 익숙한 사하촌의 약초꾼들마저 하나 둘 죽고, 중봉암 터가 울창한 숲에 가려져 그곳에서 실제로 정진하였던 원각스님 같은 수좌들도 위치만 대충 짐작하고 있을 뿐이었다.

대연거사는 호국사를 서둘러 떠나지는 않았다. 점심공양을 하면서 몽땅 틀니를 한 노스님을 만나 뜻밖에도 청담스님의 얘기를 들었다. 노스님은 점심공양 후 진주성을 산책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고백했다.

"청담스님의 속가 부인이 우리 고향 분이었어. 부인이 살아계신다면 올해로 94세쯤 되실 거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성은 차씨였어."

노스님은 청담스님과 호국사와의 인연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노스님이 포행삼아 촉석루 쪽으로 걸으며 말했다. 노스님은 틀니가 문제가 있는지 말할 때마다 발음이 샜다.

"일제시대, 그러니까 청담스님께서 진주농고를 다녔지. 스님께서 처음으로 발심한 절이 이 호국사여."

"그때 호국사에는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까."

"금강산 유점사에서 사셨던 포명(圃明)선사가 계셨지."

노스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입맛을 다시며 얘기했다. 진주농고 학생 청담이 호국사에 들러 샘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다. 포명선사가 지나가는 말로 "목마름이야 물로 다스릴 수 있지만 마음이 탈 때는 무엇으로 끌 수 있겠느냐"라고 던졌는데, 청담은 그 말에 걸려들었다.

포명선사가 던진 한 마디는 청담을 발심케 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청담은 그 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마침, 일본말을 사용해야 하고 일본교복을 입어야 하는 학교생활도, 궁핍한 가정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한 때였다. 진주 시내는 밤이 되면 살벌한 공기가 감돌기도 했다. 실제로 청담도 방과 후에 '일본말 안 쓰기' '일본교복 안 입기' 등의 민족의식운동을 펴기도 했다.

그래도 학생 청담의 발걸음은 늘 절로 향했다. 자신도 운수납자처럼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더구나 친구 박생광은 1학년 때 용기를 내어 호국사로 입산까지 한 상태였다. 청담도 입산 출가하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에게 슬쩍 운을 뗐다. 그날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2대독자인 청담이 출가하겠다고 하자,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한 것처럼 눈물을 훔쳤다.

결국 청담은 세속에 묶어두려는 어머니의 강권으로 19세 처녀 차점이와 강제결혼을 했다. 그러나 청담은 진주농고를 졸업한 뒤, 1926년에 고성 옥천사를 찾아가 이듬해 5월 한영스님을 은사로 출가해버렸다. 이후 청담은 한영스님을 따라서 전라도 장성 백양사로 가 무섭게 정진했다. 해인사로 가서도 목숨을 걸고 고행했다. 청담은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의 절에서 초청법사로 부를 만큼 유명해졌다. 1930년에 진주의 한 절에서도 그를 불렀다. 낙성법회에 법사로 초대를 받아 갔다. 그때 속가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청담에게 매달렸다.

"시님, 가문 이을 씨앗 하나만 심어놓고 가이소."

청담은 어머니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속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냈다.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지옥엔들 가지 못하랴! 하는 마음으로 속가를 들렀던 것이다. 그러나 수행자로서는 파계가 분명했다. 청담은 죄업을 씻기 위해 기약 없는 참회와 인욕수행을 했다. 덕숭산 정혜사, 오대산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묘향산 보현사를 거쳐 수월선사를 찾아 북간도까지 올라가 수행했다. '눈 위에 피 묻은 발자국이 있으면 청담스님의 것'이라고 수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때도 그 무렵이었다. 마침내 청담은 35세에 견성의 노래를 불렀다.

모든 부처와 조사는 어리석기 그지없어
어찌 현학의 이치를 깨우쳤으랴.
만약 누가 나에게 한 소식 한 바를 묻는다면
길가에 서 있는 고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하리라.

대연거사는 노스님을 따라 촉석루까지 나갔다가 다시 호국사로 돌아왔다. 촉석루에는 남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서너 명 있을 뿐 진주성 전투의 비장한 그림자는 흔적도 없었다. 호국사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노스님이 대연거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청담스님이 속가 부인인 차씨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어. 말씀이 절절하여 내 바랑에 담고 다니지."

"진본입니까."

"영인본이야. 진본이면 어떻고 사본이면 어때. 절절한 내용이 중요하지."

대연거사는 노스님에게 편지를 받아 읽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아내를 불문으로 인도하려는 청담스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 동안 염불공부 잘하셔서 죽을 때에 귀신들에게 끌려서 삼악도에 가지 아니하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회상으로 가실 자신이 섰습니까. 모진 병 앓고 똥이나 싸고 정신없이 잡귀신들에게 끌려가서 무주고혼이 되어서 밤낮으로 울고 천만 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 불쌍한 도가비 귀신이나 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늙어서 서산에 걸린 해와 같이 금방 쑥 넘어가게 될 형편이 아닙니까. 살림걱정, 아이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다 해봐야 보살에게는 쓸데없는 헛걱정이오. 죄업만 두터워질 뿐이니 다 제쳐놓고 염불공부나 부지런히 하시오. 앞날이 급하지 않습니까.

내나 보살이나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이 다 죽어서 업을 따라서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부디 쓸데없는 망상은 다 버리시고 염불만 부지런히 하셔야지요. 곧 떠나게 될 인간들이 제 늙은 줄 모르고 망상만 피우고 업만 지으면 만겁의 고생을 어찌 다 감당할 것이오. 극락세계만 가면 우리가 만날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 급합니다. 부탁입니다. 절하고 빕니다. 늙은 중 합장>

"스님께서는 왜 청담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다닙니까."

"청담스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보았어. 하지만 이보다 더 곡진한 청담스님의 마음을 본 적이 없지. 옛 아내에게 죄업 씻고 극락에서 만나자고 비는 편지가 아닌가. 아내의 근기를 알기에 나무아미타불을 외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청담스님의 보살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오래 전에 돌아가셨지. 속가 친구에게 들었어."

대연거사는 갑자기 노스님의 과거가 궁금했다.

"스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요."

"상주에서 어린 나이에 한약방 했지. 해방 되던 해에 출가했어."

"계기가 있었습니까."

> "극락만가면 만날 사람 다 만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나 깨나 나무아미타불"

노스님이 틀니가 빠질 만큼 소리 내어 웃었다.

"허허허."

"스님, 왜 웃으십니까."

"수행을 하면 다 알 수 있어. 깨친 수행자는 훤히 알고 있으니 물을 것이 없어. 묻는 것이 많은 걸 보니 많이 어리석구먼."

그래도 대연거사는 노스님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청담스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알고 싶다면 다 얘기해 주지."

1943년 초파일에 청담스님이 속리산 복천암에서 상주경찰서로 연행된 지 한 달 후였다. 기미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청담스님이 수월스님을 친견하러 북간도로 간 적이 있는데, 일본형사들은 청담스님이 독립지사를 만나지 않았나 하고 스님의 북간도행을 의심했다. 상주경찰서로 끌려간 청담스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의 후유증은 오래갔다. 그러나 속가 부인인 차씨의 정성스런 병구완으로 청담스님은 차츰 기력을 회복했다.

"그때 내가 청담스님을 진맥하고 약을 지었지. 차씨 부인과는 고향이 같아. 게다가 나는 청담스님의 인품에 반해 약값을 받지 않았어."

"그런 인연으로 청담스님의 제자가 되었군요."

"그때는 청담스님께서 상좌를 받지 않았어. 입산출가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반대를 했지. 결혼한 아내가 있다고 하니까 아내를 부처님처럼 받들고 살라고 했어."

"당시 태고종 스님들은 취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출가란 온몸으로 버리는 것이야. 남김 없이 버리는 것이 출가야. 청담스님께서는 반대를 하시느라 방편으로 말씀했던 거지."

그래서 노스님은 꾀를 냈다며 또 웃었다.

"허허허. 청담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걸망 속에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를 넣고 입산 출가했지. 어느 날이던가, 그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태워버렸어."

"청담스님께서 왜 출가를 반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누라가 불쌍해서 그랬겠지. 청담스님도 속가 부인 때문에 인간적으로 괴로웠을 거야. 아마도 그래서 반대하셨겠지."

대연거사는 노스님이 청담스님의 편지를 바랑에 넣고 다니는 까닭을 어렴풋이 이해했다. 자신의 속가 부인도 사랑했지만, 결국 한약방을 하던 노스님은 출가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바랑에 넣고 다니던 속가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를 태워버린 것을 두고 짐작해 보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노스님이 한 소식을 했음이 분명했다. 대연거사는 노스님에게 삼배를 하고 헤어졌다. 〈계속〉



화제의 불화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 또는 지물을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기도속에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날 것이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 축원 불공 마친 비방



필승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
필승 승진을 기원하는 선물!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적중하는 구슬, 승리하는 구슬, 권세를 잡는구슬, 명예를 얻는 구슬, 원하는것이 이루어지는 비방의 구슬로 불경에 나온다. 또한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 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누구와 경쟁해도 승리하며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도 마찬가지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반침도 행운을 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합격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보궁여의주를 받으면 소원기도한다음 수험생 책상위에 올려놓고 시험당일 수험생가방에 넣고 시험장에 가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95,000원(사찰스님 20%할인)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필승 합격을 기원합니다.
대입수험생, 현재 초중고등학생, 승진준비생,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생, 사법행정고시 준비생, 각종자격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각종 스포츠 경기 선수 등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운전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사찰스님 30%할인)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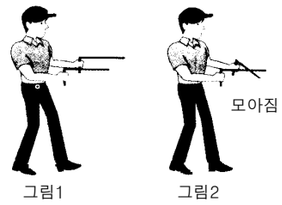


그림1 그림2

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 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은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도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Set 가격 2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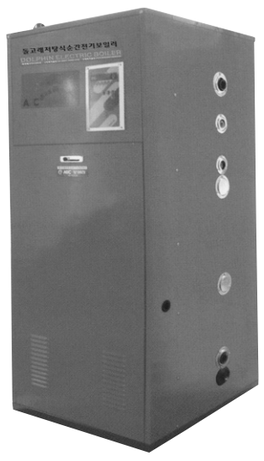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㊽ 밥은 봄바람: 채식당 기행-부채도사 편<3>

성문과 스승의 혼연일치, '국밥집 법문'

대학에서 티베트 불교를 가르치는 부채도사님의 수업 시간은 학생들 반이 청강생이다. 삶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업이기에 일명 '노땅' 청강생들의 열의는 뜨겁다. 특히 한씨 아줌마와 나씨 아줌마의 눈은 한밤중에 깨어있는 올빼미마냥 또록또록하다. 하나라도 가르치려는 선생님과 하나라도 알아먹기 위해 애쓰는 두 학생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혼연일치'라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실감난다.

예전 같으면 그림자도 밟기 어려운 스승이라,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마음에 수업만 끝나면 이래저래 눈치만 살피던 차에, 오늘 두 아줌마는 '다부지게' 마음을 먹었다. 법을 만난 인연으로 보름의 달처럼 휘영청 빛나는 얼굴이 인상 깊어 그 속내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나는 오지랖이 발동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수님, 여기 보살님들이 공양대접을 하고 싶다네요"라며 말을 대신 건넸다. 때론 주체 못할 오지랖 덕에 식복도 따르는지라, 학교 인근에 소문난 굴국밥집을 동행하게 됐다.

"지는 너무 감사한기라예. 정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거든예. 그런데 수업시간이 와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마냥 듣고 싶은데 어느새 끝나는기라예."

"맞아예. 일주일이 참말로 기다려지고 이렇게 불법을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기라예…."

국밥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부터 시작된 두 아줌마의 살가운 감회로 차 안은 들썩인다.

부채도사님과 두 아줌마의 남다른 감회가 사투리의 정감어린 리듬을 타고 흘러나오는 가운데 도착한 곳은 '강변 굴국밥'(054-775-0082)이라는 집이었다. 굴국밥 전문점에 왔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매생이굴국밥을 주문했다.



정법에 대한 뜨거운 열의로 수업을 듣는 한씨 아줌마와 나씨 아줌마.

"어려운 얘기도 어찌 그래 쉽고 재밌게 해주시는지… 그런데 들을 때는 알만해서 고개를 끄떡이는데 돌아서면 바로 이게 뭔 소리인가 싶고 다시 도루묵인기라예."

나씨 아줌마가 남다른 감회를 털어놓는 사이, 상위에는 국밥이 뚝배기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 이야기의 흥을 더욱 돋운다.

"스승의 말을 듣고 공부하는 성문들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듣고 또 들으면서 공부하고 복력을 쌓아가야 해요. 그래야 공부도 깊이 할 수 있으니, 세상과 따뜻함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공부한 것을 하나씩 소화해가며 복력을 쌓아보세요."

"그러니까 짠밥이 쌓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매생이굴국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참말로 시원하고 맛있네예."

홀로 길을 가는 독각과 달리 성문에게 스승의 존재란 어두운 길을 가는 등불과도 같으니, 하루하루 정법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온 나씨 아줌마나 새벽 두시까지 불을 밝히고 경전공부를 한다는 한씨 아줌마나 그들이 정한 스승의 말 한 마디는 그 무게가 천금과도 같다. 그러한 열성 제자들을 위해 부채도사님은 국밥도 먹는 둥 마는 둥하며 설명을 보탠다.

"스승으로서의 자격됨이 있는지 12년을 지켜보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도 신심만으로 스승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황금을 잘라보고 찢어봐 황금인 줄 알아보듯 내 말도 절대로 그대로 믿거나 존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야 스스로 보살이 되어 세상을 홀로 걷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깨어 하나의 현상도 어떤 조건과 원인으로 일어나는지 바라보는 지혜로 공부할 것을 강조한 이른바 '국밥집 법문'을 마무리되어갈 즈음, 뚝배기의 국밥도 마음속까지 다부닐게 흘러들어 따끈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가을햇살 아래 반짝이는 형상강의 줄기가 창밖으로 유유히 흘러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에, 마지막 국밥 한술까지 알뜰하게 떠 넣으며 두 노땅 학생은 그렇게 성문의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⑦ 무릎관절염

'건강한 무릎' 위한 6가지 생활습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0~80대 남녀가 받은 수술 중 가장 많은 수술이 슬관절전치환술이었다. 슬관절전치환은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시술이다.

무릎의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뼈와 뼈 사이가 부딪치지 않도록 쿠션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골부분이 점차 손실되면 뼈끼리 부딪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아픈 정도가 심하지 않고 많이 걸으면 시큰거린다. 무릎 안쪽이 주로 아프고 앞쪽이 아프기도 하다. 4, 50대가 되면서 특별한 일 없이 무릎이 아프고, 붓고, 손으로 만질 때 무릎이 커져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무릎관절염을 역절풍(歷節風)이라고 한다.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면 자신의 무릎이 건강한지 체크해보자.

※무릎을 굽히기가 불편하다.
※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 계단을 내려가거나, 내리막길을 걸을 때 통증이 더 심하다.
※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
※ 무릎이 자주 붓고 아프다.
※ 무릎의 통증이 하루 이상 지속된다.
※ 다리가 점점 O다리가 되어간다.

이 중에 해당하는 증상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무릎관절염을 진찰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무릎관절염은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다.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수술 후의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수술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운 증상이 무릎관절염이다. 필자는 무릎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봉독약침 치료와 아교위주의 처방을 주로 사용한다.

봉독약침요법은 꿀벌에 전자충격을 줘서 봉독을 뽑아낸 뒤 정제시킨 엑기스를 경혈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약침요법이다. 벌침은 예로부터 신경통, 관절염의 특효로 고대 이집트의 의약서에도 치료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으며, 히포크라테스도 '봉독은 신비한 약'이라고 했다.

중국 산동성에서 유명한 아교는 당나귀의 가죽을 아홉 번 끓이고 식히는 과정에서 나오는 교원질이다. 무릎의 연골을 강화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요즘에는 양방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피알피프롤로 치료법이 생겼다. 피알피프롤로 치료는 혈액 중 치유를 담당하는 성장인자를 분리하여 농축하고 무릎인대에 주사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방치료든, 한방치료든 최대한 후회없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에서 스님과 불교신자들을 치료하다보면 108배나 삼천배를 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릎에 좋은 몇가지 생활습관을 이야기해준다.

〈 필자가 선정한 무릎이 좋아지는 생활습관 〉

1. 108배를 하고 난후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무릎 주변의 경혈을 지압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2. 걸을 때는 턱을 들고 걸어야 한다. 턱을 숙이고 걸으면 무게중심이 무릎쪽으로 쏠리게 되어 무릎의 노화를 재촉한다. 턱을 들고 걸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무게가 전신으로 퍼져서 풀린다.

3. 방바닥에서 좌식생활보다 좌탁생활을 하는 것이 무릎과 척추 건강에 좋다. 나물을 다듬는 것도 방바닥에서 하지 말고 식탁 위에서 하자. 허리를 웅크리고 무게가 하체로 쏠릴수록 무릎의 노화는 진행된다.

4. 무릎에 좋은 한방건강차를 마시자. 우슬이나 두충차를 하루 다섯잔 이상 마시면 크게 도움이 된다.

5. 무릎에 좋은 비타민을 섭취하자. 글루코사민, 상어연골 등이 도움이 된다.

6. 무릎 전문 한약 처방을 복용한다. 아교는 당나귀가죽에서 추출한 교원질로서 무릎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한약이다.



진관사 개산(開山) 999년 기념 및 독립운동 사료 발견 기념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

삼각산 진관사에서는 개산 999년을 맞이하여 항일 독립운동사료 발견을 축하하고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축제 '삼각산 달오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색단풍이 아름다운 삼각산 너른 마당에서 아름답고 고즈넉한 산사의 향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10월 18일(일요일) 오후 4시 ~ 6시
◆장 소 : 삼각산 진관사 대웅전 앞마당
◆주 관 : 삼각산 역사, 문화 보존회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출 연 자 : 윤문식, 김성녀, 동환스님, 김영임, 안치환, 중앙관현악단, 채향순무용단, 진관사 묘음합창단, 능인선원합창단 외
◆문 의 : 진관사 종무소 02)359-8410
◆차량운행 : 18일 오후 2시 ~ 4시까지 구파발역 2번 출구, 연신내역 3번출구 하나은행앞 수시운행

※ 산사의 가을은 추울 수 있으니 따뜻한 옷을 준비해 오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주지 계호 합장

현대불교신문 15th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관음성지 휴휴암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정진도량 }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新 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2-1 야광용 핑크 70ƒ×35㎝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ƒ×35㎝
2-3 쑥향초·야광용 70ƒ×35㎝ / 2-4 봉황색 전사지 70ƒ×35㎝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ƒ×45㎝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⑨ 비차도

'다마무역'으로 차 공수한 북방 차문화

내몽고 초원에서 일어난 거란족은 매처럼 용감한 유목민족으로 흔히 말 위에서 나라를 세웠다고들 한다. 이들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천여 년 전인 916년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해 요(遼)왕조를 세우고 이후 중국 북부의 광활한 영토를 200여 년간이나 지배했다. 한동안 이들의 역사는 중국의 정사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등한시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북방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거란족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긴 고분벽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새롭게 주목받는 요대 벽화를 통해 북방민족이 향유했던 차 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비차도(備茶圖)', 요대(遼代), 10세기, 중국(中國) 하북(河北) 선화(宣化) 장문조(張文藻) 벽화묘(壁畵墓), 170.0x145.0cm

1974년, 중국 하북성의 선화(宣化)지방에서는 요왕조의 관리였던 장세경(張世卿) 일가의 묘군이 발굴됐다. 묘실의 내벽에 그려진 벽화는 그 내용이 풍부하고 보존상태 또한 완벽한데 주된 내용은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과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이다. 때문에 벽화에는 당시 요나라의 풍습뿐 아니라 귀족이 즐기던 여흥의 정취가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그 중 장문조(張文藻) 묘의 전실(前室) 벽면에는 연회를 위해 여러 인물들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활발한 기질의 유목민족에게도 차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던 모양이다. 이는 고기 위주의 식습관과 식수의 부족으로 인해 배열병(背熱病)을 앓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북방에서 차를 생산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는 필요한 차의 전부를 송나라에서 수입하고 자신들에게 풍부했던 말을 수출하는 일명 '다마무역(茶馬貿易)'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송나라와 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적국에 군사력을 증강시켜줄 말을 내어준 것이니, 이들에게 차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문조 묘의 벽화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중앙의 여인은 시동들에게 연회를 위해 차를 준비시키고 있다. 화로에 놓인 탕병에서는 물이 끓고 탁자 위에는 많은 다구가 놓여있어 차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다. 술병으로 쓰인 붉은 뚜껑의 백자매병과 주칠이 돼 있는 합,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크기의 백자 잔들은 당시 사용됐던 실제 기물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것들이다. 화면 우측에는 머리의 중앙을 밀고 옆머리를 늘어뜨린 거란족 특유의 머리모양을 한 시동이 한껏 찌푸린 얼굴로 꿇어앉아 있다. 이 시동의 그 어깨를 딛고 올라선 아이는 대바구니에서 복숭아 모양으로 포장해 건조 중인 말차 덩이를 꺼내고 있다. 작은 소동을 일으키며 어렵게 취한 덩이차를 앞치마로 받쳐 들고 있는 거란족 시동은 잠시 후, 앞에 놓인 다연(茶碾)에 차를 부수어 곱게 가루 낼 것이다. 이 말차 가루가 탁자에 있는 다완에 담기고 여인에 의해 연회장으로 옮겨지면 무덤의 주인이었던 장문조와 초대된 사람들은 이 완에 물을 붓고 다선으로 아름다운 차 거품을 내었을지도 모르겠다. 화면의 왼편에는 차를 준비하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일을 지시하는 여인의 눈을 용케 피한 모양인데 붉은 옷의 한족 아이와 거란족 아이가 섞여 친구처럼 어울리는 모습이 흥미롭다. 요나라는 한족과 이들의 문화를 포용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이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살았던 것이다.

유목민족의 기상을 대표하는 거란족의 벽화 속에는 이미 한족의 문화를 상당부분 수용한 당시의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웅건한 기상과 풍부한 감정은 간결하면서도 호방한 필선과 화려한 채색을 통해 유감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벽화고분의 자료들은 중원문화와 북방민족 간의 교류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뿐 아니라 송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된 차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⑥ 오세암(五歲庵)



설악산 오세암에 하룻밤 묵었던 적이 있다. 봉정암에 가는 길이었다. 늦여름 태양 아래 설악산이 꼼짝 않고 서있고, 아이들 들락거리는 골목길 대문처럼 오세암이 열려있었다. 몇 해 전 초등학생 딸아이가 정채봉 선생의 동화 '오세암'을 훌쩍거리면서 읽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때 나도 '오세암'을 읽었다.

툇마루에 앉았을 때 종루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 너머로 동화 속 오세암이 보였다. 길손이는 이곳에서 엄마를 기다리다 관세음보살을 만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엄마를 만났다. 책을 다 읽고 난 딸아이가 내게 물었었다. "아빠, 오세암 진짜 있어요?" 그 때 나는 오세암은 설악산에 있다고 대답해주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세암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볼 수 없는 엄마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詩가 있는 도량

▪ 11월에는 모두 낮게 앉는다

침엽수들이 어두운 구름처럼 서 있다
햇빛은 투명하게 물과도 같이
이파리 위에 내려앉고
바람은 가지 끝에서 윙윙 거린다
오늘 아침 일대의 공기는 무겁다
검은 뿌리를 딛고 위로 오르던 수액은
가지 끝에 멈추어 서고
등고선을 넘어 온 여름산들은
검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마을 저편에서 무엇을 허무는지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하다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창가로 간다
의자를 당겨 앉는다
다 마신 줄 알았던 찻잔에 남은
한모금 식은 커피처럼
내성적인 등 위로 운명선 같은 예감이
서늘하게 흘러내린다
산 아래쪽으로 머리 흰 할머니가 지나는 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는 바닥에 내려앉는다
11월에는 모두 내려 앉는다
수용소 뜰에 낮게 모여 드는 현상되지 못한 음화들

–김혜경, <정신과 표현> 9 · 10월호

옛 판화의 세계

소강 스님이 염불수행을 하다
소강염불(少康念佛)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스님인 석소강이 백마사 선도의 영당에서 <서방화도문(西方化導文)>을 읽고 그의 가르침을 선양하고자 "염불하면 1전의 돈을 주겠다"고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 아미타불을 칭념하게 하면서 정토종이 중국에 널리 퍼지게 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소강(少康, ?~805)은 당나라의 승려로 정토종(淨土宗)의 제5조(祖)로 불린다. 진운(縉雲:浙江) 출생이며, 속성은 주(周)이다. 어려서부터 불전(佛典)을 읽고 가상사(嘉祥寺)에서 계를 받았으며, 용흥사(龍興寺)와 백마사(白馬寺)에서 공부했다. 뒤에 정토종의 대성자(大成者)인 선도(善導)의 영당(影堂)에서 <서방화도문(西方化導文)>을 읽고 크게 감동해 그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데 힘썼다. 장안 광명사에 가서는 선도의 현몽을 받고 염불할 것을 결심했으며, 목주 오룡산에 도량을 세우고 여러 사람을 교화해 염불을 권했다. 입적한 뒤에 세상에서 '후선도(後善導)'라고 불렀다. 저서에 <이십사찬(二十四讚)> <왕생정토서응전(往生淨土瑞應傳)>(文諗 공편) 등이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석소강 스님은 돈을 빌어 어린아이를 유인해 말했다. '아미타불이 너를 인도하는 스승이다. 한 소리 염불하면 너에게 1전의 돈을 주겠다.' 그러자 아이는 돈을 얻으려고 힘써 소리 따라 이를 염불해 한 달 남짓 지나자 어린아이들이 염불해 돈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해 열 번 소리 높이 염불할 수 있는 아이에게 1전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해 1년이 지나니 어른, 아이, 귀하고 천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스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미타불을 칭념해 염불하는 소리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정토 삼부경과 세친(世親)의 <왕생론>을 주요 경론(經論)으로 하는 정토종은 중국에서의 시작은 4세기의 혜원(慧遠)으로까지 올라가며, 6~7세기경 담란(曇鸞)과 그의 계승자인 도작(道綽) 및 선도(善導)는 정토신앙의 교리를 체계화하고 널리 전파해 정토종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소강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적극적으로 이를 널리 전파했다. 당(唐)나라 때의 정토종은 말법(末法)사상이 팽배하던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려 시의 적절하게 민중에게 전파시킬 수 있었다. 중국에서 정토종은 오늘날까지 독립된 종파로 존속해왔으며, 불교의 다른 종파에 속한 이들도 상당수 정토신앙을 받아들여 왔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소강염불(少康念佛)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2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1월 4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1월 5일 매주 (목)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 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
불교 상 • 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교육받아 상 • 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
● 모 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
● 강 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
●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옆)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옆)
● 등 록 금 : 60만원(교재,실습비,현장학습 포함)
● 교육내용
- 불교 상 • 제례 이론과 실습
- 불교장례 관련시설 현장학습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 상조문화와 외국장례
● 수료후 진로
- 사찰 • 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
-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
- 장례관련업체 진출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큰스님들 (법장, 승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순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여
- 불교의례, 천도재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

현대불교신문 1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9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지 성타
관장 종상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부주지 장주
총무 종천
기획 정문
교무 정수
재무 종천
사회 각천
포교 성요
호법 종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 (불국사부설 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사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주 명성
주지 진성
율원장 흥륜

대 중 일 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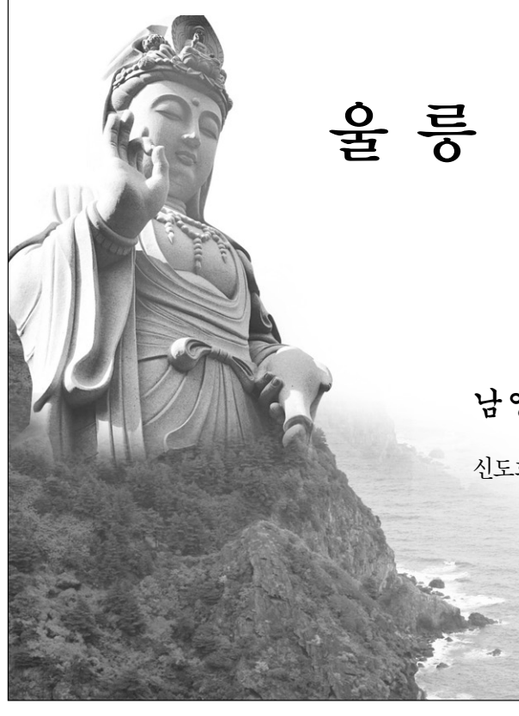
용 연 사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회주 지성
주지 상원

신 도 일 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 팩스 053)616-0408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대한불교조계종

한 국 불 교 대 학
大 관 음 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봉축합니다'

공식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제7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입재 : 양력 10월 11일(일요일) 오전 10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10시 (음, 8월 2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1일 (음, 8월 23일)
- 3재 : 양력 10월 25일(음, 9월 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2일 (음, 10월 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모시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불교문화와 IT 대융합의 시작, 불교IT문화원

1대1맞춤 강의시스템!! 대기설법 형식 수업진행!! 컴맹 탈출 1개월 프로젝트!!

아직도 컴맹이십니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330호
www.ITBuddha.co.kr 02.739.9777

불교 IT문화원 강좌안내

IT강좌	컴맹탈출 / 중 급 / 전문가 홈페이지제작 / 불교방송국개설
서 예	한 문 / 한글 / 손글씨
장 엄	장엄연구
재 채 비	재채비연구
탱 화	초중급 / 불화연구
전통예술제본	전통예술제본연구

불교 IT컨설팅 당당 www.consultingit.co.kr
홈페이지 제작 / 인터넷 불교방송국 구축
종무관리 시스템 / 디지털 법회 시스템

최신 신도관리 시스템
문의전화 070-8713-9777

장엄연구소
제작문의 02-739-9777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제753호 현대불교
2009년 10월 14일(음 8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A21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그대로 공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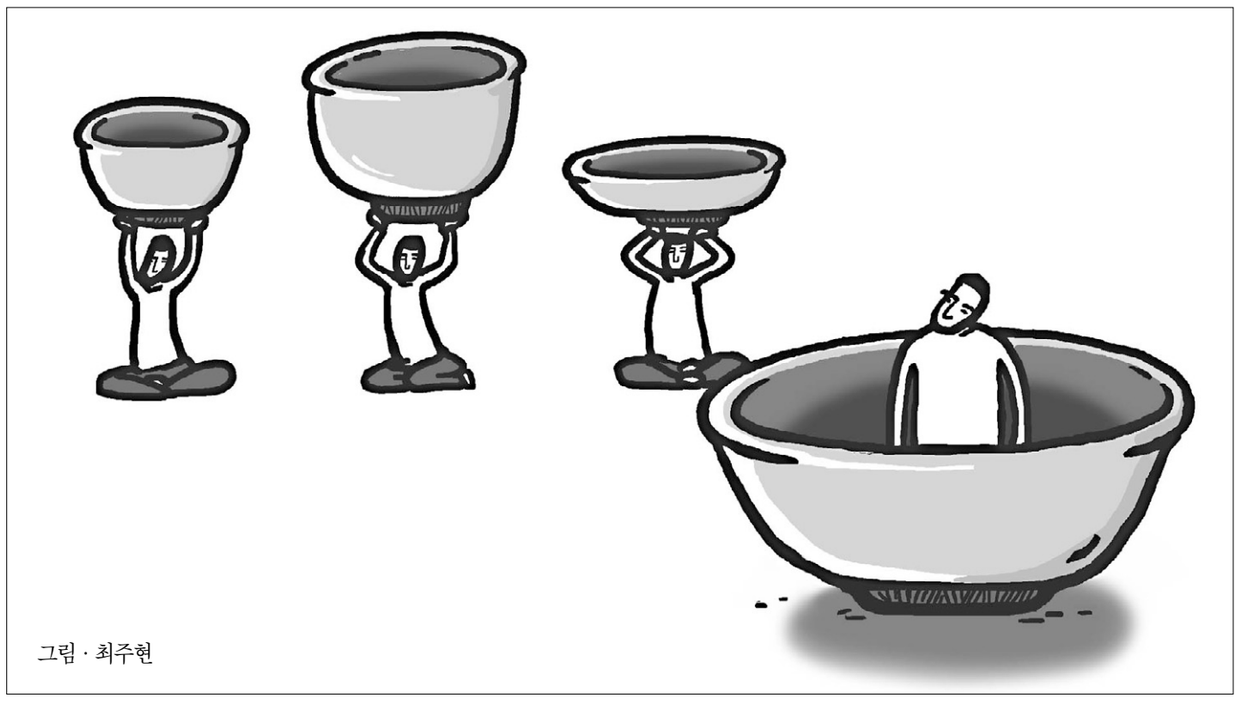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스님, 이렇게 항상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팎이 공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정된 나가 있고 고정된 너가 있어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팎이 공한 이치를 뼛속 깊이 체득할 수 있을는지 먼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항상 말했듯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공한 줄을 안다면' 하는 소리는, 과거에도 이런 때가 있었고 또 미래에도 이런 때가 있을 거고 현재에도 이런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난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그 공한 도리에서 우리도 역시 공해서 살고 있다.' 하는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해 나갈 수 있다면 그대로 공한 것이죠. 공했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게 그대로 공한 것이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 준다고요. 또 아들을 부르면 아들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그 자연적으로 해 나가는 걸 몰라서 때에 따라서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다 벗어 버린다면…, 옛날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자네가 좀 가서 어떻게 해 주게." 하니까 "나오신 게 없는데 가실 게 어딨다고 그러는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벌써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말이 적으면 실천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랬듯이 마음속으로 자꾸 편안치 않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스님. 두번째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때때로 시간이 나면, 혹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조용히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너만이 내면의 모든 이치를, 물리를 깨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틈나는 대로 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것 잘된 것이 없다고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내가 전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다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 없이 말하고, 함이 없이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질문자1(남): 스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스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 말을 알아듣게 하려면, 허허허…,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게 없어요. 함도 없고요.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대로 바람이 불듯이, 그대로 구름이 떠다니듯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 땐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알게 되겠죠. 지금 걷다가 멈춰지는 그런 걸음이 아니니까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찰나찰나 그냥 걸어가는 거지 멈춰서 쉬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그냥 쉴 수 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부터는 저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이나 과거에 묻은 습이 나오는 것을 전보다는 조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오는 대로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제 자리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묵은 습이 하도 두텁고 짙어서 정말 스님 말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밖으로 나온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스님의 가르치심인데 그 습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녹이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나오기 전에 돌려놓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항상 내가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걸, 이 세상 살아나가는 모두를 하나로 둥글릴 수 있죠? 모든 거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 저런 일이 생기지 말라.' 이러고 놓는 게 아니죠. 놓을 때에 '너만이 그런 사연이 모두 쉬게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놔야죠? 자기의 요량이에요, 그것도. 모든 게 자기의 요량대로죠. 길을 가는데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집엘 가고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그 집엘 가는데 길을 어떡해야만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디든 빠르든 상관없이 그냥 거길 가는 거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스님. 놓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너만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觀)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든 살리든 너 알아서 해.'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것도 법, 안 짓는 것도 법이니까 지을 만 하면 짓고 안 지을 만하면 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풀어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법우님들하고 토론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첫번째는 이 공부를 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되는 방향으로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재미도 보고 힘도 얻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그것마저 놓아야 하니까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너 알아서 해.' 라는 단계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큰스님처럼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면, '필요하면 집을 짓고 필요 없으면 안 짓고', 그때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가르침이 결국은,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실 적에 저희들의 근기가 워낙 다양하니까 특정인을 지칭해서 법문을 하실 수 없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신 거지 사실은 그게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게 맞는지 스님의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큰스님: 맞아요. 개개인의 그릇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쓸 것이 있고 큰 사람이 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지죠. 그릇을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릇이 없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가지고 다니죠. 본래는 다들 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왜 다르지 않느냐.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똥둣간의 똥막대기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에서 말한 겁니까? 자식을 기르는데 부모가 항상 똥 닦아 주듯 항상 자기를 떠나는 일이 없어요. 자불(自佛)이 자기를 떠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떠남이 없이 큰 거든 작은 거든 수없이 해 나가는 거를 다 손살피 돌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또 때에 따라서는 고통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을 알고 간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길을 걷게도 하고요, 손을 잡아끌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뜻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스님. 이번에는 심성과학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스님께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이라든지 각종의 암 같은 것은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거의 난치 내지는 불치병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회 있을 적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런 암이건 정신병이건 간에 과거의 영계성, 인과성, 유전성의 영향이 많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 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암 같은 경우도 정상 세포의 분할을 억제하

☞22면으로 계속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5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 강: 2009년 10월 19일(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buddhanews.com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

☞21면에서 계속

는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고, 정신분열증 같은 것도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 결함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계성이라든지 과거의 인과성, 이런 원인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히고 쫓고 쫓김을 당하고, 서로 인과(因果)의 업(業)을 반복하면서 살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다 과거생에 수억겁을 두고 서로 인과를 주고 받았을 텐데 하필 정신병이나 암에 걸린 그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거기에 무슨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사연이 새록새록이 많죠.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둘 아니게 하려면 둘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참, 요즘 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를 막론해 놓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죠, 모두가.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과거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불집게로 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한 동네에서 다시 살게 됐는데 또 불집게로다가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걸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공부하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그 자체가, 내가 고운 말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곱게 나오고, 내가 악을 쓰고 욕을 하면 상대방에서도 욕을 하고 나온다, 이런 뜻과 같죠. 그러니까 그런 업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업보라고 하는 것도 일들이 벌어지니까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편으로 쓰는 거지 본래 업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사지을 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생명들이 새끼들을 낳고 있으면 그냥 삽으로 척척 쳐서 죽여 버리고, 생명들을 우습게 그냥 잡아서 구워서 먹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도 예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로 오거나 자기한테로 오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의 근본을 안다면 그렇지를 않을 텐데, 근본은 모르면서 이 영혼만이 누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악하고, 그렇게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냥 그리로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든지 이태가 지나서든지 또는 그 후생이 되든지 그렇게 돼서 그 인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법이죠.

질문자1(남): 스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스님 말씀을, 그런 정신병이나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정도가 심한 인과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살아온 대로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대로니까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보시를 하라 하는 거죠, 항상.

질문자1(남): 네, 지금 제가 두번째 여쭈려고 하는 걸 스님께서 바로 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병들이 과거 생의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업식 보따리 속에 다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사춘기, 10대 후반, 20대 초에 생기니까 그 인과 보따리 정체가 좀 빨리 드러나는 셈이고, 암 환자는 주로 장년 이후 노년기에 생기니까 몇십 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을 불의에 공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서 숙명통(宿命通)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 보따리 속에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과거의 업 보따리, 인과 보따리를 빨리빨리 녹여야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심성의학적인, 예방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미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세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선원뿐만 아니라 불법을 찾는 사람 가운데서 극히 상근기 몇 분을 빼 놓고는 대개 어떤 육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뭐 가난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법을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 선원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병만 나으려고, 그 병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의 일련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질병이 생겼건 다른 어떤 괴로움이 생겼건 간에, 눈앞에 닥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높으신 법력이 있으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는 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만 나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큰스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일반 신도나 혹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자를 지도할 적에, 요컨대 병만 나으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님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가 극악하고, 그렇게 아프고 죽겠으니까 그냥 그리로 덤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든지 이태가 지나서든지 또는 그 후생이 되든지 그렇게 돼서 그 인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둘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게 없어지는 법이죠.

질문자1(남): 스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스님 말씀을, 그런 정신병이나 암 환자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정도가 심한 인과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살아온 대로니까요. 그 사람 자체가 살아온 대로니까요.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서 관하라, 둘 아니게 관하라, 둘 아니게 큰마음의 보시를 하라 하는 거죠, 항상.

질문자1(남): 네, 지금 제가 두번째 여쭈려고 하는 걸 스님께서 바로 답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병들이 과거 생의 인과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 업식 보따리 속에 다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사춘기, 10대 후반, 20대 초에 생기니까 그 인과 보따리 정체가 좀 빨리 드러나는 셈이고, 암 환자는 주로 장년 이후 노년기에 생기니까 몇십 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을 불의에 공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서 숙명통(宿命通)이 터지기 전에는 자기 보따리 속에 어떤 인과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과거의 업 보따리, 인과 보따리를 빨리빨리 녹여야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하자면 심성의학적인, 예방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이미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세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선원뿐만 아니라 불법을 찾는 사람 가운데서 극히 상근기 몇 분을 빼 놓고는 대개 어떤 육신의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뭐 가난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불법을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적에, 우리 선원에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병만 나으려고, 그 병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의 일련의 가르침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떤 질병이 생겼건 다른 어떤 괴로움이 생겼건 간에, 눈앞에 닥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높으신 법력이 있으니까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런 과정은, 제가 느끼기에는 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냥 주인공 자리에 관하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어떤 병만 나으려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동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먼저 해야 그 병도 나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큰스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일반 신도나 혹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환자를 지도할 적에, 요컨대 병만 나으려고 관하지 말고 참회도 듬뿍듬뿍 많이 하고 새로운 마음의 지평을 열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스님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저 나무들 뿌리하고 싹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무 싹이 있으면 뿌리가 있듯이 누구나가 다 본래 그렇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네 뿌리는 바로 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일체 우주 전체를 한데 싸서 콩 알갱이 하나로도 할 수 있고,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요런 데로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한 사발로도 할 수 있고, 한 주먹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없이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그 모두를 콩 하나로 해서 짊어지니까 짊어질 수도 없이 무겁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떡하면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하라고 그런 겁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것만치 없어질 거고, 믿지 못하고 뭐를 얻으려고만 한다면 자기 정성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나을 뿐이지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세생생을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짊어진 콩 한 알갱이를 산더미 같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산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 셈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거를 그냥 다 놔라.' 이 소린데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공이라는 자기 자불을 진짜 꼭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눈뜨고 보고 귀를 기울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형성시켜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깁니다. 자기 종자인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종자라는 근본인데, 그 근본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겼다면 그 근본에다가 다 놔야죠. 진짜로 믿고 놔야죠.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똥 누는 거, 뭐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놈 때문에 움죽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산 하나다 해도 되고 콩 한 알갱이다 해도 되는데, 그 콩 한 알갱이가 짊어질 수가 없으리만큼 무겁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진짜로 믿고 무조건, 가난하든 부자든, 돈이 있든 없든, 밥을 굶든 먹든, '굶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고, 길을 걷게 하는 것도 너고….' 이렇게 전부 다 주인공이 하는 것임을 믿어야죠.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머리 위에 상투를 이렇게 하나 해 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부처님을 여기다 새겨 놓기도 하고, 지금도 해 놨지만 때로는 금으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바로 그게 크고 좋아서가 아니죠. 그 뜻으로 볼 때는 '텅텅 빈 모습이다. 텅텅 빈 모습인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도 갖추어 가지고 계신다.' 고 하는 거죠. 텅텅 비고 없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오장 육부가 다 있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도 빈 손 부처님 손도 빈 손, 내 발도 빈 발 부처님 발도 빈 발, 부처님 몸도 빈 몸 나도 빈 몸, 빈 몸이니까 빈 마음, 함도 없이 하고 가는구나.' 하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모두를 알 양으로 애를 쓰지 말고 모두가 공했다는 거, 우리가 공해서 함이 없이 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수억겁 전년서부터 인과로써, 인연으로써 둘이 아니게끔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 그 뜻만 대략 알면 그냥 믿고 가도 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바보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니까 빗자루를 하나 줬단 말입니다. '너는 이 빗자루 하나 가지고 항상 쓸고 털고 그래라.' 하고요. 거기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수없이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을 다 놔야 된다. 아는 것을 다 놓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 때문에 길고 짧고, 이렇고 저렇고, 이론이 많아서 외려 갈 길을 더디게 만든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해라. 공했으니까 너는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에서 별짓 다 하죠?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집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거는 내 환상이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다고 하겠죠. 그렇게 온통 모든 것을 환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다면 그냥 야단나죠. 그러나 환상인 것을 알면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이런 것이 다 무심하게 돌아가죠. 알게 되면 얼음판을 걸어와도 아주 편안하게 걸어올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두껍게 얼었더랍니다. 그런데 고기들을 잡느라고 얼음을 꺼 놓은 자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잘못 걸으면 풍덩 빠져서 야단들이 나니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데, 스님네 둘은 하나도 거침없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오거든요. 그래, 옆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두 두리번두리번거리고 간이 콩알만 해서 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 건너와서 물었어요. "스님, 스님! 스님네들은 이 강을 건너오시는데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강을 건너온 사이도 없는데 어떻게 겁이 나겠소?" 하더랍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사는 게 아니다는 걸 알면 그냥 사는 바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 몸에 환상이 생겨서 병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관해서 놓으면 그 환상이 둘이 아니게끔 딱…, 왜, 그런 것도 있죠. 이 한 모습에 다른 모습이 딱 들어가서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거 보죠? 그런 거 보시면 아시듯이 그렇게 수천 개가 들어가도 그거는 들어가고 나간 사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일 리가 없거든요.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처음 질문 올린 대로,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난치 불치병 환자들은 과거 생부터 여느 사람과 달리 좀더 각별한 인연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이 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큰스님 같은 대 선지식을 만나서 그 고리를 풀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거를 녹이지 않으면, 어쩌면 그 병으로 한 생을 마감하고도 다음 생에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스님: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댁 같은 사람만 만나도 고리가 풀어질 거야, 아마.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전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바람 불듯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 정 : 2009. 10. 16(금) 오후 1시부터 ~ 10. 17(토) 오후 6시까지
-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H·P 010-2031-1233 ☎ 02) 313-5047

※ 수효사 7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백천사에는 오전 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2010학년도 전기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유불선 합일의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방문화 창달을 교육목표로 설립된 특성화·차별화를 통한 창의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대학원대학교입니다.

1. 모집안내

학 과	과 정 (지원구분)	모집인원
서화심미학과	석 사 (신입)	○○명
불교문예학과	박 사 (신입)	○○명
자연치유학과	석·박사통합 (신입)	○○명
미래예측학과	연 구 (신입)	○○명
문화정보학과	외 국 인 (신입)	○○명
조형칠예학과		

2. 전형일정
【원서교부】 2009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원서접수】 2009년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전형일자】 2009년 11월 7일(토)
【합격자 발표】 2009년 11월 18일(수) 본교 홈페이지

3. 전형 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시험
- 연구과정은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입시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전화: 02) 3668-9811,12
- 팩스: 02) 3668-9899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www.dongbang.ac.kr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한글날, 다시 태어난 세종대왕

신문을 펼치면 의례히 등장하는 단어들 '고령화시대에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임금 피크제' '패러다임' '이미지 파워' '슬럼프가 오면' '자신을 브랜드화 하자' '마케팅전쟁' 등 온갖 외래어와 혼용하는 한글을 접한다.

한 민족의 힘은 말과 글이 살아야 굳건해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말과 글을 아름답고 바르게 다듬고 키워가며 제 얼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겨레의 말에는 겨레의 얼과 혼이 담겨있다. 그러나 함부로 제멋대로 말하고 씀으로써 한글의 기본이 무너져 가는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현실이다.

지난날에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한문을 높여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말이 주눅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 일본이 침략해 오자 또 일본에 아부하기 위해 일본어 쓰기를 좋아하고 우리글과 말을 얕보며 없애려고 했다. 이른바 조선총독부에서 정책적으로 억지로 이름조차도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어를 쓰게 하며 우리의 글과 말을 말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작금의 시대에는 세계화 바람으로 영어를 알아야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여 너도나도 영어 열풍이다. 이미 사회는 외국어와 외래어 그것도 서구식 신조어까지 범람하는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에 국경의 경계가 무너져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 외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편리한 것도 없을 것이다.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마구 외국어를 자랑삼아 쓴다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인터넷과 방송 그리고 신문 등 언론매체 부터도 무분별한 외래어의 남용은 심각할 지경이다.

우리 글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동안 이른바 한자어를 가지고 생활해 왔기에 우리 말의 낱말 중에 한자어가 80퍼센트가 넘어 순 우리말은 겨우 20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한 한자말을 순 우리말로 바꿔 말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영어나 일본어 등도 처음에는 외국어로 쓰이다가 점차 외래어로 탈바꿈하는 경우도 주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글은 더욱 큰 생존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게 해 주고 있다. 일찍이 박은식 선생은 "일본말을 가르치면 일본 사람이 되고, 중국말을 가르치면 중국 사람이 되므로 우리는 우리말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국의 언어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지난 여름 개장한 광화문광장에는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동상이 자리 잡았다. 퇴근길에 광화문광장을 걸어보았다. 정겨웠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사라져버렸고 황량한 그 자리에는 기괴한 모습의 햇빛 가리개들 만이 마치 무슨 조형물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 세종대왕의 근엄한 형상의 동상이 있다.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한글을 만든 우리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다. 서울의 얼굴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동상을 세우기로한 건 사소한 발상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광장이 있는 위치가 세종로이니 이순신장군이 아니라 세종대왕동상이 있어야 한다는 일부 시민의 요청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이순신장군 동상도 그대로 두게 되면서 광화문광장은 동상이 두 개가 있는 광장으로 변모했다.

세종의 한글창제의 깊은 뜻이 제행(諸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면 날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걸어오는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처럼 넘치지 않는 모습으로 녹아들어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갈등과 혼돈의 시대 세종대왕의 정신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0월의 테마-결실

한국불교는 얼마나 결실을 얻었을까?

다람살라는 인도의 북부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다. 이곳은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인도로 망명해서 티베트 임시정부를 꾸리고 사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을 처음 가게 된 것은 18년 전 어느 여성 불자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인도 성지순례가 목적이었지만, 현재 인도불교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그곳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티베트 본토에서 달라이 라마 존자를 따라온 수많은 노스님들이 있었다. 이제는 대부분 입적했지만, 스님들의 존재만으로도 산골마을은 향기가 넘쳤다.

추운 지역에서 살던 노스님들은 갑자기 인도의 더운 환경으로 바뀐 탓에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스님들은 아침에는 빵 한 개, 점심에는 카레라이스 한 그릇, 저녁에는 칼국수나 밀크 티 한잔을 하면서도 항상 여유롭게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스님들의 소유물은 그야말로 추위를 피하는 두꺼운 쇼올 하나뿐이었다.

노스님들은 대부분 병이 없이 갑자기 열반에 드셨는데, 여름까지도 멀쩡하다가도 가을이면 이미 입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곳에서 그런 노스님들의 모습을 뵙고는 불교의 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불교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3계(三界)를 초월해서 해탈하는 종교이다. 한국불교는 지금 어디까지 결실(結實)을 얻고 살고 있을까?

나라를 잃고 이국땅에 임시망명 정부를 두고 의존해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티베트인들은 종교의 자유와 바른 스승을 찾아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스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고 산다. 달라이 라마 존자는 법을 구하러 다람살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음식값이며 게스트하우스의 숙박비를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라고 한 지시대로 그들은 어려운 살림에서도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산다. 그래서 다람살라의 음식과 방값은 질이 좋으면서도 값이 싼 편이다.

다람살라의 티베트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절로 가서 대웅전이나 탑 주변을 도는 소위 '꼬라' 도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한다. 재가 불자들도 집마다 불단을 갖추고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기도를 필수로 하고 살아간다.

한 집안의 맏아들이나 똑똑한 아들이 5~7세에 출가해서, 차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경전공부를 수년간하고 스승의 지시로 동굴 수행을 1~3년 간 해도 겨우 20세밖에 안 된다. 젊은 스님들은 대부분 순수하고 낙천적이라 항상 얼굴에 밝은 빛이 넘쳤다.

한편으로 재가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절망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그들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면서 데모와 시위를 주도하곤 했다. 이와는 별도로 티베트인들의 삶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온 서구인들은 쉽게 동화돼 갔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행복한 티베트인들의 삶을 통해, 행복의 조건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음을 피부로 느낀 것이었다.

그것이 티베트 불교의 법력(法力)이자 결실(結實)이 아닌가 싶다.

운월 스님
동국대 강사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社說

창간 15주년의 다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 본지가 창간되며 내 놓은 사시다. 불교계 언론의 질적 변화를 이끌었고 양적 변화를 주도한 인터넷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려 온 본지가 어언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하고 싶었던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것은 본지의 정신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이 항상 미흡했던 탓이다. 어디 본지뿐인가? 언론에 대한 불자들의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작 시스템과 영업적인 결핍들이 불교계 언론의 질적 양적 수준을 제자리걸음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언론의 부단한 노력이 없다는 뼈아픈 자성이 있다. 상투적으로 '급변'이라는 말을 남발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항상 인과 속에 이루어진다. 그 인과의 흐름을 날카롭게 살피고 예리하게 대처하는 지혜의 부족이 불교 언론의 발전을 막는 것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일부 장기 기획물에 대한 독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신문 만드는 재미를 돋워 준다. 새로운 연재들에 대한 높은 관심, 더러 지면에 드러나는 실수에 대한 신랄한 질타,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린다.

본지는 결코 하나의 언론사가 아니라 사회와 불자 그리고 국민을 연계하는 가교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발전지향적인 생각이 불자와 국민의 문화적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알찬 신문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한 순간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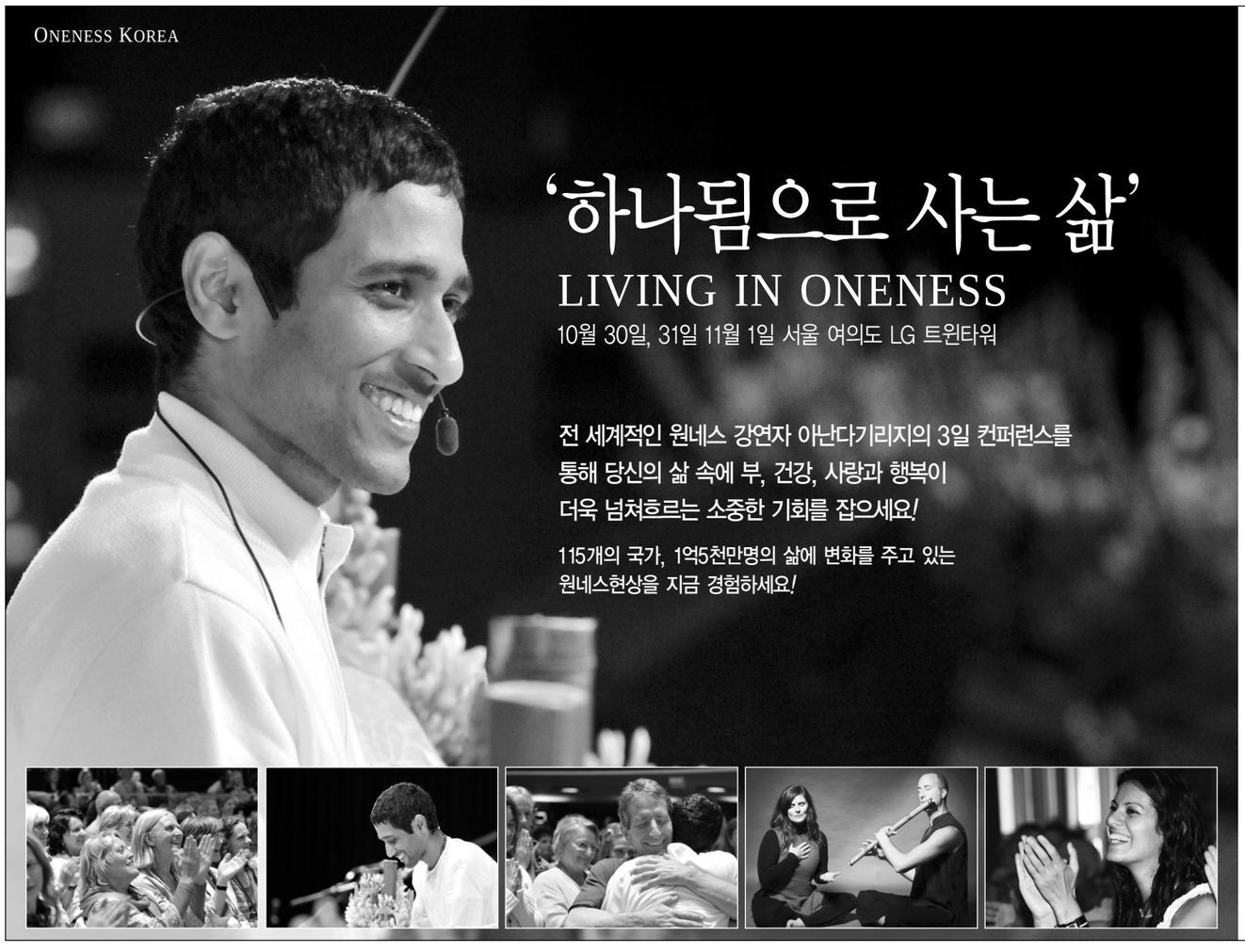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몸통'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이사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불교방송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양측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각각의 입장을 보면 서로 타협할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대립의 심화가 위험수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사장 선임 문제가 갈등의 분출구이긴 하지만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측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 하면 그만큼 힘만 빠지고 결실은커녕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개인 대 개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충돌이 있을 때는 결별할 때 결별하더라도 대화는 해야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진흥원과 불교방송도 대화를 해야한다. 그것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러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어렵다면, 제3의 인사들과 양측의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법을 찾는 일도 좋을 것이다. 지금 불교방송이 토론회를 제안 한 것이 진정한 객관적 검토를 위한 단계 거치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흥원과 불교방송은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둘인 새(카루다와 우바카루다)의 설화를 상기하고 화합할 때다. 그것이 진흥원과 불교방송을 설립한 대원 장경호 거사와 장상문 거사의 대를 잇는 불심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칙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일(토), 11월 1일(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OUR Home 및 아워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문사를 만든 뜻

우리가 신문사라는 방향을 세우고 가는 것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이 마음의 도리를 개개인이 직접 실천하고 수행하여 세계적으로도 모두 알게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문을 보고 "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마음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인해 그 한 집안에 이익이 가고 공덕이 되어서, 울면서 살아야 할 것을 웃으면서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보살행이 됩니다. 신도들만 보라는 것도 아니고 불교 신도가 아닌 사람에게도 좀 권해서 그 사람이 한 줄의 글이라도 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불자 여러분은 밤길도 밝힐 수 있는 아주 큰 자동적인 전등을 들고서 앞장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계의 계발을 통해서 불교를 숭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천 수행자로서의 길을 패기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행스님 법훈록『그냥 무조건이야』중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종무소 031)470-3100
http://www.hanmaum.org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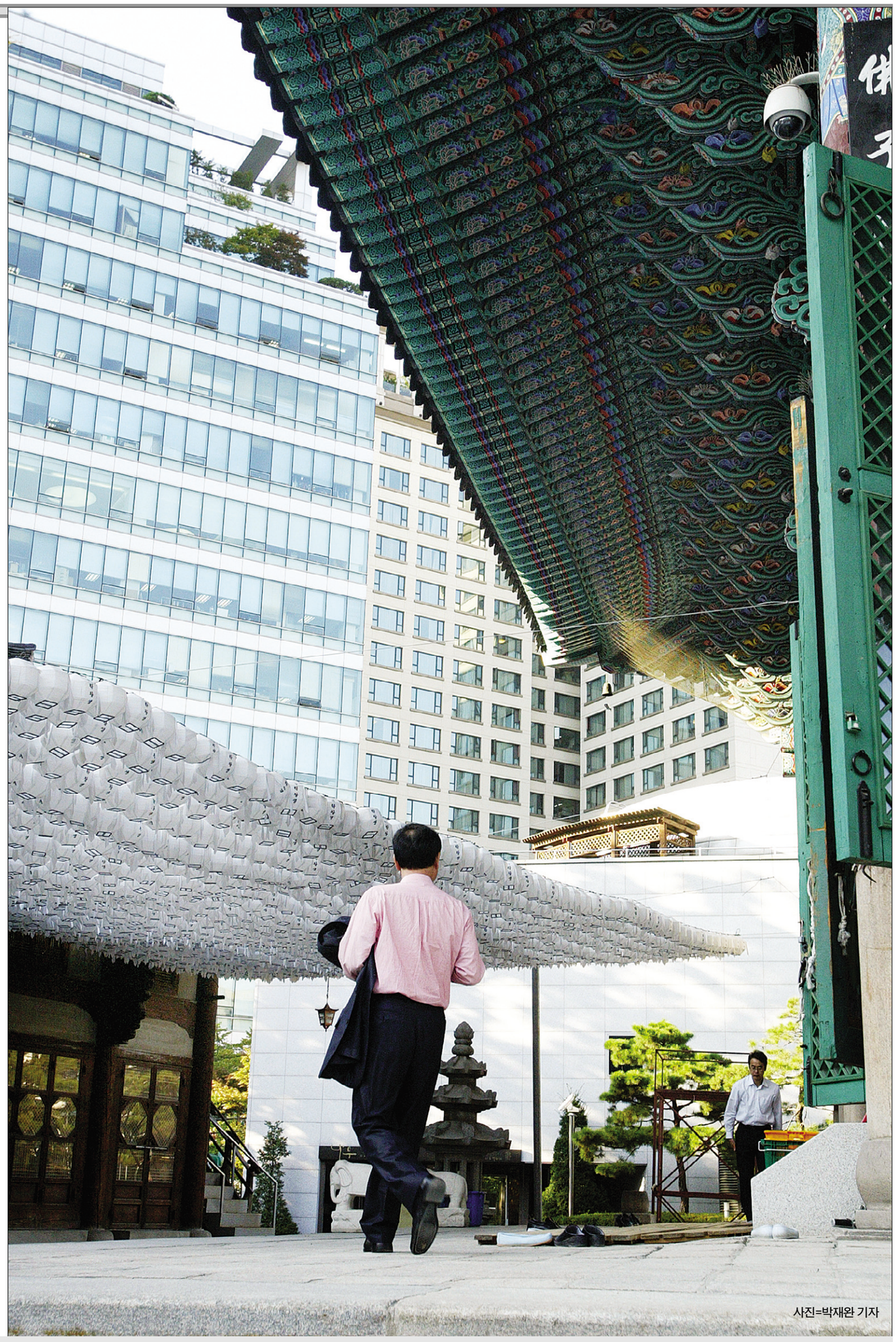
마천루 사이 절에 시름 내려놓으리…

부릉 부릉! 빵! 빵!

아침부터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도심의 소음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는 훌쩍 지나가고,
그런 무심한 일상의 반복에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곤 한다.
하지만 이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 자신의 모든 고뇌와 망상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곳이 있다.
현대식 건물에 둘러싸인 빌딩 숲속의 절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
법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탁소리에
눈보다 귀가 먼저 멈춰서는 곳이다.
공기 좋고 경치가 빼어난 산중에 자리한 사찰은 아니지만,
도심의 사찰들은 나름대로의 매력을 뽐내며
지역 및 문화포교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심 속 사찰들은 전시회, 음악회, 템플스테이, 강좌,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시민을 비롯해 외국인관광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
불교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계사는 이런 도심 사찰 중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다.
종로의 높은 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조계사는
염불소리가 아니면 사찰인지 휴식공원인지 언뜻 분간하기 힘들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조계사 인근은 직장인들의 발길로 인해 더욱 분주해진다.
조계사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인 종로에 위치해 있는 덕에
자연스레 외국인들의 단골 관광코스가 돼버렸다.
매일 수백명의 외국관광객이 다녀가는 이곳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조계사 인근에는 삼청동, 인사동, 광화문 등 문화의 거리가 밀집해 있어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많은 불교용품점들이 들어서 있어,
다양한 불교용품으로 불자 및 일반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중 하나인 조계종 총본산으로
연중 많은 주요 행사 및 법회 등이 진행 중이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곳이라 생각돼
막상 다가가기 힘들 것 같지만,
실상 조계사의 모습은 이미 일반인에겐
단순한 사찰이 아닌 휴식공간이 돼버린지 오래다.
조계사는 마치 경내의 회화나무처럼
번잡한 종로의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아늑한 고목나무가 돼 주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신간
왕초보, 禪 박사 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직 공부할 뿐입니다.
선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부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신간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법화경 공부의 지름길!
법화경의 엣센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 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지치고 힘들 때 사찰이 내 곁에

도심 속에서 고요함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속단은 금물이다.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고요함이 도시 한복판에도 자리하고 있다. 고단하게만 여겨졌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잡시나마 세속에서 쌓인 번뇌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도심 속의 사찰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런 전국의 도심 속 절을 찾아 참된 나를 돌아보는 휴식시간을 가져보자.

서울 삼성동 봉은사



새로운 볼거리들이 샘솟고, 젊은이들이 들끓는 강남에도 천년의 역사가 흐른다. 봉은사는 거대한 컨벤션센터 코엑스와 최고급 호텔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1200여 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봉은사는 종로의 조계사와는 달리 적잖은 숲이 우거져 있어 산사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간직한 봉은사는 문화적 향취가 느껴지는 유적지다. 얼마 전 봉은사는 주지 명진 스님의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가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봉은사도 조계사와 더불어 외국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을 활성화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포교에 힘쓰고 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가을에 붉게 물든 낙엽들을 보며 시 한편 읊고 싶어지는 그런 사찰이 있다. 바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길상사다. 한때는 인간의 욕정들이 넘쳤던 요정이, 이제는 청정 도량으로 바뀌어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돼주고 있다. 길상사의 모습은 웅장하고 장엄한 맛은 없지만,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사찰 중 하나이다. 언뜻 보면 사찰이 아닌 예쁘게 가꾼 정원 같은 분위기 덕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10월 17~18일은 가을 음악회와,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신촌 봉원사



천년 역사가 깃든 태고종 대표 사찰 봉원사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년을 기약해야할 듯싶다. 봉원사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연꽃축제와 영산재 공연이 여름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 봉원사의 볼거리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만봉 스님의 불화는 봉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자 백미이다. 봉원사는 최근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영산재를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등 불교문화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사찰이다.

부산 미타선원



부산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미타선원은 참선학교로 널리 알려진 절이다.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간직하지는 않지만 젊은 스님과 신도들이 큰 뜻을 품고 참선하는 도량이다. 현대적 느낌이 풍기는 건물 1층은 갤러리, 2층은 사찰음식 및 선 강좌, 3층은 설법과 다도 등을 배울 수 있는 부산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민선방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청주 관음사



청주 관음사는 도심에 인접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만 사찰이다. 관음사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과 도심야경은 이미 청주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주변 산책로와 더불어 관음사는 청주의 조용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관음사는 예전 계향사 때의 면모를 잇기 위해 임시로 지어진 법당과 퇴락한 요사를 헐고 40평 목조건물인 극락보전을 건립한 뒤, 전통양식으로 천불보전을 완공했다. 현재 관음사는 신도회를 비롯해 10여 개 정도의 신행단체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선도와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면서 청주의 수행과 포교의 중심 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춘천 삼운사



삼운사는 춘천 봉의산 아래 자리하고 있으며, 1700여 평의 대지에 지상 4층 연건평 2000여 평 규모의 큰 법당과, 공연장, 요사채, 다도실 등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형 사찰이다. 춘천 문화의 장인 종합불교회관으로 역할을 수행해가는 삼운사의 모습은 이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삼운사는 "사찰은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어야 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춘천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광주 무각사



광주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무각사는 서울 조계사 · 봉원사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무각사가 뿜어내는 정갈하고 단아한 분위기는 어디 가겠는가. 광주의 팔경 중 하나인 여의산에 자리 잡고 있는 무각사는 광주의 행정, 문화, 상업이 옮겨지면서 광주 시내 대표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00여 평 대지에 300여 명이 동시에 자리할 수 있는 광주 최대의 법당을 자랑한다. 특히 무각사는 5 · 18기념공원 및 산책로가 있어 광주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시회장, 북카페, 전통찻집, 문화강좌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광주의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부천 석왕사



부천 석왕사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1976년 고산 스님이 석왕사를 중창했으며, 부천의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도심 사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왕사 위쪽으로 약수터 등 등산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 운동을 삼아 석왕사를 지나다니고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사회복지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10월 18~25일은 석왕사 중창 32주년 기념 개산대제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부천시민과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관음사



대구에서 포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사찰이 있다. 바로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다. 현재 가장 많은 포교사를 배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관음사는 지역의 복지활동과 종교활동을 병행하며 불국토에 앞장서고 있는 도량이다. 사찰은 전국 최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며, 대웅전을 비롯한 옥불보전, 참좋은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다양한 포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약천사



제주하면 이국적인 가로수, 하늘빛 바다, 하얀 모래, 돌, 바람 등 다양한 제주만의 특색있는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명 관광도시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도량이 있다. 현재 신혼부부들의 제주여행 필수코스로 각광받는 약천사는 불사가 시작되기 전, 좋은 약수가 있어서 더 유명했던 곳이다. 인근 주민들이 이 약수를 마시고 병이 완쾌됐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약천사터의 약수는 수질이 좋았다. 많은 이들의 건강을 찾아주는 약천사 약수처럼 약천사도 그런 인연에 더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모두 편안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사찰이다. 그런 바람 때문인지 약천사는 그야말로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성불터전이 됐다.

군산 동국사



군산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이다. 1913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스님이 건립한 사찰로, 일본식 건축양식이 많이 남아 있는 절이다. 대웅전과 요사가 하나로 연결돼 단청이 없는 흑백의 대비가 눈길을 끄는 동국사는 여느 다른 절과는 분위기부터가 다르게 느껴진다. 동국사 주변은 일본 대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근대와 전통문화재를 보유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또한 신발을 벗지 않고 선 채로 예를 올리는 일본의 전통 불교양식도 한국불자들에겐 새로운 볼거리 중 하나다. 동국사는 규모는 작아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포교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大韓佛教曹洞宗

현대불교 창간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宗　正　**智明.德瓚**　　僧正院長　**怛帝. 德周**

總務院長　**大隱.德牛**　　中央監察院長　**德性.行性**　　中央宗會議長　**海倫.行峰**

禪　院　長: **眞一**
中央護法院長: **慧泉**
中央布敎院長: **優潭**
中央敎育院長: **光慧**
中央律院長: **雲潭**
中央宗會副議長: **雲性**
中央宗會副議長: **知遠**

京畿宗務院長: **法空**
江原宗務院長: **慧覺**
忠北宗務院長: **慧惺**
忠南宗務院長: **法空**
嶺東宗務院長: **慧空**
慶南西宗務院長: **法光**
慶南中宗務院長: **慧山**
嶺南宗務院長: **慧悟**
慶北宗務院長: **雲鶴**
南海宗務院長: **淸雲**
釜山宗務院長: **道一**

僧正副院長: **心月**
僧正委員: **圓峰**
僧正委員: **法空**
僧正委員: **慧空**

副　院　長: **眞法**
總務部長: **古牛**
財務部長: **法蓮**
敎務部長: **海權**

社會部長: **慧山**
監察部長: **慧明**
布敎部長: **素圓**
文化部長: **月峰**
監察局長: **道賢**
敎務局長: **月光**
財務局長: **淸淨**
社會局長: **法文**
糾正局長: **松潭**
文化局長: **平潭**

■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2091-0408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 지으세요”



‘제1차 여성불자 108인’ 등에도 선정된 바 있는 불자탤런트 김용림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0월 6일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 초가을 바람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들어왔다. 창가쪽에 강의내용을 정리하고 있던 김용림씨에게 다가가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드리니 현대불교를 오래전부터 보고 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리고 나서 15주년기념 축하 사인을 부탁했다.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시더니 몇 줄을 써내려 가신다. 사인을 받아들고 돌아서자 멀찌감치 앉아서 바라만 보던 보살님들이 용기가 나셨는지 종이와 수첩을 들고와 사인부탁을 하신다. 사인을 받고 소녀처럼 좋아하는 보살님들과 함께 (사)지혜로운여성이 주최하는 ‘부처님마음으로 행복가정만들기’ 강의가 시작됐다.

#우리 가족 이야기

저희 친정집이 한옥이었는데 구조상 한옥에 기도방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이면 다락에 올라가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데 어머니가 <천수경>을 읽으시니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시집가야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은연중에 저도 많이 익혀 졌나봐요. 어머니가 초파일이나 백중 때 가실 때면 새벽에 일어나 목욕재개 하시고 하얀 모시 치마 저고리를 걸친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부모의 행동이 자식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사춘기 땐 주일학교에 나가서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불교)이야말로 진정 내 종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저는 남일우씨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동료였어요. 제가 KBS성우 4기, 남편은 3기였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 물어본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었는지 남편도 불교집안이었죠.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외아들이라 친정어머니 반대가 심했어요. 그때 유명한 점집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는 곳마다 잘 산다는 거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청량사란 절이었는데 남편 생일 때면 절에서 떡도 해 올리고 말입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탤런트 김지영)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지영이가 예의도 바르고 버릴 데 하나 없이 좋은아이인데 종교가 걸리더라구요.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른 건 안 된다고 반대했더니, 아들이 “그건 저 하기 나름”이라고 해서 믿고 결혼 시켰어요.

아직 종교가 다르지만 며느리가 절에도 따라오고 제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와서 상도 차리고 절도 하는데 그렇게 할 거 다 하니까 교회가지 말란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똑부러지게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 진심이 닿아서 언젠간 부처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어요.

#가족의 신행생활

언젠가 목아박물관장 박찬수 선생님이 직접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선물 받았어요. 그 부처님은 세민스님이 점안식을 해주셔서 집에 모시고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삼배만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부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저희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방 옆을 지나가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식과 가족,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며 발원문 읽는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진실 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데 자식이 안 될 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행365일’을 진행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중한 부처님과의 인연에 참 감사했죠. 물론 청취자들을 위해 방송을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한 마디라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행365일 진행을 맡은 것을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방송가의 종교편향?!

지금 방송국은 양쪽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주 듣게 되죠? 그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어느 해부터인가 그런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상식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젠가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 부처님께 감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을 타면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 “불자들도 뚝심 있게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부모가 열심히 신행하면 자식 부처님 품으로”

또 하나의 신행생활은 불교방송국이 개국했을 때부터 진행해온 ‘신행365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신행365일’을 진행하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법문은 ‘사람은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십주경(十住經) : 대방광불화엄경 가운데 십지품(十地品)만을 따로 번역한 경>에 나와있습니다.

‘사람은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부모의 유전자로 탄생을 하지만 ‘사람 됨됨이는 부모를 보면서 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아서 다시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써 큰 책임을 느끼고 자식교육을 시켜야 함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스스로 염주 돌리는 모습이 자식에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식 혼낼 때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듣니” 하잖아요? 이거 다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배우들은 드라마를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전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불자연예인들은 수가 많아도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불자들이 점잖아서도 있지만 방송가에 기독교PD들이 많습니다. 어떤 기독교PD는 다른 사람 다 써도 불자는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배우들이 배역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PD는 한 불자인 작가와 드라마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일요일이면 작가에게 교회 가자고 안달을 해서 몇 번은 갔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그 작가가 지쳐서 그만 둔 일도 있습니다. 저도 그 PD와 친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대내외적으로 불자인 것이 알려져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기자의 약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도 밖으로 좀 내보여야 해요. 우리 불자들도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점잖아서 ‘나를 닦기 위한 종교’라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정당한 몫을 챙길 줄도 알아야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모두가 화합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 실천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불심이 돈독하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해 주시지만 저희 가정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좋은 환경인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 영향을 받았는지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깨장’을 찾아서 거기를 다녀 왔더라구요.

‘깨장’이 뭔가하면 ‘깨달음의 장’이라고 해서 정토회(법륜 스님)에서 하는 것인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뿐만 아니라 정토회는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깨달음의 장, 문경으로 닷새 갔다 왔는데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 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자기 스스로 왜 울었는지 모르게 새벽에 세 시간 동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거기 가서 부처님 가피를 받았대요. 혹시 집에 자녀분 중에 화합이 안 된다 든가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가 있으면 꼭 보내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에 가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 열심히 할 뿐 이었죠. 근데 이렇게 부처님품으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았어요. 일이 고되고 몸이 힘드니까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정말 어느날 부턴가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다녔어요. 매사가 감사해요. 제가 타고난 음성을 나누면서 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으로 웃으면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부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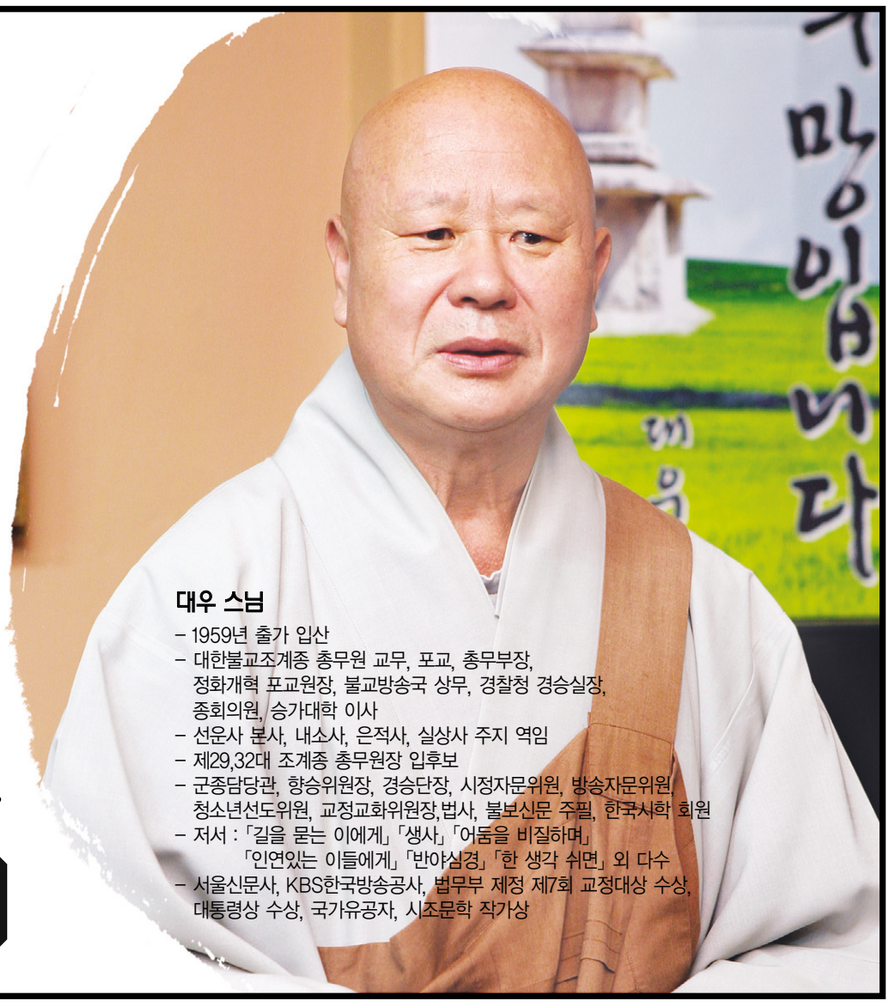
부처님 마음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김용림씨 가족. 오른쪽부터 남편 남일우, 며느리 김지영, 김용림, 아들 남성진. 탤런트 가족이다.

현대불교신문 15th
대우스님 禪詩
그대 그리운 날
시조문학 작가상 수상!!


법보시 문의 받습니다

어느 가을날
詩人 대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를 묻길래
세월에 놀라 버리고 떠날 줄 아는
낙엽을 붙들고 있다고 손 내밀었네
고요도 몸져누운 뜨락에 지는 낙엽
그 무게 얼마인지 궁금함을 눈짓해
바람에 가서 물어보라 말해 주었네.

생명의 나라 진리의 고향 우주의 주인
백련참회굴 백련선원 대우 합장 010-2625-3307



대우 스님
- 1959년 출가 입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교무, 포교, 총무부장, 정화개혁 포교원장, 불교방송국 상무, 경찰청 경승실장, 종회의원, 승가대학 이사
- 선운사 본사, 내소사, 은적사, 실상사 주지 역임
- 제29,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입후보
- 군종담당관, 향승위원장, 경승단장, 시정자문위원, 방송자문위원, 청소년선도위원, 교정교화위원장,법사, 불보신문 주필, 한국시학 회원
- 저서 : 「길을 묻는 이에게」「생사」「어둠을 비질하며」 「인연있는 이들에게」「반야심경」「한 생각 쉬면」 외 다수
-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 법무부 제정 제7회 교정대상 수상, 대통령상 수상, 국가유공자, 시조문학 작가상

현대불교신문 1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도언
감찰원장 보각 부원장 수안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경덕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법승
중앙종회의장 법정 부의장 혜도 법경
불교예술원원장 박종도 위 원 도영 소현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무처장 대광 종정사서실장 소원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연아 포교부장 혜정 기획실장 대각
홍보부장 법경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법정
혜도 각오 범왕 법주 수안 보각 법경 능혜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교구종무원장 능혜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종무원장 보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종무원장 혜도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김해교구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부산법사단장 수안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 총무원 055)346-2909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총무실 010-8548-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 E메일 asp8990@hanmail.net

"불교 언론을 선도해 온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15년을 전 회원과 함께 봉축합니다"

(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회원일동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02)734-8050
www.lisa.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미 륵 암

신도일동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운 합장

신문구독, 기사제보, 광고 접수

신문 구독 불자님께 달마도를 증정 합니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70-8838-3776 / FAX 055)867-2880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봉축합니다"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운

신도일동

제7회 약천사 -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2009년 10월 11일(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핸드폰 011-9002-8523

현대불교신문 創刊 15th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전화 053)621-6237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김정도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 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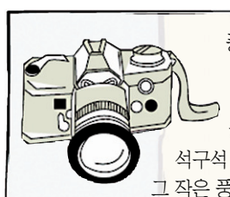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전화 054)954-8000 (代)
팩스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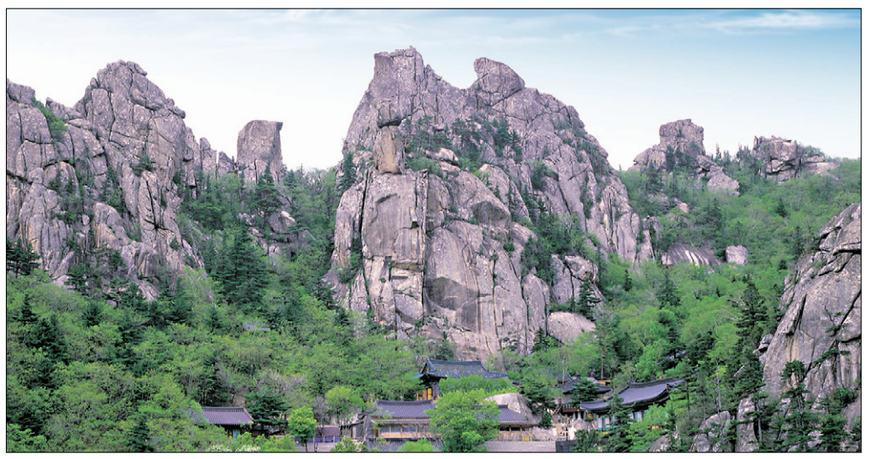
풍경의 절정, 가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이 계절에 창문 너머에서 마른 잎이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땅의 풍경이 궁금해진다. 결코 넓지 않은 우리 땅. 하지만 구석구석 우리 땅의 풍경 속엔 면적을 뛰어넘는 '깊이'가 그 작은 풍경의 품질을 유지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풍경을 늘 궁금해 한다. 그 깊이의 이유에는 사계절이 주는 섬세한 자연의 변화와 그 변화 속에 축적된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1600년 동안 이 땅의 풍경을 함께 만들어온 '사찰풍경'이다. 그리고 그 '풍경'이란 소프트웨어의 영원한 하드웨어는 달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땅 풍경이 궁금해지는 독자들을 위해 달력에 자주 등장하는 사찰풍경 10곳을 선정해 보았다.

박재완 기자 / 사진제공=감로기획(02) 723-4306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풍경이 궁금하다



선운사 도솔암
도솔천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서쪽 바위에서는 미륵부처님이 도량을 내려다보고 있다. 도솔암의 풍경은 늘 신비롭다.



설악산 봉정암
오르고 또 오르면, 간절히 바라고 바라면 볼 수 있는 곳 봉정암. 부처님 사리탑 앞에는 꽃 한 송이 놓여있다.



남해 보리암
기다림에 대한 대답처럼, 희망의 확인처럼 붉은 태양이 보리암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오늘도 희망을 담아가고 싶은 중생의 발길이 이어진다.



경주 불국사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람료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풍경 중의 풍경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늘 같은 자리다.



설악산 신흥사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도량은 하얀 눈 속에서 꼼짝도 않고 있다. 우리 땅 대표 풍경인 설악산의 풍경 속에 늘 도량의 풍경을 보태고 있다.



통도사 서운암
서운암의 장독대는 유명한 풍경이다. 서운암의 장맛 또한 유명한 풍경처럼 유명하다. 붉게 물든 단풍잎 위로 가을이 쏟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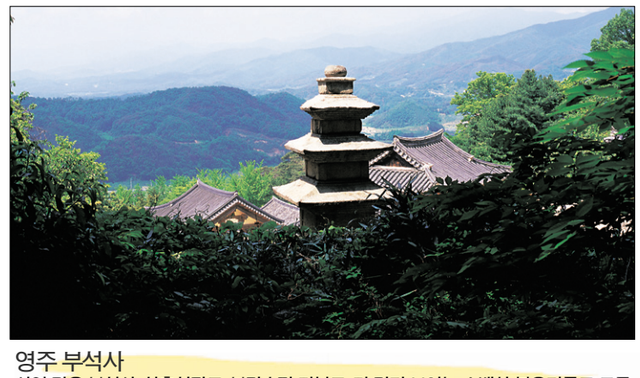
청도 운문사
손님 밥상처럼 깨끗하게 차려져 있는 도량 운문사. 스님과 불자들이 노란 은행잎을 깔고 가을 이야기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
이름만으로 풍경이 되는 도량 통도사. 불보사찰 통도사의 풍경은 든든하고 묵직한 풍경이어서 항상 좋다.



장성 백양사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경전 속의 모든 말씀이 풍경 속에도 있는 듯하다.



영주 부석사
사연 많은 부석사. 삼층석탑도, 부량수전 지붕도, 저 멀리 보이는 소백산 봉우리들도 모두 부석사의 한 가지 사연 같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 = 베트남 = 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 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중국 육조사 (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풍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타)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 화 원 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033)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02)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흥사 옥관음불점안 법회에 증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 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속 선거방법 무작정 따르니 폐해… 종교 본질 지켜야



정천구
영산대 교수



10월 7일 열린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직할교구 종회'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스님들이 사부대중에게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인사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오늘날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화가 진행돼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번 달 22일 조계종 33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한다. 장로교를 비롯한 기독교 개신교 교단들의 총회장 등 임원을 뽑는 총회는 9월 마무리됐다.

종교는 대학과 군대와 같이 이념과 교육과 서열을 중시한다. 선거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근대화 논자들은 근대화가 진행되면 종교의 세는 몰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면 선거와 민주화는 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의 본질을 지키면서 선거를 바르게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우리 불교에서 이뤄지는 선거 현황을 점검해 가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겠다.

#다른 종교의 선거제도와 문화

개신교와 가톨릭 등 기독교에 선거와 민주주의 바람이 분 것은 오래됐다. 기독교에서는 선거의 기독교적 기원을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에서 찾고 있다.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뽑는데 제비를 뽑아 선택했다는 구절인데 이를 제비뽑기 선출방법에 원용하기도 하고 '제비뽑다'라는 희랍어의 의미가 표를 주었다(give votes)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개신교는 칼빈이 창시한 장로교와 웨슬리가 창시한 감리교로 대별될 수 있으나 수많은 분파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번창하는 교파가 장로교다. 창시자 칼빈은 공화주의자로서 임기제로 선출되는 장로와 목사 등으로 구성되는 당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장로의 선출은 이러한 예에 따르고 있으나 도입초기 신도가 적은 사정을 감안해 장로의 임기를 종신제로 해왔다. 장로교 각 교단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된다.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은 각 교회의 목사, 장로로 이루어지는 노회 회원들로서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식은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는 2001년 그 동안 직선제의 피해를 감안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금년에 직선제로 복귀하자는 안이 제출됐으나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돼 제비뽑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선출되는 직책에 합당한 조건들을 세우고 그 조건에 맞는 이들이 제비뽑아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직선제를 제비뽑기로 바꾸고 오늘까지 유지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선거문화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직선제는 금권선거와 지역감정을 비롯한 연고주의 등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어느 교단의 목사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교단선거에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정과 정열을 낭비했습니다. 세상을 정화해야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는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장로교는 장로의 종신제를 세계적 추세인 임기제로 바꾸는 문제,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조화시켜 발전적인 선거제도를 만드는 문제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가톨릭은 1962~1965년 소집된 바티칸 제2공회에서 사회변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판단 책임 등을 결정함으로써 가톨릭이 반민주적이라는 통념을 바꾸고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세를 확장해 나갔다.

가톨릭의 조직은 피라미드 계층조직으로 유명하다.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가톨릭의 수장이며 무오류성이 있다. 교황은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외부로부터 격리된 시스타나 성당에 모여 3분의 2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 투표하는 '콘클라베'라고 하는 선거로 선출된다. 주교와 사제 그리고 부제의 3개 계층으로 이루어진 교단의 최고지위는 교황에 의해 임명된다. 추기경은 고위 성직자나 세계의 중요한 교구의 주교 중에서 교황이 임명한다. 가톨릭의 사제는 남성으로서 신학교에서 사제 서품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 받은 신학생들이 시종직, 독서직 및 부제를 거쳐 주교에게 성품성사를 받아서 임명된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직자는 대중선거에 의하지 않고 강도 높은 교육과 자격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기독교 선거 기원은 성경 '사도행전'에서 찾아
불교 선거문화 공화주의 전통으로 회귀해야

한편 가톨릭의 평신도회는 선거에 의해 조직되며 1968년 전국평신도로 구성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생겨 '내 탓이오 운동'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등의 캠페인을 벌여 기독교 정신을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가톨릭은 근대화와 민주화의 압력을 직선제 등의 세속주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대신 교육 강화, 평신도회 활성화 그리고 재정 투명화 등의 방법으로 적응했다. 결과적으로 교세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직선제를 도입해 초기에는 신도 동원 효과 등을 보았으나 금권선거, 위계질서 약화, 교육부실 등의 부작용을 낳아 개신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가져왔고 신도 숫자 감소 등의 역작용을 가져왔던 것이다.

#불교계의 선거제도와 문화

불교는 공화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승가의 운영도 공화주의 방법으로 운영돼 왔다. 불교에서 승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회의인 대중공사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일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산중공사는 산중의 암자 등에 살고 있는 모든 대중까지 참석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종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대규모의 공사이다.

현대에 도입된 불교계 선거는 크게 교구본사 주지 선거와 종회의원 선거 그리고 총무원장선거로 나눌 수 있다.

조계종에서 교구본사 주지는 교구에서 추대하면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교구본사 선거권을 가진 본사스님들이 산중총회에서 경선을 원칙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선거는 금품선거 등 각종 선거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왔고 급기야 2007년 10월 16일 MBC PD수첩에서 조계종의 비리와 주지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금권선거가 심도 있게 방영되기도 했다. 왜곡된 종교 편향적 보도라고 보지만 주지 선거제도가 낳은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각 교구에서 선거로 뽑은 선거인단이 선출해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종정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선거인단은 중앙종회 의원 81명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 종회에서 각 본사 마다 10인 씩 선출해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종회 의원은 23개 교구에서 각 2명씩, 해인사에서 3명, 그리고 직할교구 4명, 총 81명으로 구성된다.

태고종은 사설 사암 중심의 조직으로서 주지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스승에게서 제자로 물려받는 사자상승(師資相承)으로서 창건주의 의사를 존중해 임명된다. 총무원장은 종회의원(정수 49명)으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태고종에서도 주지 임명에 따르는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금년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종회의원 추천 요건을 가지고 한 때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그 동안 불교계에서 나타난 선거문화는 여비 문화와 숙식 제공과 금품 수수 및 이해관계로 얽힌 선거관행 등은 세속선거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전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극복돼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현 불교계 선거제도 문제점 및 개선점

이러한 조계종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그것이 불교의 철학과 전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세속의 선거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결과라고 본다. 승가와 재가불자를 막론하고 현행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정리해서 통합하며 지도자를 충원해 주고 당선된 지도자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종단의 선거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부추겼고 그렇게 선출된 지도자의 권위와 정통성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 선거가 세속의 금권, 타락 파벌정치를 모방하기 때문이며 준법정신과 건전한 시민정신,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월남전 반대의 열기와 함께 대학에 민주화 바람이 불 때, 하버드 대학의 헌팅턴 교수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들은 '불안정한 민주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민주주의의 확대에 바람직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때 보스턴 대학의 존 실버 총장은 공개적으로 "대학은 민주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학이 민주적이 될수록 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보스턴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대학의 질을 높였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바람으로 대학총장 직선제가 실시됐지만 미국에서 대학총장은 직선이 아니라 선출위원회를 구성해 뽑는다.

대학이 일반사회와 다른 것처럼 종교는 철학과 운영방식이 세속과 달라야 한다. 개신교는 직선제 등 세속의 민주화를 따라했지만 역풍을 맞았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육과 선출제도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평신도의 역할을 늘리고 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은 가톨릭 교세의 지속적인 확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던 것이다. 필자는 불교의 선거제도와 문화를 개혁하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통을 돌아보고 가톨릭으로부터 교훈을 배울 것을 제의한다.

구체적으로 현행제도에서 주지 선출 제도의 폐해를 줄이는 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이며 종회의원 선출과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선출을 별도로 하는 중복과 부작용을 개선하는 동시에 교단운영에서 사부대중의 고른 참여와 재정투명화가 함께 요구된다.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 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 수련기간 : 2박 3일 ■ 수련인원 : 1~3명 ■ 수련비 : 150만원 ■ 개강일 : 2009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스님이 직접 강의 하고 스님들만 교육 받는 유일한 곳

많은 스님들께서 최면 교육에 비싼 비용과 무리한 시간을 내어 최면을 수련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스님된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일년만 저렴한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스님들이 최면을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최면 강좌를 열겠다고 그것이 소승의 의무라고 생각 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벌써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150여분의 스님들이 미흡한 제 강좌를 들으시고 최면을 시술 하시어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소식에는 스님들께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정락 스님이 강의를 너무 쉽고 편하게 가르쳐준 덕분이라는 그말엔 송구 스러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소승은 오히려 150여 스님들께 감사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말을 제 가슴에 새길뿐입니다. 이제 약속의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특별 개인 지도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세미나와 수련회에만 열중하여 유마 최면 연구소 정회원님들께 고난이도 테크닉 전수와 각 회원님들이 삼생의 시공을 넘나드는 자기 최면 완성을 돕는데 진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대상 최면 교육의 명가

일대일식 개인 지도

≫ 많이 하는 질문

질문 1) 정말 2박 3일에 최면을 시술할 수 있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답)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소승에게 그동안 150여 스님들이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시간을 낼 수 없고, 신분 노출을 꺼리시는 30여 스님들께서 개인적으로 2박 3일 수련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있게 최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내에 완벽하게 시술 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노하우라 할까요? 비법이라 할까요? 같은말 인가요? 하~ 하~ 하

질문 2) 2박 3일 교육이 끝나면 끝입니까? 제가 둔해서 한번 교육에 최면 시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 걱정 하지 마십시오.
2박 3일 교육을 받으시면 시술을 하지 못할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 한다면 언제든지 무료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승에게서 공부하신 스님이 현실에서 최면을 활용하지 못하신다면 제 성질이 그런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책임져 드립니다.

질문 3) 이론 공부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답)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최면 강좌를 시작하기 전 많이 고심한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학문과 기능? 학문과 기능이라? 그리고 고심끝에 내린 결론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자입니다.
학문의 심오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자면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스님들께서 불사와 포교를 하시는데 몇 년의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했고요, 자동차를 운전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깊은 학문이 필요 없듯이 최면 시술을 하는데도 깊은 학문적 이해는 꼭 필요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기능면에 치중 하였습니다. 학문적 욕구가 절실한 스님들이 계시면 서점에 가면 최면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면 이라는 검색어만 쳐도 최면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자료가 있어 기능이 완벽하면 학문에 대한 갈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승은 최면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더불어 완벽한 최면 테크닉에 중점을 두고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마 최면 연구소 연락 전화 032)349-0666 수련원 : 경기, 안성시 금강면 한운리 산 171번지 홈페이지 http:www.yuma119.com

최고 지도자 선출법에 각 종교별 특징 담겨 있네

종정 종법사 교령 등 최고 지도자 명칭 다양
가톨릭 '콘클라베' 유명… 원불교 남녀평등 구현

각 종교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0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더 나아가 한국 종교계를 대표할 지도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종교 국가인 한국은 많은 종교들이 있으며 최고 지도자들은 종교별로 각기 특이한 이름으로 불린다. 불교계는 '종정', 원불교는 '종법사', 천도교는 '교령', 증산도는 '종도사'로 부른다. 유교는 '성균관장'이며, 대종교는 '총전교'이다.

종교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세속인에게는 그런 명칭도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들은 각각의 체제를 갖고 부처님의 대기설법과 같이 사회에서 중생들을 밝은 길로 이끌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곁에서 각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추대 또는 선출될까?











❶불교계 청정선거운동. ❷청정선거 종교지도자 대국민 호소. ❸유교. ❹한기총 공명선거운동. ❺콘클라베.

불교

한국불교를 이루고 있는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등 각 종단의 최고위직은 '종정'이다. 하지만 종단 업무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총무원장'을 들 수 있다.

'종정'은 불교계에서 정신적인 최고지도자로 불법의 상징성이 크게 부각된다.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종헌종법에는 종정으로 세수(세속의 나이)가 65세를 넘어야 하고 법랍(출가 후 나이)도 4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계 대종사의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종도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워야 한다.

'종정'은 전임 종정 임기만료 3개월 전, 원로회의 의원 전원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추대토록 하고 있다.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조계종의 경우 1962년 통합종단 이후 지금까지 9명의 대종사가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다. 이 가운데 고암, 성철, 법전 스님은 연임했다.

태고종은 현재 종정인 혜초 스님까지 총 10명의 종정을 배출했고 역시 5년 임기제를 택하고 있다. 반면 천태종은 종신제로 현재 도용 스님이 종정이다. 진각종은 총인이라 부르며 혜일 정사가 총인이 맡고 있다.

추대 형식을 띠는 '종정'과 달리 종단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원장의 경우 각 종단은 대부분 선거 형식을 통해 선출한다.

조계종의 경우 중앙종회의원 81명과 직할교구를 포함한 25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한 250명의 선거인단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태고종은 중앙종회의원 49명의 투표를 통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천태종은 종정중심제로 총무원장 및 종회의장, 감사원장 등을 종정이 지명하고, 종의회에서 임명을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진각종의 경우는 종의회에서 통리원장을 선출하는데 통리원장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행계(行階) 4급 인사(印師) 이상의 스승 모두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점이 특이하다.

가톨릭

가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상하의 엄격한 계급체계가 특징이다. 성직에는 꼭지점인 교황에 이어 추기경-대주교-교구장 주교-보좌 주교(승계권 없음)-부주교(유고 시 교구장 승계)-명예 고위 성직자(문시뇰)-교황 명예 전속 사제(문시뇰)-주임신부-신부-보좌 신부-부제 등이 있다. 성직 외에 수녀와 수사 등 수도자 또한 존재한다.

가톨릭은 최고 수장인 교황을 추대하는 과정인 '콘클라베(conclave)'로 유명하다. '열쇠로 잠근 방(lockable room)'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콘클라베'는 교황 클레멘스 4세가 선종한 후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비테르보(Viterbo)' 선거에서 유래됐다.

비테르보 선거는 1268년 시작돼 1271년까지 3년 가까이 진행됐다. 이때 비테르보 시민들은 끝없는 기다림에 지쳐, 좀 더 지혜롭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며 추기경들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가뒀고 당시 선출된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이 방법을 1274년 제도화했다.

전통적으로 콘클라베의 투표 결과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틴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그렇지 않으면 검은 연기를 피운다.

각 나라의 가톨릭과 교황청 각 관청 주요요직을 담당하는 추기경은 교황에 의해 '서임' 받는다. 서임은 추기원회의에서 교황이 교령으로 공포하며 권한은 교황에 국한된다.

추기경은 교황을 직접 보필하면서 세계 12억 명의 가톨릭 신자를 직접 통치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의 비밀회의 콘클라베에 참석해 교황을 뽑는 선거권과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도 갖는다. 단, 콘클라베에 참석할 수 있는 추기경은 8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신교

개신교는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한다. 이중 한국기독교총연합(NCCK)은 63개 교단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개신교를 대표하는 최대 단체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등 여러 교단과 교파의 연합체로 실질적인 업무관장은 대표회장이 맡는다.

현재 명예회장이 12명, 대표회장 1명, 공동회장 23명 등이 있으며, 각 회장 및 임원은 각 교파 총회장을 역임하거나 재임하고 있다.

이중 대표회장 직을 비롯해 각 장 및 인사의 선출은 불교계의 종회 역할을 하는 실행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각 교단별로 비례해 선출된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선출은 교단별로 다르지만 선거기탁금제를 운영해 후보난립 등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장 합동 등에서는 파벌 및 갈등을 막기 위해 총회장·부총회장을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는 불교계의 종정 역할인 '종법사'로 교단 최상위 교화단인 정수위단 추천을 통해 최고결의기관인 수위단회에서 선출된다.

정수위단은 74세 이하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대된 후보는 수위단회 재적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종법사로 당선된다.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선출된 종법사는 세속의 의회격인 중앙교의회에서 추대한다. 종법사는 임기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종법사 외 종법사의 명을 받아 중앙집행기관인 중앙총부 교정원을 이끄는 교단의 행정수반인 교정원장도 있다. 불교계의 총무원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원불교는 지도자 선출 등에 남녀평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종교 중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위단회가 17명의 남자교도와 17명의 여자교도로 구성되며 2003년 이혜정 前 교정원장의 취임이 종교계 첫 여성 지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현재는 이성택 교정원장 체제다.

유교

한국 유림은 총회본부 개념의 성균관에서 성균관장이 유교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 향교에는 향교 대표자 '전교'가 있다.

성균관장은 성균관과 전국 234개 향교를 대표하며 전체 유림을 이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관장 선출은 대의원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며, 최고의결기구인 성균관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전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성현들에게 분향을 하고, 춘추로 석전을 올리며 유교의 성인을 추모하는 제향 기능을 담당한다. 또, 전교를 보좌해 분향과 석전을 진행하는 장의가 있는데 장의는 6개 부서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전국 조직으로 유교인의 단체인 유도회(儒道會)도 있다. 중앙에는 유도회총본부가 있으며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현재 유교는 성균관재단과 유도회와의 통합이 진행 중에 있다.

천도교

천도교는 중의제(衆議制)에 의한 민주적 중앙집권체제가 가장 눈에 띈다.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는 '교령'으로 3년마다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다. 교령의 임기 또한 3년 단임제로 260여 전국대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령은 천도교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종무원을 담당하는 종무원장이 있으나 교령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교령을 비롯해 종의회의원·중앙감사 등 주요 교직자는 모두 3년마다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에서 선출되며 종무원장은 교령이 지목, 대의원회 인준으로 처리된다. '교령'은 도령, 대도령으로 불렸으나 해방 직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김동환 교령이 이끌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검색창에 붓다쇼핑 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 www.bori.biz
창립 35주년 기념 불교달력 특별할인!
동진기획 · 붓다쇼핑
그곳은 불심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할인가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대량구매시 전화주십시요
금지경전 3권과 주머니형태
할인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할인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할인가 바림등(8cm) @3,300원(96개이상)
비단접등 12cm @2700원(100개이상)
집게형태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12절 1,000원 (100부이상)
최상의 지질과 최고의 품질로 보답합니다.
• 표 지 – 한국제지 250g/㎡ 아트지
• 내 지 – 한국제지 180g/㎡ 스노우지
• 제 본 – 카피어랜드 트윈스프링(국산)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할인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할인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밀대(1Box 70개) @77,000원
파라핀양초(1.8ℓ 12병) @50,000원
할인가 주목 백팔주 @10,000원(10개이상)
할인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할인가 예불천수경 @1,800원(100권이상)
할인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인연설 (74×40cm)
할인가 고급다포 @4,200원(1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 회색 : 76×39.5cm /흰색 : 74×39.5cm
할인가 일반타올 다포 @2,000원(100장이상)
칼라프린트지 @12,000원(500장)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
• 12절 (25.8×26.5㎝)
• 두달 (25.8×26.5㎝)
• 차걸이 (9.0×15.5㎝)
• 미니 (8.9× 9.5㎝)
• 다이어리 (9.5×13.4㎝)
• 탁상 (26.2×19.0㎝)
• 한지 (30.0×45.5㎝)
공장→사찰 직거래판매
생산자 → 도매상 → 불교상회 → 사찰
7호 가람의 향기
8호 관음도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노동 해도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히…

생활선 노동선

선(禪)에선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 모든 생활 전체를 선이라고 역설하는데, 수행상으로는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속에서의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대인국선(大忍國仙) 선사에게 그의 제자인 양관(良寬)이 물었다.

"스승님의 좌우명은 어떤 것입니까?"

국선 선사가 말했다.

"하나에 돌을 지고 둘에 흙을 나른다."

일본 조동종의 개조인 도원(道元, 1200~1253) 선사의 뜻을 이어받은 국선 선사는 경전이나 조사어록에 관한 연구보다 노동을 귀중히 여기며 참선과 탁발행각을 하는 등 실제적인 삶을 통한 깨달음에 더 큰 비중을 뒀다. 이론보다 실천을 통한 수행을 강조한 그의 가풍이 '하나에 돌을 지고 둘에 흙을 나른다'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선종인 조동종은 물론 한국 조계종의 뿌리인 임제종을 비롯한 모든 선종의 전통은 일상 그대로가 깨달음의 생활임을 강조하는 생활선(生活禪), 일상선(日常禪), 노동선(勞動禪)을 표방하는 공통점이 있다.

"선사님도 도(道)를 닦을 때 공을 들이십니까?"

"아무렴."

"어떻게 하십니까?"

"배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지…."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르다."

율사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그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온갖 삿된 망상을 하며, 잠잘 때도 잠만 자지 않고 꿈속에서 온갖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어떤 것이 삿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입니까?"

"마음이 물건을 쫓으면 삿된 것이고, 물건이 마음을 쫓으면 바른 것이니라."

이 말에 율사는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 "마음이 물건을 쫓으면 삿된 것이고, 물건이 마음을 쫓으면 바른 것이니라"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야 깨달음의 생활

실제로 6조 혜능(慧能; 638~713) 선사로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조사선(祖師禪)은 좌선 중심에서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즉, 일상 중에 마음공부를 하는 생활선을 표방했다. 특히 혜능 선사의 사상을 계승한 마조(馬祖) 선사는 이른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고 주장하며, 일상생활의 견문각지(見聞覺知)를 떠나지 않고 해탈하는 생활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와 관련,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은 "혜능 선사로부터 비롯된 남종선 가풍은 훗날 생활이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생활인 생활선으로 발전하게 된다"면서 "이는 조용한 곳에 앉아 좌선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서 일하며 일체 경계를 대하는 가운데서 경계에 흔들림이 없는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경지를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는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가 대주(大珠) 선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선(禪)은 중생과 부처,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보지 않음으로써 '배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는' 생활 속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자연스럽고도 욕심없는 생활을 하되,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이나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분별심이 없다. 그야말로 무심(분별 망상이 없는 무의식적 자각상태)의 삶을 통해 더 이상 그 무엇을 원하거나 구함이 없는 행복한 삶이다.

#매사에 깨어있으면서 자신을 살펴야

어느 때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여쭸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하루를 앉았다가 섰다가 걷기도 하다가 눕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이 지내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지마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매사에 늘 깨어 있고, 자신을 잘 알며 모든 일을 원만하게 살피며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똑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6조 혜능 선사는 "일체 선악의 환경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坐)라 하고,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禪)이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울력을 통해 동중선(動中禪)을 닦는 송광사 학인들.

이 문답에서도 수행은 삶과 결코 유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심과 집착을 버린 무심과 바른 마음챙김(알아차림) 즉 '정념(正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부처님은 늘 깨어있는 당신을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할 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의도를 정념으로 살펴서 사전에 조절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다거나 습관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다. 감정적으로나 육근에 끄달려 하시는 일이 없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사셨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사셨지만 하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참된 진리는 삶속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에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이다. 오히려 진리를 삶과 동떨어진 곳에서 찾는 것이 큰 병폐로 지적돼 왔다. 문제는 삶속에서의 진지한 실천이 관건일 뿐이다. 그래서 조사선은 깨달음을 '불 길고 나무 나르는' 자질구레한 일상사에까지 연결시키고 노동과 수행이 둘이 아닌 재가 수행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조사선은 노동과 일상생활상의 모든 잡무를 통해서 본래심(平常心)을 전개하는 동중(動中)의 공부"라고 정의했다. 이는 동산법문을 펼친 5조 홍인(弘忍; 601~674) 스님이 처음 4조 도신(道信; 580~651) 스님의 문하에서 수행할 때 낮에는 노동에 힘쓰고 밤에는 좌선에 힘썼다고 전하는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육조단경(六祖壇經)>에는 홍인 스님 문하에서 행자였던 6조 혜능 스님이 디딜방아를 찧는 노동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스님들의 노동은 중국 당대 조사선의 형성과 더불어 단순한 일이 아닌 참선 수행의 차원으로 새롭게 전개됐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노동과 수행의 통일은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선사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고 한 법문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환주청규(幻住淸規)>는 이러한 수행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을 할 때나 좌선을 할 때나 동정의 두 모습이 여여(如如)하게 같아야 하며 근원적인 본래심인 당체(當體)는 일체의 경계를 지양(초연)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종일 노동을 했지만, 아직 노동하지 않은 것처럼 여여하도록 해야 한다."

송대에 간화선을 확립한 대혜 선사도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는 "불법은 나날이 쓰는 곳에 있다. 걷고 앉고 머물고 눕는 곳에도 있고, 차 마시고 밥먹는 곳에도 있고, 서로 말하고 묻는 곳에도 있고, 행위하고 동작하는 데도 있다"(서장)고 했다.

이처럼 일상생활 그 자체에서 늘 선심(禪心)을 잃지 않는 것이 참선의 핵심이다. 선에서는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의 모든 생활 전체를 선이라고 역설하는데, 수행상으로는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속에서의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무심히 몰두 해야

그러나 움직이는 가운데 평상심으로 노동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 조직내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다가오는 크고 작은 경계 등등. 복잡한 업무나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단 긍정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되, 일할 때는 일과 하나가 돼 몰입하는 것이 좋다.

월호 스님은 "지금 여기의 이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에 전신으로써 완전히 뛰어드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체험"이라며 "한 가지 일,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소멸돼 절대의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무심형 간화(無心形看話)'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월호 스님은 "무심형 간화는 처음부터 화두를 챙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뿐"이라며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좌선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그저 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일을 하되 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이 차분히 가라앉아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무아지경(無我之境)이 돼 마주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생활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선(禪)에 1700 공안(公案)이 있듯 순간순간 삶속에서 부딪치는 좋고 나쁜 모든 경계 하나하나가 공안이다. 그러니 늘 평상심과 무심으로 욕심 없이 사는 것은 선(禪)과 하나된 의미 있는 삶인 동시에 원하지 않아도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수행과정이 아닐 수 없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buddhapia.com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고 의탁하지 않는게 선 수행

유마경 불이선(不二禪)

몸은 무상해 무력하고 썩게 돼 믿을 것이 못 된다. 또한 고뇌의 원인이며 갖가지 병이 모이는 곳이라 지혜에 밝은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수행과 생활이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수행은 실참이고 생활은 연습'이라 표현합니다. 실참이란 삶의 핵심이고 연습이란 보조임을 뜻하는데, 이것은 수행을 위해서 생활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고의식이 생겼을까요? 인생무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까닭입니다. 만약 인생무상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수행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법신(法身)과 계합한 자재(自在)인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행이란 실참의 생활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불이좌선(不二坐禪) 또는 불이선(不二禪)이라 표현하며, 색신(色身)의 무상(無常)을 체득하고 법신과 계합(契合)하는 실참생활을 '불이선 수행' 또는 '생활선 수행'이라 표현합니다.

공(空)! 공을 찾아 예부터 수없이 많은 수행자가 눈빛을 밝히고, 눈빛이 가리며, 눈빛에 속으면서 지옥과 천당을 왕래하는 기분으로 생사와 열반을 시시때때로 들락거립니다. 왜 공을 찾을까요? 공을 진정한 자신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진정한 진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공을 현실세계의 번뇌를 떠난 열반세계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찾아보죠! 어떻게 찾지? 막상 찾아 나서니 공으로 인식했던 그 무엇 하나 공을 찾는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생활을 떠나서 환상의 공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상이 아닌 진정한 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 무상함을 확실히 체득했을 때 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구마라습 대사는 <유마경>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무상의 체득이 바로 공문(空門)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왜 인생이 무상한지 유마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공부해보죠!

"유마 대사가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문병을 왔습니다. 유마 대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에 병이 있음을 예로 들어 인생무상의 이치를 일깨웁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몸은 무상하여 무력하고 썩게 되어 믿을 것이 못됩니다. 또한 고뇌의 원인이며 갖가지 병이 모이는 곳이라 지혜에 밝은 사람은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물방울 같아 만질 수 없고, 이 몸은 거품과 같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 갈애로부터 생겼고, 이 몸은 파초와 같아 남는 그 무엇 없으며, 이 몸은 허깨비와 같아 잘못된 생각으로 생겨났고, 이 몸은 꿈과 같아 허망한 생각일 뿐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 업연에 따라 나타나고,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 인연 따라 생겨나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 변화하며 사라지고, 이 몸은 번개와 같아 생각마다 바뀝니다.' "

(구마라즙 역, <유마경> '방편품'에서)



북경대에서 '승조의 <유마경> 불이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암 스님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참선과 다도, 요가, 태극권 등 방편을 통해 불자들에게 불이선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은 정암 스님의 제자가 중국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차훈명상(차를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조복, 내적인 성숙을 기대하는 명상법)을 지도하는 모습.

이와 같이 봤을 때 공문에 들어가는 수행자는 법신이 색신(色身)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 이외 나의 무엇이 있지? 습관적으로 몸을 자기 생명의 중심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온 결과 막상 몸을 내려놓으면 그 무엇도 붙잡을 게 없습니다. 성인은 붙잡을 게 없는데서 자유롭게 소요합니다. 그러나 범부는 붙잡을 게 없는데서 갈팡질팡 불안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현실세계를 떠나 열반적정의 이상세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아 나설수록 더욱 구속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현실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만 두고 마음만 열반세계에 가겠노라 외치면 가능할까요? 죽어 시체를 남긴 후엔 몰라도!

유마 대사께서 몸이 무상함을 강조하신 것은 빨리 죽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것과 몸이 있고 없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탈이란 몸과 마음의 근원인 법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리(道理)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미혹에 빠져 있다는 것은 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신(法身)은 곧 불성(佛性)입니다. 법신과 계합된 삶에서 생사로부터 초연한 해탈인생이 실현됩니다. 어떻게 하면 법신과 계합될 수 있는지 유마 대사의 가르침과 상응하면서 공부하죠!

"선지식들이여! 이런 허망한 몸을 멀리하고 불신(佛身)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곧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법신은 무량한 공덕과 지혜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자비희사(慈悲喜捨)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보시, 지계, 인욕, 유화(柔和), 근행(勤行), 정진, 선정(禪定), 해탈, 삼매(三昧), 다문(多聞), 지혜 등 모든 바라밀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방편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육신통(六神通)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삼명(三明)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에서 발현합니다. 법신은 지관(止觀)에서 발현합니다."

(구마라즙 역 <유마경> '방편품'에서)

'인생무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생활임을 알 수 있다

유마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어떤 수행법으로 정진해도 법신과 계합될 수 있다는 이치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수행정신으로 수행법과 상응하느냐에 따라 법신을 성취할 수 있고 또는 색신에 미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이치처럼!

문제는 수행자 자신입니다. 수행자가 어떤 수행정신으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그가 닦고 있는 수행법과 수행력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유가 되고 세상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인 수행정신이 관건입니다.

<유마경>에서 밝히고 있는 불이좌선의 수행정신을 승조 대사의 주석과 함께 공부해보죠!

#마음 · 몸이 삼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좌선

"대저 법신의 좌선이란 형(形)과 신(神)이 모두 멸해서 도(道)가 상경(常境)과 끊겨 보거나 듣는 걸로 그것을 알 수 없다. 어찌 몸을 다시 삼계에 나타내어 의(意)를 닦는 정(定)을 만든다 하겠는가?"

#멸정에서 모든 위의 나타내는 것이 좌선

"작은 마음으로 선 수행하는 선지식은 멸진정(滅盡定)에 들면 몸이 마치 고목처럼 되어 운용의 능력이 없다. 큰마음으로 선 수행하는 선지식, 즉 대사(大士)가 실상정(實相定)에 들면 심지(心智)가 영멸(永滅)하여 몸이 우주에 충만한 기(氣)에 순응하여 변화하니 상응하고 모임에 국한된 곳이 없다."

#도법 버리지 않고 범부사 나타내는 것이 좌선

"작은 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생사의 관문에 막혀 능히 화광(和光: 진리의 빛을 숨기고 중생을 교화함)하지 못한다. 큰 마음으로 선 수행하는 선지식은 미악(美惡)에 제지(齊旨)하고 도속(道俗)이 일관(一貫)하여 온 종일 범부(凡夫)이면서 온 종일 도법(道法)과 함께한다."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는 것이 좌선

"몸은 환상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마음이 어찌 그 안에 머물겠는가! 만물은 모두 허구인데 마음이 어찌 그러한 밖에 있겠는가! 작은 마음으로 선 수행하는 선지식은 잡념을 방지하기 위해 마음을 안에 묶어둔다. 어리석음으로 선 수행 자체를 모르는 범부는 많이 구하기에 생각이 밖으로 움직인다. 큰마음으로 선 수행하는 선지식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기에 안과 밖 그 무엇에도 의탁하는 바 없다."

#제견 부동하며 삼십칠도품 수행하는 것이 좌선

"대저 망견(妄見)으로 보는 것을 삼는 자는 그러한 망견을 없애고자 도품(道品)을 닦는다. 그러나 큰마음으로 선수행하는 선지식은 모든 망견의 진성(眞性)을 관(觀)함이 바로 도품이다."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

"번뇌의 진성(眞性)이 바로 열반이니 지혜의 힘이 강한 수행자는 번뇌를 관(觀)하면 바로 열반에 들게 된다. 번뇌가 끊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평등한 수행법으로 좌선하는 것을 부처님이 인가하신 바인데, 어찌 사리불 당신처럼 앉아서 번뇌가 끊길 때를 기다리겠는가!"

(승조 지음 <유마경주> '제자품'에서)

여기에서 현대 사회의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가 특히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심신불이(心身不二)와 스님과 재가가 둘이 아닌 승속불이(僧俗不二)의 불이선경(不二禪境)에 노닐 때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닌 생활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수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유마 대사처럼 세상사에 함께 하면서도 세상사로부터 초연한 자재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과 도량 그리고 선지식이 많습니다. 평소생활에서 겸허한 마음, 무상의 체득, 법신과 계합된 수행정신이 이어지면 처처가 자신의 수행을 돕는 선지식이며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비행입니다.

정암 스님
유마경 수행카페
cafe.daum.net/yumagyeong



현대불교신문 15th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깨달음은 헤아려 볼 수 없고 해탈은 불가사의

禪공부의 마음가짐

선(禪)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의 방법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공부를 이뤄주는 원동력이 된다.



참선공부의 핵심은 간절하고 진실한 구도심으로 하심 · 공경하며 참된 선지식을 만나는데 있다. 사진은 3보1배로 참회와 발심을 새롭게 하는 재가불자들.

순수한 바람 가지고 좋은 선지식 만나 의지한다면 선 공부의 절반은 성공한 것

#참으로 부처님의 길을 가려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해탈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참으로 범부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처의 삶을 원하는가? 선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깨달아 해탈하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워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 현재의 삶을 벗어나 깨달음과 해탈을 향하는 선공부는 할 수 없다. 삶과 죽음에서 해탈하는 이 공부를 하려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원해야 한다. 불교 공부란 지금 온갖 사물들과 온갖 일들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한 범부의 삶에서 멀어지고, 해탈해 자유로운 부처의 삶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깨달음과 해탈은 진정으로 원하고 참으로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응답이다. 깨달음과 해탈은 자신이 방법과 노력을 통해 성취해내는 유위(有爲)의 일이 아니다. 깨달음과 해탈은 저 가슴 깊이에서 진실로 원하는 자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위(無爲)의 일이다. 그러므로 선공부에서 방법은 단순히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참으로 공부를 이루어주는 힘은 자신의 진실한 원(願)의 힘이다. 참으로 바란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자신이 참으로 깨달음과 해탈을 원하고 진실로 부처님이 가신 길을 자신도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정신적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전한 해결책을 갈구해야 비로소 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정신적인 혁명인데,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면서 현재에 주저앉아 머물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일깨워야 한다. 석가모니가 일부러 출가해 고난을 자초한 것도 안락한 중생의 삶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방편이었다.

깨달아 해탈하기를 바라면서도 아직 막혀 있다면, 자신이 할 일을 마치지 못한 사람임을 늘 상기해야 한다. 마치 큰 돈을 빚지고 갚지 못한 사람처럼 늘 부담을 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온다. 공부를 이루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바로 이러한 내적 요구이다.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한때 불교에 관심을 갖더라도 결국 세속적 욕구를 따라가게 된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라면, 깨달아 해탈해야 한다는 요구는 필생의 사업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달아 해탈한다는 필생의 사업을 짊어진 사람이다. 이 필생의 사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부담을 늘 지고 있는 사람이 곧 선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뜻이 있다면 선지식을 찾아야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필생의 사업에 뜻을 둔 사람이라면, 먼저 이 사업을 도와줄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가장 큰 행운은 이 사업을 이미 마친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다. 좋은 선지식을 만나 그에게 의지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좋은 선지식을 만나는 올바른 길은 먼저 자신이 좋은 공부인이 되는 것이다. 좋은 공부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가슴 속 깊이 부처님과 조사(祖師)를 믿고, 자신도 그들처럼 깨달아 해탈하고자 하는 원(願)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세속의 어떤 일 보다도 이 공부를 우선으로 삼는 사람이며, 세속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공부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며, 세속의 어떤 일 보다도 이 공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며, 세속의 일과 이 공부를 놓고 손익을 저울질하지 않고 이유 없이 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속의 일과 공부를 놓고 어느 쪽이 더 이익일까를 따지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둘째, 좋은 공부인은 상대를 헤아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본다. 공부란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바르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면 바르고 진실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바르고 진실한 자세가 없다면 바르고 진실한 결과도 없다. 자신이 바르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이 아무런 삿된 욕심 없이 참으로 순수하게 오로지 깨달아 해탈할 것만 원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한다. 바르고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잠시 삿된 가르침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가게 된다. 자신의 순수함은 오직 자신만이 더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좋은 공부인은 자신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선지식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선지식의 바른 법을 보려고 할 뿐이다. 그에게 바른 법이 있다면 남녀노소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스승으로 삼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좋은 공부인의 자세이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모습을 헤아려 선지식을 판단하려 하면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공부인 자신이 진실하고 삿된 욕심이 없다면 선지식의 순수하고 바른 법이 보일 것이고, 공부인 자신이 여러 가지 잡다한 세속적 관심에 의지하고 있다면 선지식의 세속적인 면만 보일 것이다. 이처럼 공부인 자신의 내면이 곧 상됨과 바름을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 공부인의 눈이 오직 진리만 보려고 한다면, 마치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어지러운 경계 속에서 경계에 물들지 않고 법을 보게 될 것이다. 동일한 경치를 두고도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이고 추함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추함이 보이는 것처럼, 오로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결국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넷째, 좋은 공부인은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깨달음을 욕심내지는 않는다. 깨달음을 원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지만, 깨달음을 얻으려 욕심을 내는 것은 삿된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를 뿐이지만, 삿된 마음은 욕심은 내어 깨달음을 얻을 궁리만 한다. 순수한 마음은 선지식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를 뿐이지만, 삿된 마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느낌이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른다. 선지식을 믿고 그 가르침만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우주와 하나가 될 것이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삿된 공부를 조심하라

순수한 바람을 가지고 좋은 선지식을 만나 의지하였다면 공부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 공부를 일생의 일로 삼아 물러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깨달아 해탈할 것이다. 다만 피해야 할 삿된 길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삿된 공부인가? 불법이라는 어떤 경계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삿된 공부이다.

첫째, 법의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이다. 경전이나 선지식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열심히 궁리해 이해한 것이 곧 법의 참된 모습이라고 여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법의 모습을 그려서 나타내고 앞뒤가 맞는 이치를 말하는 것을 공부로 삼고 있지만, 이들은 다만 자신의 분별망상 속에서 헛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깨달음은 헤아려 볼 수 없고 해탈은 불가사의하다. 아무리 그럴 듯이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해일 뿐이지 깨달음도 해탈도 아니다. 그러므로 법은 무념(無念)이요 무상(無相)이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무슨 특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허망한 분별망상이 쉬어지는 것일 뿐, 따로 얻을 참된 실상은 없다. 보통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중도(中道)에 선 불자가 아니라 경계(境界)에 집착한 외도이다. 경전과 조사들이 늘 말씀하시듯이 법은 무엇을 얻거나 내버리는 취사선택의 길이 아니다.

셋째, 유무(有無)의 양쪽에 떨어지는 것이다. 불법은 불이법(不二法)이다. 있음과 없음 혹은 항상됨과 끊어짐의 둘을 나누는 이분법(二分法)은 범부나 외도의 법이지 부처님의 법은 아니다. 자나깨나 항상돼 변함없이 있는 경계에 머물러 있다든지, 언제나 텅비어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범부나 외도이다. 불도는 불이(不二)의 중도(中道)요 머묾 없는 무주(無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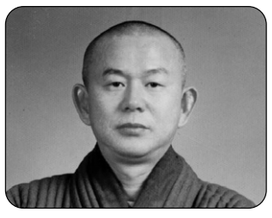
넷째, 방편을 오해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다. 경전과 어록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들의 말씀은 전부 병에 따라 약을 쓴 것들로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병이 나으면 건강은 본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고 약은 필요 없다. 체온이 낮으면 체온을 높이는 약을 쓰고 체온이 높으면 체온을 낮추는 약을 쓰지만, 체온을 높이는 것이 곧 건강이라거나 낮추는 것이 곧 건강이라고 오해하면 안된다. 방편은 어긋남을 바로잡는 기능을 할 뿐이지, 바른 길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바른 길은 본래 스스로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
무심선원 원장
www.mindfre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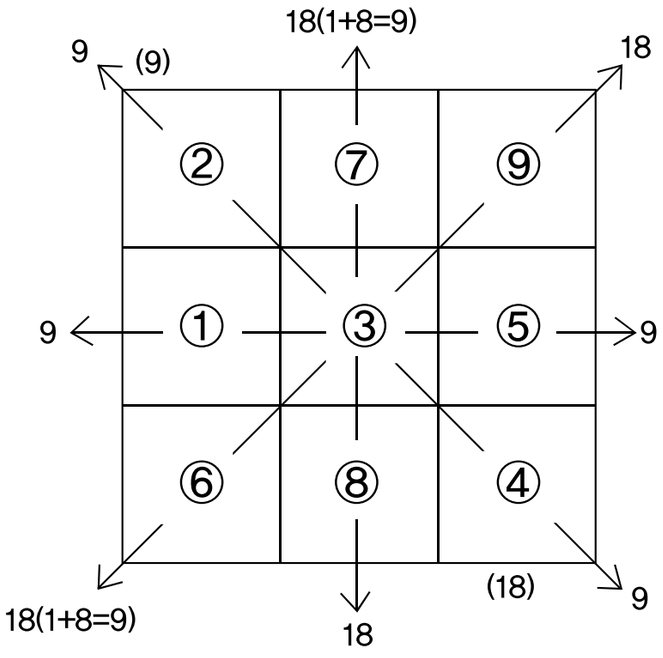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책임 10일 완성
저자 : 법화(정흥교)큰스님 직강!!



손으로 짚어 5분 안에 길흉, 일의 성패, 직업, 성격, 적성, 혼인, 부귀, 이사 및 방위, 신통법, 조상천도 등 다양한 명운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함.

개강 : 화·수요일반 …오후 2시~5시
목·금요일반 …오후 2시~5시
토·일요일반 …오후 1시~5시



[구단구궁 원리도]

◈ 년비결문구수가 ④ ③ ②가 나왔을 때 월·일·시의 해당 구궁문구수를 알아보는 그림

※월(月)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해당월(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일(日)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날 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결문구수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날 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비결문구수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날 짜	25	26	27	28	29	30						
비결문구수	③	④	⑤	⑥	⑦	⑧						

※시(時)운을 나타내는 비결문구수

비결문구수	②	⑦	⑨
해당 시간	19~21시	11~13시	15~17시
비결문구수	①	③	⑤
해당 시간	17~19시	21~23시	
비결문구수	⑥	⑧	④
해당 시간	09~11시	13~15시	23~01시

녹야선원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기도
- 소원성취 · 21일 ·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 49재 ·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성사
문의 서울)02)3663-8416
문경 1566-8426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1-465 -4426

공양주 보살,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54)777-2796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북 청송
054)874-222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스님 시봉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자
▷불심이 깊으신 40~50대 분
포천시
010-9269-8445

경산 삼성사에서
40대 전후 종무행정에
능력있는 사무장 모십니다
▷삼성사
053)856-1110
016-535-6680

불교마음수련원생 지도
면벽, 좌선, 예불, 명상다례 등을 통하여 심,신의 장애제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우울증, 자폐증, 만성피로 등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함.
(팔공산 묘적암 성인 합장)
011-9371-8080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감정 위주로
속성 지도해 드림
운명 전화상담 가능.
010-7443-3060
도통 합장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7160-273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도, 경험자 우대
011-9707-3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조계종 정진하는 비구 노승의 사원에서 신심있는 4-50대 공양주 구합 (급여는 면담 후 결정) 그리고 암자에 수행하며 관리운영 할 비구니 4-50대 스님에게 맡겨 볼 생각으로 찾고 있음.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경북
010-6353-1180

법당불사 인연
맺어주실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419-5852
011-9977-3934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1-1747-85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60세 비구승입니다 (조계종)
(서울시내)부처님 정법을
전할 수 있는 포교원.
5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100평 정도면 좋겠습니다.
010-8299-4747

도심 산속 암자에서
기도하며 토굴처럼 사실
노스님이나 비구니
스님 연락바랍니다
011-9707-3490

모집안내
1. 불교대학 학생모집(6개월 과정)
2. 위빠사나(자비명상)모집
3. 기도대학(초중고급반 모집-다라니 20단계)
4. 남자 행자모집(교육, 의료, 노후복지 혜택)
5. 공양주(교육, 의료, 노후복지 혜택)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산 73-10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극락사
02)434-1717

불교의식 무료강의
- 비구, 비구니, 예비승려 불교상용의식 (범음, 범패)
- 전문 염불의식 무료강의 (사물, 작법 일체 강의)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천리 521번지 도동 삼보사 대승불교 염불원 원장 보공 스님
052)254-2922
010-5030-6366
010-9413-245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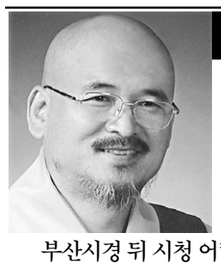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창간되어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유 불 도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싣습니다. 1년 구독료 10만원을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광고(1백만원)+수맥탐지봉(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과 회원증, 해설위원 위촉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자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9기생 모집을 위한 이름에 관한 모든 것
무료 공개 강의
10월 27일(화)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쉽고 확실한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명성산 자인사 (하종선-춘길-)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7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을 수행 할 수 없으므로 탈종을 공고함.
(불기 2552년 6월 30일 귀종단에 탈종공문을 접수 하였음)

불기 2553년 10월 5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를뿐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 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74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 만 5천 6백원)+수맥 탐지봉(1만 5천원)+휴대용 케이스(2만원) 무료 기증해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74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하루밤이면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저자가 직법 사인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8천 8백원) 무료 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www.kbs.cc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 수상 육효 자미두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확실하게 공부. 수료증 자격증

황금의 나라 미얀마… 불법 가득한 불국토

미얀마식 사원 정장 '맨발' … 천년전 수행터 남아
"갖고자 할 때 보다 주고자 할 때 더 없이 행복해"

좋은 차를 사고 딱 일주일,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딱 한 달, 고생 끝에 내 집 마련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선함과 설렘이 사라진다고 한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의 9월 21~26일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회가 개최된 미얀마에서 동행취재를 하며 진정한 행복과 뿌리 깊은 평화를 봤다. 인구 90%가 불교도인 미얀마는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다. 아침이면 곳곳에서 탁발 수행을 하는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나눔의 실천이 삶인 미얀마인들의 수행문화를 둘러봤다.

21일 9월 21일, 도토리를 가득 담은 다람쥐 볼처럼 터져나갈 듯 한 배낭을 짊어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났다. 지난밤부터 쏟아지는 가을비에 "비행기가 뜰 수 있으려나" 하는 하찮은 걱정거리부터 군부정권의 독재정치, 언론탄압,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자연재해 등으로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전국 각지 유명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자 스님과 관계자 4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발을 뗐다. 이륙한지 5분이 지났을까? 세차게 몰아치는 비구름 뚫고 올라온 높은 하늘에는 태양빛이 가득하다.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구름에 쌓여 행복한 출발을 놓친 것 같아 이내 마음을 내려놓았다. 구름을 뛰어넘어 부처님을 따라 '황금의 나라'로 떠나는 이 길이 소중하기만 했다.

홍콩, 방콕을 경유해 10여 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에 내리자 한국의 열대야 같은 더위가 밀려왔다. 마음을 내려놓으러 가는 여행길이 바로 미얀마 여행길이란다. 양곤 시내로 들어가는 길 곳곳에 보이는 파고다가 눈에 띄었다. 붉은색 승복을 입고 우산을 들고 있는 스님도 보였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이들의 수행의 삶이 궁금해졌다.

22일 **#세계 불교 3대 유적지 바간(Bagan)**

한반도 면적의 3.5배(67만8528㎢)에 달하는 미얀마를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일정은 새벽부터 시작됐다. 첫 답사지인 바간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여를 이동해야 했다. 바간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한국의 경주와 같은 곳이었다. 11~13세기 '400만 파고다의 도시' 바간에는 현재 2227개의 파고다들과 유적들이 남았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재래시장이었다. 도시 전체가 유적지지만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맛이랴. 우리를 처음으로 반긴 것은 작고 마른 어린 아이들의 큰 눈망울이었다. 한번 마주치면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만다. 더럭 얼굴에 '타나카(Thanaka: 미얀마 특산품 천연화장품으로 대부분의 미얀마인들은 얼굴에 이것을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를 발라주고는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 이들이 그 유명한 '원달라(1$) 부대'다. 미얀마 특유의 향신료와 젓갈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틈을 타 '원달라 부대'는 나를 기습공격했다. 그러고 보니 내 주머니에서 달러는 홀쩍 빠지고, 내 손에는 이것저것이 매달려 있었다. 특별한 생의 감각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황금모래 언덕의 파고다'라는 뜻을 지닌 쉐지곤 파고다(Shwezigon Pagoda). 사암(砂巖)으로 만들어져 금옷을 입은 쉐지곤파고다는 부처님의 전두뼈와 모조 치아사리가 안치된 곳으로 미얀마 파고다의 원형이다. 한국 법당에는 '양말을 신고 들어오세요'라며 맨발을 엄격히 금하지만 미얀마 사원에는 '맨발로 들어오세요'라며 양말, 스타킹 어떤 것도 신어선 안 된다. 유치원생 아이들도 관광객들에게 맨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만큼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 정장 차림'이다. 정장차림을 하고 들어간 황금색 쉐지곤 파고다는 태양빛을 반사해 눈을 뜨고 보기 힘들었다. 첫 답사지에서 한국 방문단은 가사장삼에 맨발로 첫 예불을 올렸다.

짠짓따 우민(kyanzittha Umin)은 인공 동굴 안에 지어진 파고다로 스님들의 수행처였다. 한 낮에도 칠흑같은 어둠이 있는 이곳은 천년 전 스님들의 수행처였다니 그 어느 탑보다 신성하게만 느껴졌다.

틸로민로(Htilomonlo)파고다, 마누하(Mhanuha)사원, 부(Bu)파고다, 아난다(Ananda)파고다 등 일행은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1000년 전, 불심으로 세워진 수천 좌의 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쉐다곤(Shwesandaw)파고다에 올랐다. 가파른 경사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수천 개의 탑들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구릉하나 없는 바간 평지에 세워진 불탑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탑 주변에 산다는 어린 아이들이 내 발걸음과 귀를 훔쳐갔다. '원달라 부대'는 정말이지 지독했다. 하지만 마음을 돌려본다. '부처님 금머리카락'이라는 높은 탑에서 이들을 만나기까지 나와 너는 얼마나 오랜 인연의 세월을 보냈을까. 인연이 있어야만 올 수 있다는 신비의 땅에서 널 만났으니 부처님께 감사할 뿐이다.



미얀마 만달레이에 위치한 마하간다용 수도원에서 스님들이 공양을 하기위해 줄을 서있다.

23일 **#종교 · 문화 중심 마하간다용 수도원**

바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20여 분 떨어진 만달레이는 2500여 년 전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다녀간 문화 · 종교의 중심지다.

바간과는 달리 만달레이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길에는 연령대별로 스님들이 줄지어 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탁발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얀마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탁발스님에게 보시를 해 공덕을 쌓아 더 나은 내세를 기원한다. 보시는 삶이 돼 갖고자 할 때보다 주고자 할 때 더없이 행복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인들의 삶의 모습과 풍경이었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찾았다. 1914년 설립된 마하간다용 수도원을 순례한 뒤 탁발공양을 참관했다. 10시 15분이 되자 긴 쇠종을 나무 막대로 내려친다. 아침 9~10시 탁발해온 공양을 함께 먹는 것이다. 삽시간에 1300여 스님들이 공양간 앞으로 모여들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스님들의 일사분란한 행동들이 놀랍기만 하다.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생부터 전 연령대가 다 모여 있는 이곳이 어쩌면 이리도 조용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양을 드실 때에도 스님들은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 공양물을 조용히 드시고는 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그 음식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됐건 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조용히 먹을 뿐이다. 어묵동정이 한결같은 수행자 모습이었다.

이곳은 관광객이 공양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것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이날 마하간다용 수도원에는 평소보다 400여 명 가량이 적은 1300여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동안 배운 빨리어 경전 점검기간으로 많은 스님이 시험을 보기 위해 출타중이셨다. 미얀마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충실히 전수하는 권위있는 장로들의 전통 혹은 교설에 충실한 상좌부 불교(Teravada)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하다. 12시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이후로는 입으로 씹는 음식은 먹지 못 한다. 우 에인도바다 비원따 방장 스님은 일행과 차담 시간이 약속돼 있었으나 대중과 함께하는 공양시간을 지키는 철저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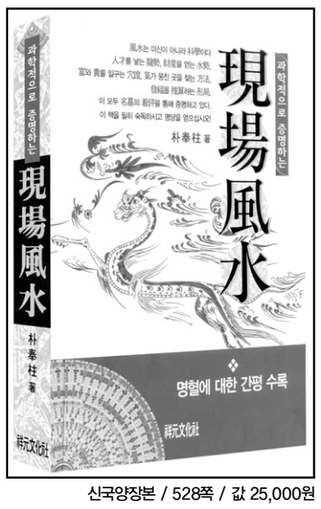
이라와디강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밍군강변에



템플스테이 운영에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 30여 스님이 참가했다. 22일 양곤 아난다파고다에서 찍은 단체사진.



양곤 쉐다곤파고다 경내에 봉안된 불상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효친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 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 사법론, 혈장총론 등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사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신룡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著
신국양장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祥元文化社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칼라챠크라, 배요온대, 다보명차, 아마따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이 연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 법명 : 송운 松云 (허남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 사찰명 : 성불사 / 법명 : 송죽 松竹 (박세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 사찰명 : 성불사 / 법명 : 송인 松仁 (이한란)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 사찰명 : 용평사 / 법명 : 송연 松然 (김진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 사찰명 : 관음사 / 법명 : 송암 松巖 (김해규)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 사찰명 : 청량사 / 법명 : 송윤 松允 (허윤지)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 사찰명 : 명불사 / 법명 : 송춘 松春 (주금옥)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상기 승려는 소납의 제자 였으나
이제는 사제간의 인연이 다하였다고
생각되어 사제간의 인연을 끊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일
한국불교 치악산 대성암 주지 각화 법룡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치유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 강 사 혜 광 합장
문의 055)932-5706

‘있는 그대로 사는 삶 자체가 불교’ 가슴에 새겨



조계종 스님들이 세계불교 3대 유적지인 바간 쉐지공파고다 사원을 둘러보고 있다.

수행 대중화 시킨 마하시 선원 전세계 분원 500개
한국불교 세계화는 한국불교 전통 살리는 데 있어

즐비해 있는 수상가옥과 시골마을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을 때 거대한 탑이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탑이라는 밍군대탑이 눈에 들어왔다. 홍수와 지진 등으로 많이 훼손된 밍군대탑은 멀리서도 훼손 정도가 보일 정도였다.

밍군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먼저 우리를 반긴다. 외국인이 오는 것은 즐거운 놀이감이자 생활수단이란다. 2인 1조를 이룬 아이들은 관광객을 안내했다. 소리가 나는 종들 중 세계에서 가장 큰 90톤 짜리 밍군종이 무게를 잡고 있었다.

이라와야디 강 주변은 미얀마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곳에서 먹고, 씻고, 생활한다. 강 주변 모래사장 위를 뛰어 노는 젊은 청년부터, 론지 하나만 입고 목욕을 하는 아가씨, 발가벗고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 이색풍경이다. 개구쟁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아가씨의 목욕바구니를 쓰러뜨리자 말없이 바구니를 정리해주는 아이, 뛰놀다가도 배가 정박할 때가 되면 알아서 쐐기를 박아 배의 정박과 출항을 도와주는 꼬마 아이들, 떠날 때에는 만남의 기쁨을 담아 배가 안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 이것이 미얀마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는 나보다 ‘너’가 먼저다. 나와 너의 특별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은 이들의 문화였다.

밍군대탑으로 올라가는 길. 내가 지어준 미소 한번에 다섯 살짜리 꼬마아이가 활짝 웃으며 신나한다. “Slowly(천천히)”를 외치며 나를 보호해준다. 대탑의 갈라진 틈이 아찔할 정도인데 아이들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안내를 한다. 높이만 72m 빌딩 25층 정도의 높이다. ‘스님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스님들과 일행은 끝까지 올라가 부처님의 땅을 친견하고 땀을 닦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불교를 찾으려하지도 않고 찾을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사는 삶 자체가 불교다.

25일 #양곤(Yangon)의 마하시 명상센터

양곤에서는 이번 연수의 핵심지인 마하시 명상센터에서 우 자띨라 원장스님을 친견하고 수행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하시 수도원은 사념처관(四念處觀) 수행을 기본으로 순수 위빠사나(suddha-vipassana)수행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매일 법문과 인터뷰를 통해 수도자들의 수행력을 바로 잡는 지도방법으로 전 세계인을 수행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위빠사나 수행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다.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남방 불교권에서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불교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시 수도원은 1947년 마하시 대선사가 세운 것으로 현재 약 70여개 이상의 건물이 있으며 한번에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종교와 국적을 떠나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수행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이 부러운 곳이었다.

또한 마하시 선원은 국민들에게 수행을 대중화시킨 전통적인 선원일 뿐 아니라 세계 500여 곳에 분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선원이다. 연중 무휴로 항상 수 백 명의 수행자들이 큰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다.

수도원 곳곳에는 수행자들이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종교, 국적, 성별, 나이를 떠나 수행복을 입고 수행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부러움을 샀다.

이날 일행은 외국인 수행자를 담당하는 우 자띨라 원장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이날도 한국인 수행자를 위한 수행점검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우 자띨라 스님은 연수단 일행을 반기시며 일반 수행자들에게 가르치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직접 지도했다.

“위빠사나 수행법 중에 첫 단계는 행선수행입니다. 하나로 손을 가지런히 하고 전방 45도 정도의 앞을 주시하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도, 보이는 사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섰을 때는 ‘섰다. 섰다. 섰다’라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몸과 마음으로 모두 순간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느끼고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이 이치입니다. 단, 그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행선할 때 걷는 동작(3스텝, 4스텝, 6스텝)을 알아차리면서 공부를 지어가되 다리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지 말고 다리에서 일어나는 실제 감각에만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이어 좌선 수행법을 설명했다. 우 자띨라 스님은 “좌선 수행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한 자세로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양손을 단전에 놓고 머리는 숙이지 말고 반듯하게 하고, 눈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코에서 냄새가 날 땐 냄새를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들숨과 날숨을 마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라며 친절히 설명해주신다.

우 자띨라 스님은 간단히 10분 정도의 좌선 수행 후 질문을 받았다. ‘잠잘 때에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합니까? 친구와 만나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알아차려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스님은 “일상적인 동작을 알아차리는(sampajanna,正知) 수행은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일체 행위를 할 때 알아차림이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고 돌아갈 때, 앞이나 옆 뒤를 볼 때, 가사(옷)를 입고 벗을 때, 식사를 할 때, 대소변을 보거나 샤워할 때, 가고 서고 앉을 때, 취침하고 일어날 때, 말하거나 침묵하고 있을 때, 항상 분명한 알아차림을 하도록 간단없이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스님은 이어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복해서 관(觀)할 때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했을 때에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며 수행자들의 실참을 권했다.

“깨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스님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깨우침도 깨달음이지만 잠깐의 깨달음을 반복해야 완전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며 “마하시 선원에서의 기본 가르침은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곳에서는 부처님의 아래 단계인 아라한과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멀리 한국에서 온 스님들은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하시 선원 경내를 경행했다. 마하시 선원의 저력을 배움과 동시에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불교문화를 오롯이 살리는 것이 바로 한국불교의 세계화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현대불교신문 15th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불자들 눈·귀 되세요"

신행 수행 정보 많고 여성위한 배려 최고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는 언론을 통한 정법(正法)의 선양과 포교에 매진하며 2000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해 왔다.

현대불교의 오늘은 바로 이 땅에 불국토를 이루려는 원력과 신심이 애독자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본지는 현대불교를 구독해온 독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나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현대불교를 열독해온 애독자를 선별해 전화인터뷰를 했다.

13년 동안 현대불교를 구독해온 이란(58 · 서울 광진구)씨는 봉은사를 다니고 있는 신도다. 독실한 불자라 자연스레 본지를 구독하게 됐다는 그는 본지에서 진행했던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제2회 대상 당선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현대불교를 빠짐없이 보는데 특히 '선지식을 찾아서'라는 코너를 좋아한다. 직접 찾아뵐 수 없는 선지식들을 지면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신문에 게재된 법문 모두가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의 가르침이 삶에 많은 영향을 줬다"며 흐뭇해했다.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현대불교를 읽고 있는 독자.

재소자 상담과 대학 강의를 병행중인 황수경(45 · 서울 서대문구)씨는 "재소자들에게 신문을 보시해 왔는데 반응이 좋다. 10년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장기수들에게 현대불교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 '함께가요 설법전' 등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황씨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불교 사설, '죽비와 목탁' 등 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글들이 진보적이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21세기는 소통과 나눔이 키워드인데 '사부대중 칼럼'이 이에 부합하는 코너 같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장기 구독자 중에는 이웃종교인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가톨릭 신부님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현대불교를 구독한 독자도 있었다.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란 마리아(가명 · 경기도 가평)씨는 한 신부님이 현대불교를 구독하는 것을 보고 매주 신문을 챙겨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아씨는 "처음에는 성철 스님과 같은 큰스님들에 대해 알고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불교소식과 동향, '길을 묻는 이에게' 같은 코너는 빼놓지 않고 보고 있다"며 "광고란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 필요한 신행용품도 구매할 수 있고 출판면을 통해서 불교서적들을 접할 수 있어 현대불교는 나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신문"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밖에 많은 독자들이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을 들려줬는데 그들이 현대불교를 고집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독자들은 △타 불교계 신문에 비해 신행, 수행에 관련한 정보를 많이 게재한다 △여성불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코너가 많다 △색깔이 없는 듯한 논조이면서도 기자들의 신선한 시각을 볼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불교를 애독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현대불교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씨(38 · 서울 영등포)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 사주관상 등 부적절한 광고가 나오는데 이런 광고들을 걸러냈으면 좋겠다. 불교와 관계가 없는 이런 광고는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고 지적했다.

현대불교의 논조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아 좋다고 하는 독자가 있는 반면 아쉬워하는 독자도 있었다. 한모씨(42 · 서울 종로)는 "현대불교는 색깔이 없어 보인다. 깊이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유지할 수 있게 강한 의견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한 스님은 "비판논조가 부족하다. 현대불교의 색깔을 형성하면 독자층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다. 또 현대불교는 지면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경전내용을 현대에 맞게 풀어내는 코너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애독자들은 오랫동안 열독해온 만큼 현대불교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란씨는 "불교계에서 <승만경>을 재조명하면서 여성불자들의 불교사상 실천을 독려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불교에서 캠페인으로 선정해 신행활동에 모범이 되는 여성재가불자에게 상을 주고 독려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자 정모씨(46 · 대전 서구)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과 상담코너를 활발히 진행해 불자교육자들이 잘 활용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애독자들은 현대불교가 '재가불자의 수행을 담당하는 견인차'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의 눈과 귀가 돼 기대에 부합하는 더 좋은 신문으로 매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이나은 기자

편집국의 뒷얘기들

세계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글의 힘'

1994년 10월 15일 현대불교가 창간될 당시 불교계에서는 새로운 매체를 기다리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또 신문이 나온다고?"하는 반응도 있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 아니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던 시절 불교계에 새로운 신문의 창간은 비상한 관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현대불교는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만들자는 원력으로 창간했고 지난 15년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받았다.

현대불교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하고 법문을 들려주고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이자 도반이었다. 그런 만큼, 편집국에서 지난 15년간을 회상하는 일은 참으로 많은 사연과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기도 하다. 편집국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기억의 주머니속에 숨겨 두었던 뒷얘기를 들려준다.

○…가정불화 딛고 새 삶 찾아

편집국으로 찾아 온 A씨는 얼굴에 어떤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제가 말이죠.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시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는 가정불화를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극한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행동만은 하지 못했다. 낮은 소리로 그 이유를 들려 주었다.

"제가 현대불교 10년 독자거든요. 가게를 하면서 늘 현대불교를 읽었어요. 거의 모든 기사를 다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큰스님들의 법문과 대행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가장 열심히 읽었습니다. 막상 화가 치밀어 사고를 치려고 하는 순간마다 큰스님들의 가르침이 떠올라 마음을 돌려먹곤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세 번 있었는데, 옛 말 가운데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했는데 저야말로 세 번을 참았으니 이제 마음에서 그런 독한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대불교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을 꾸준히 읽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살인자가 됐을 겁니다."

그는 가정불화를 원만히 해결하고 수행을 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 신문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오래 준비한 듯 한 말을 꺼내 놓았다.

"형편이 되면 기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부하는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맞추어 큰스님들의 법어를 책으로 묶어 여러 군데 법공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스님 기사 보고 달려가 시주

일산에 사는 80대의 노 보살님은 현대불교의 인기 코너인 '선지식을 찾아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소나무를 키워서 파는 농원을 운영하는 이 보살님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 친견하며 불교공부를 해오던중, 대둔산 태고사의 조실 도천 큰스님 기사를 보고 큰 환희심을 냈다. 글을 쓴 기자에게 가는 길을 물은 후 일산에서 택시를 타고 대둔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감격해 종각 불사에 수 천만원을 보시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제천의 문수회 노보살님들을 후원하며 '도반의 인연'을 맺은 김경자 독자가(가운데 한복차림) 7월 19일 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문수회 회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교도소에서 구독하고 "나는 깨달았도다"

현대불교에는 열혈독자들이 많지만, 가장 신문을 열독하는 독자들은 불자 재소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무료한 시간에 신문을 샅샅이 읽고 편지를 통해 독후감을 보내오곤 한다. 대부분은 현대불교가 신행의 안내자인 동시에 소중한 법문을 전하는 포교사로서 마음의 안정과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K 재소자의 경우, '현대불교를 통해 불법을 공부하던 중 깨달음을 얻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게 됐다'며 장문의 편지글을 보내오기도 했다.

○…미국과 제천을 이어준 기사 한 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노보살님들의 모임 제천 문수회 얘기가 미국에 사는 한 불자에게 전달 됐다. 미국 시카고에 사는 김경자 보살은 문수회 기사를 읽고 다음 달부터 매월 100달러씩 후원금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문수회 노보살님들과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됐으며 후원금과 농산물 등이 오고가며 도반의 정을 키웠다. 그렇게 인연을 맺어온 김경자 보살님과 문수회 회원들이 처음 만난 것은 7월 19일. 부산에서 김경자 보살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 자리에 제천 노보살님들이 달려간 것이다. 단 한 건의 기사를 인연으로 의기투합했고, 원거리에서 6년 동안 전화로만 안부를 물으며 살아온 그들의 첫 만남은 그야말로 감격의 도가니였다.

○…소설 '수미산' 읽고 출가한 주부독자

창간 초기 고은 선생의 대하소설 '수미산'을 탐독했던 한 주부가 소설 속 주인공의 삶에 매료돼 기도를 시작했다. 다양한 인연들을 한 섬의 수행 공동체로 묶어 진정한 구도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소설의 진지한 흐름에 스스로 빠져든 것. 그 주부 독자는 3년 넘게 상당히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꿈을 이뤘다. 남편이 "수행을 원한다면 수행의 길을 가야지"하며 이혼을 해주고 집안 인연들을 정리해 준 것이다.

"기자님, 저는 출가합니다. 당분간은 신문을 못 보겠네요. 나중에 다시 구독할게요."

어느 도량에선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을 그 옛 독자(아니, 지금은 스님)에게 인사를 전한다.

"성불하세요."

○…보던 신문을 법공양으로 전환

점심시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한 독자가 전화를 했다. 신문 구독을 중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니 왜요? 신문이 맘에 안 드시나요?"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아뇨. 제가 이번에 아기를 낳아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부모님께서 구독하고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었다. 아쉽지만 구독중지 할 수밖에. 그런데 갑자기 묘수가 떠올랐다.

"그러시면 아기 출생을 기념하는 뜻에서 보시던 신문은 법공양으로 전환하시죠? 법공양의 공덕을 쌓으시면…."

속으로 '내게 이런 상술이?'하며 놀라기도 했지만 결과는 좋았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렇게 해 주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

감 사 말 씀


서울 남부교구 종무원장
법 진

한국불교태고종
서울남부교구 법진 큰스님
종무원장 추대식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오며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 올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7동 685-113
보운사 02)868-6142, 855-4792
서울 남부교구종무원장 법진 016)256-6142

봉행위원장 교구 종회의장 재홍 합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현대불교신문 15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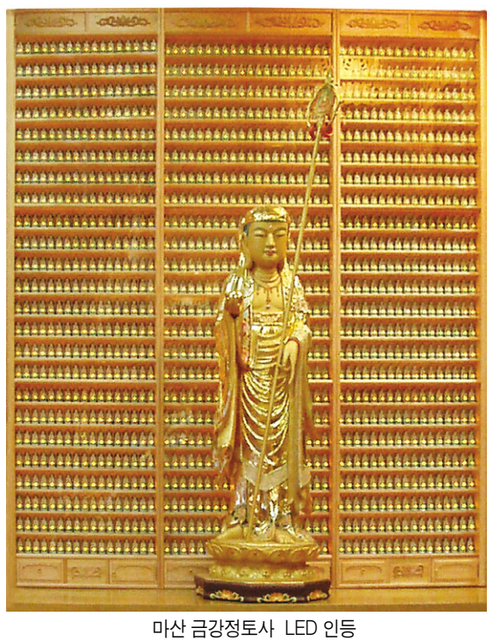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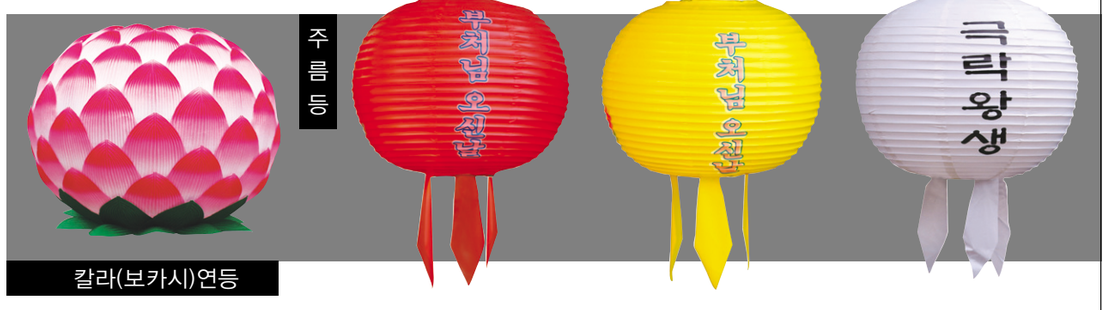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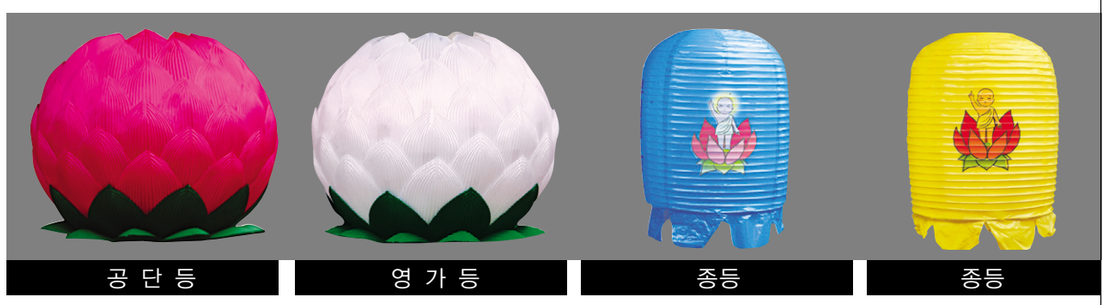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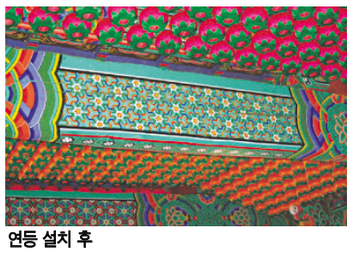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마음공부로 뇌 · 몸 바꿀 수 있다"

장현갑 교수, 수많은 사례와 의학적 연구결과 토대로 발간



예나 지금이나 불임 여성 가운데는 임신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상상임신'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상상임신을 한 여성은 유방의 크기와 형태, 나아가 유방 조직의 변화까지 일으키며 실제로 모유까지 분비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상상임신 4~5개월쯤 되면 태아의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어떤 환자들의 경우는 상상임신의 증상이 너무나 생생해 의사들조차 오진하게 만든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실재로 믿는가에 따라 우리의 뇌와 몸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변화에 반응하는 뇌와 몸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마음이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나왔다. 한국 명상치유학회 명예회장과 한국통합의학회 고문, '마인드 플러스 스트레스 대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인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의 <마음 vs 뇌 – 마음을 훈련하라! 뇌가 바뀐다>(불광)가 그것. 이 책은 오랫동안 심리학과 뇌 관련 분야를 연구해오던 저자의 첫 번째 대중서로 마음과 뇌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장 교수는 이 책에서 뇌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마음 역시 뇌와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현갑 교수.

책에 따르면, 마음훈련을 통해 우리의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는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가장 흔한 예로 상상에 의해 일어나는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와 같다는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를 들 수 있다. 즉, 병원을 찾는 환자 중 75퍼센트는 특정 처방 없이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환자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확인만 있어도 스스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기온이 영하 몇 십도까지 떨어지는 티베트의 고산 지대에서 스님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거뜬하게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명상에 익숙한 스님들이 자신의 피부 온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특히 장기간의 명상 수행은 인지상의 변화, 문제해결 능력의 상승 또는 알아차림과 관련되는 뇌의 활동을 고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 교수는 "이런 사례는 마음과 몸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종류의 만성병 치료에 심리적 수련으로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 교수는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얻기 위한 명상과 만성통증, 불안과 우울, 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신치유 등 다양한 마음훈련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소리나 단어와 같은 진언 또는 만트라나 기도문과 같은 언어적 방법을 통해 엄습해오는 잡념과 공상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마음에 휴식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에 주목한다. 하버드대 벤슨(Herbert Benson) 박사는 이런 변형의 경지를 '브레이크 아웃(Breakout)'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일어나는 데는 몇 개의 단계가 있고 일단 브레이크 아웃이 발생되고 나면 몸과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벤슨 박사는 뇌과학으로 밝혔다. 흥미 있는 것은 브레이크 아웃이 바로 자기 변형의 기본 과정으로 종교적 체험인 깨달음, 특히 명상과 같은 심신의 이완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런 마음훈련이 뇌와 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수많은 사례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흥미롭게 풀이하고 있다. 부록으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챙김 명상-MBSR'을 통해 심신의 건강과 행복을 얻는 구체적인 위빠사나 수행법을 소개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마음공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마음 vs 뇌 | 장현갑 지음 | 불광 | 1만3800원

김성우 기자

"계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다리"

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의 '범망경' 해설서

"<범망경>에서는 '십중금계(十重禁戒)를 범하더라도 올바로 가르치고 참회하면 십선(十善)을 행하게 된다', '중생이 부처의 계(戒)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설함으로써 중생이 본래 갖춘 불성(佛性)을 강조합니다."

조계종 제23 교구본사인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이 대승의 보살정신을 계율로 설해 놓은 <범망경>을 쉽게 풀이해 책으로 펴냈다.





원종 스님.

<범망경>은 노사나불이 설한 보살의 마음에 깃드는 계의 품목을 설해 놓은 10번째 경으로 대승불교의 독자적인 계율 수행서다. 산스크리트 원본은 120권 60품이었지만 현존하지 않으며, 구마라습 스님의 한역본 상하 2권 만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보살계산림은 <범망경>에서 설해진 수계(受戒)와 포살(布薩 : 참회법회)의 작법(作法)에 근거하고 있다.

수년 전 불교TV에서 강의한 <범망경>을 이번에 정리해서 펴낸 원종 스님은 "흔히 계율에 대해 일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제약쯤으로 오인한다"며 "그러나 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하면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살계본'에 의하면 계는 밝은 등불과 같고 보배 거울과 같으며 마니주와 같다고 이르고 있듯이, 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로 비유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계정신과 보살행을 강조했다.

"세세생생 보살계를 지키는 일이야 말로 자비를 실천하고 보리를 이루는 지름길임을 알고 평소<범망경>을 마음에 새기는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원종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도봉구 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원통사, 성주사, 보문사, 천보사를 거쳐 현재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오랜 관음정근과 간경수행의 원력으로 가는 곳마다 포교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스님은 10월 10일 관음사 창건 100주년 기념행사로 '세계평화를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범망경 | 원종 스님 지음 | 사유수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초심자 위한 법화경 입문서



동국대 불교대학 정승석 교수의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는 불교 경전 중에서 문학적 구상과 표현이 가장 빼어난 법화경(法華經)에 대한 입문서다.

방편과 진실의 조화를 가르치는 법화경 설법을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포용하며 공생하는 방법도 깨닫게 된다.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 정승적 지음 | 민족사 | 9500원

김성우 기자

교리부터 인생상담까지 자상한 답변

우학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 되는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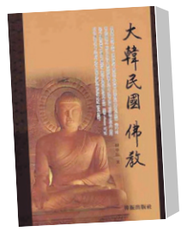
통도사로 출가해 15년간 다양한 수행을 한 후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대구에서 신도 15만이 넘는 도심도량을 일군 한국불교대학(옛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우학 스님. 스님의 새 책 <부처 되는 공부>는 불교 기초교리부터 인생상담까지 200여 가지 질문에 대한 자상한 답변을 담고 있다. 지난해 4~10월 불교TV를 통해 방송됐던 '우학 스님의 신행상담' 내용 중에서 요약한 법문들이다.

우학 스님은 "불교 공부는 바다에 떨어뜨린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 어렵다고도 하지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면서 "사람마다 지닌 근기에 따라 맞는 수행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한다. 아울러 스님은, 망상을 피우지 않고 부처님을 보는 관(觀)을 먼저 닦은 후 '부처님을 관하는 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선(禪)을 병행하는 '선관쌍수(禪觀雙修)' 수행법을 권한다.

부처 되는 공부 | 우학 스님 지음 | 뜰 | 1만3000원

김성우 기자

한국불교 관점에서 쓴 불교사 안내서



'팔만대장경' 등 180여 편의 극영화를 제작하고 대종상 작품상 등을 수상한 영화계의 대부이자 20여 권의 저 · 역서를 펴낸 저술가인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 <대한민국 불교>는 한 회장이 불교의 넓고 깊은 사상을 한국불교의 관점에서 주제별로 나눠 엮은 불교사 입문서다.

책은 부처님의 생애와 초전법륜, 승단의 확대, 교화활동에서부터 삼국시대 불교전래와 수용, 구산선문과 조계종, 선(禪)의 전래, 임진왜란 당시 승병활동, 일제 강점기의 불교, 8 · 15해방과 불교의 자주화, 현 조계종의 정체성과 역사도 살필 수 있다.

'여성출가와 비구니'에서는 시대별 비구니 승단의 성립과 활동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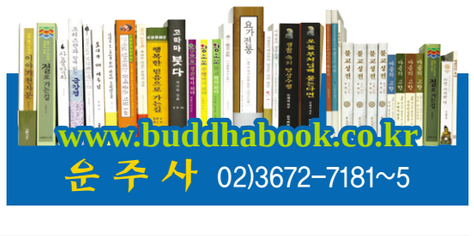
대한민국 불교 | 한갑진 지음 | 한진출판사 | 2만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7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8	5분 참선	현담	선
9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10	행복을 좇아가지 마라	김상백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어려울수록 긍정적 마음가져야 행복한 삶 산다



긍정 에너지가 나를 살린다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를 경유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다음 날 다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일행 중에 몇 명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에게 귀국을 포기하고 라스베가스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불야성을 이룬 도박장이었을까? 아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마음은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이끌고 가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도 내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에너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스베가스로 돌아간 여행객의 마음은 욕심이며 죽으려는 마음이다. 먼저 돈을 잃고, 가족과의 단란한 행복의 기회를 잃고, 그러다 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려는 마음은 긍정 에너지이며, 욕심은 부정 에너지이다.

세상이 욕심 채우는 만큼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세상이 망하게 된다"이다.



지혜경영연구소가 개최한 지혜인캠프에서는 긍정 마인드를 통해 행복을 키우는 연습을 한다.

행복한 마음이 끌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 '긍정'
나부터 긍정적인 마음가져야 세상이 기분 좋아진다

#마음의 촛불을 밝혀라

모든 사람과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은 면과 긍정적인 부분을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잘 본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내 마음이 밝으면 밝은 면이 보이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면이 보이게 돼 있다. 나의 촛불이 밝게 켜져 있으면 어두운 방도 밝힐 수 있고, 밝은 곳은 더 밝게 보인다. 반면 나의 촛불이 꺼져 있으면 밝은 곳에서도 어둡고 어두운 방은 당연히 더 어둡다. 그 촛불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에 부정 에너지인 욕심과 고정관념과 상처가 있으면 촛불을 밝힐 수 없다. 내 마음에 욕심과 고정관념과 상처가 사라지면 촛불이 저절로 밝아진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밝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춰져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인간의 본성은 밝고 순수하며 그 능력이 무한하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긍정심이며 동시에 행복 그 자체이다. 그런데 평소에 긍정심과 행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두운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어두운 마음은 다름 아닌 욕심과 고정관념과 상처가 누적된 상태이다. 어두운 마음이 밝고 순수한 본성을 가려서 긍정심이 부정심으로 바뀌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부정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본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역경은 디딤돌이다

만일 내가 장님이거나 귀머거리라면 어떨까? 아니면 말더듬이거나 노이로제 환자라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우 삶을 비관해 스스로 불행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대한 성공을 이뤄낸 사례는 역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각과 청각을 상실했다. 그녀는 그 악조건으로 인해 더욱 예민하고 섬세한 촉각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장애인 권익과 여성의 평등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고, 그녀의 용기와 신념은 영원히 살아있다. 희랍의 유명한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는 본래 심한 말더듬이에다 발음도 정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입에 모래를 물고 피나는 발음 연습을 한 끝에 훌륭한 웅변가가 됐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강사들과 웅변가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웅으로 남아있다.

<데미안> <싯다르타>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헤세는 과로로 인해 지병인 노이로제가 발작하여 정신과의사를 만난 덕분에 정신분석에 흥미를 갖게 됐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그의 대표작인 <데미안>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목민심서>를 쓴 다산 선생은 18년 간 유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 백 권의 명 저술을 남길 수 있었다. <오딧세이>를 쓴 호머와 <실락원>을 쓴 밀턴도 실명한 장님이었다.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였기 때문에 더 섬세한 감각으로 작곡할 수 있었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30대에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잔잔한 강물에서 노련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눈보라와 비바람과 해충을 이겨내면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없는 나무가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다. 인간의 성공적인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 맹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이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궁핍하게 해 하고자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한 연유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을성을 길러줘, 불가능한 일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역경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 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은 '긍정'이다. 사실 주어진 상황은 누구에게나 역경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고 실패의 이유로 삼는다.

#긍정이 긍정을 부른다

우리는 마음이 에너지이고, 그것이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안다.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는 어떻게 다른가? 나와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직장동료가 평소에 다음 두 가지 에너지 가운데 어떤 것을 드러내는지, 그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되새겨 보자.

(1) 감사 > 원망, (2) 용서 > 분노, (3) 사랑 > 증오, (4) 축복 > 시기, (5) 칭찬 > 비난, (6) 웃는 얼굴 > 화난 얼굴, (7) 현재 > 과거 또는 미래.

부등호가 위와 같이 돼 있다면 내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는 경우라면 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같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남들도 똑 같은 기분을 느낀다.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부른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와 온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먼저 나 자신이 기분 좋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좋아져서 온 세상이 기분 좋아진다. 내 마음이 곧 온 세상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자는 "세상 만물이 본래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르면 온 세상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내 기(氣)가 순하면 온 세상의 기도 순하게 된다"고 했다.

요즘 하버드대의 최고 인기 강좌는 '긍정 심리학', 즉 '행복론'이라고 한다. 최근에 긍정의 심리를 다룬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강의와 책들은 긍정의 심리가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감사'이다.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내 기분이 좋은 것은 이유가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살려는 마음'과 같은 크기의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 '살려는 마음'이 나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살리려는 마음'은 남의 행복을 돕는 일이다. 누군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발휘한 '살리려는 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계속 뭔가 해주고 싶어진다. 반대로 누군가가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아무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일을 부른다. 용서, 사랑, 축복, 칭찬, 웃는 얼굴도 마찬가지다.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마치 거울처럼 긍정의 마음을 나에게 보낸다. 내 마음이 온 세상이기 때문이다. 특히하게도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은 긍정심이며, 과거와 미래에 사는 마음은 대체로 부정적인 마음이다. 삶은 내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내 마음을 지금 이곳에 두고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이 행복한 삶의 에너지다

내 마음의 부정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 본심을 회복하고 행복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다. 명상은 긍정의 장애요소인 욕심, 고정관념, 자기잣대, 마음의 상처 등 어두운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주는 마음의 명약이다. '위빠사나'를 비롯한 불교의 다양한 명상법은 물론 유학의 명상법인 '경(敬)'도 있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이 굴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일념으로 정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직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모든 명상법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일념으로 정진하는 과정이다. 우리 조상들은 4300여 년 전부터 명상을 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명상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다. 골프, 양궁, 쇼트트랙, 반도체, 디자인 등 마음의 집중이나 감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우수한 것은 뿌리 깊은 명상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명상을 통해 긍정 에너지가 생기면 일상에서의 훈련을 통해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 행동과 말과 마음을 모두 긍정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황도 긍정하게 되고, 악연도 긍정하게 되며,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긍정하게 된다. 불황이 오지 않고 계속 호황으로 이어지면 인간성은 더욱 황폐해지고, 만일 10년 뒤에 더 큰 거품이 꺼지게 되면 나와 나의 가족, 특히 자녀들이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불황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악연으로 인해 내 마음의 수양이 부족한 것을 알고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니 그 악연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내 종교를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종교의 폐단이 덜해지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행복도 나의 선택일 뿐이다. 지금 여기에서 긍정의 마음을 선택하면 곧바로 행복해진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의 시작이며 끝이다. 긍정의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에너지다.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 대표
경희대 겸임교수(성공학)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거야> 저자, 우리 고유의 '지혜인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집중력 캠프, 리더십 캠프 등 운영 (www.onwisdom.com)

오직 기도할 뿐!
하루 108번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입재
4분정근
새벽기도 : 33번
사시기도 : 21번
2시기도 : 21번
저녁기도 : 33번
◆입재일 : 10월 18일 (음, 9월 1일) (1차 100일 기도)
◆시 간 : 오전 10시 30분
◆동참비 : 10만원 (농협 073-02-262101 전혜진)
◆접수처 : 전화 041)942-9465 팩스 041)942-8465
충남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703-4
성 불 사 선보 합장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전화주문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수행은 철저한 자기 믿음과 긍정에서 시작된다



궁극의 긍정 믿음이 행복의 씨앗

지난 4월, 달라이 라마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자선단체 식당을 찾은 달라이 라마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자에게 배식을 했다. 손수 수프를 퍼주던 달라이 라마에게 40대의 노숙인이 말했다.

"내가 걸친 옷은 모두 쓰레기통에 주운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답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고 생각하고 스스로 존엄하다고 느끼세요. 나도 홈리스(homeless)입니다. 하하."

1953년 3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베트를 떠나 50년째 망명생활중인 노장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다. 유혈사태로 치달으며 강경해져만 가는 중국 정부의 탄압 때문에 티베트인의 향수와 설움은 어느 때보다 크고 깊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나도 홈리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물질적 풍요로는 행복 보장 안돼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들어 경제적 요건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행복경제학의 창시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소득이 높아져도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1946년부터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연구한 그의 논문에 따르면, 비례관계로 알려졌던 소득과 행복도의 관계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무관해졌다. '이스털린의 역설' 이다.

그 예로 이스털린은 1950~1970년 일본의 소득은 7배 증가했지만 삶의 만족도는 국민소득이 수백달러에 불과했던 방글라데시와 비슷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 2006년 영국 신(新)경제재단(NEF)의 국가별 행복지수(HPI) 조사에서 행복지수 1위(한국은 102위)는 바누아투였다. 바누아트는 남태평양의 80여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당시 바누아트의 취업률은 7%,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900달러로 세계 233개국 중 207위였다.

'이스털린의 역설' 과 세계 최고의 행복국가 바누아트의 사례는 행복은 빵과 돈(경제)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누아투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행복한 것도 물질에 집착 않고 소박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 때문이었다. 행복의 기준은 '나' 다, 내 행복의 크기는 내 마음에 달렸다. 집착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나, '(행복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 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왜' 보다는 '어떻게' 를 고민해야

불교는 마음공부를 강조한다. 참선 염불 간경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불교의 수행은 수행자로 해금 불필요한 집착을 여의고,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해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준다.

불교적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는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생활자세와 나도 부처라는 믿음이다.

<숫타니파타>에는 부처님이 제타숲에 머물고 있을 때, 신(神)이 부처님에게 위없는 행복을 묻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며 행운을 생각합니다. 위없는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부처님은 위없는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 △존경과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때로는 가르침을 들을 것 △인내하고 온순할 것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티가 없이 안온해야 할 것 등을 설명했다.

<아함경>에는 '독화살의 비유' 가 있다. 활에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뽑아내기에 앞서 누가 쐈는지, 어떤 나무와 깃털로 만든 화살을 맞았는지 등을 궁금해 한다면 온 몸에 독이 번져 죽고 만다는 이야기다.

'독화살의 비유' 는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 문제를 대할 때 "왜 이렇지?"라는 부정적 사고가 아닌, "어떻게 할까?"라는 긍정적 사고를 일깨우는 일화다.

또, 부처님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티 없이 안온해야 한다"고 설함도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왜' 보다는 '어떻게' 를 고민해야 행복이 보인다.

#믿음은 가장 큰 긍정

빵이 하나 있다. 배가 고팠을 때와 배부를 때의 빵은 입안에서 전혀 다르다. 같은 빵을 두고 배가 고프고 부름에 따라 변덕부리는 마음이 번뇌망상이고, 빵을 차별 없이 빵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혜안이다.

하지만 눈앞의 현상을 두고 개인의 체험과 인식에 따라 반응은 제 각각일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의식 있는 것' 이라 합리화하지만 이 또한 중생심(衆生心)이다. 보이는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중생의 습성인 까닭이다. 중생이 곧 부처요, 내가 부처라는 것을 긍정하고 믿으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상견(常見)의 타파를 위해 상구보리(上求菩提)를, 단견(斷見)을 깨라고 하화중생(下化衆生)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림 · 김홍인

자신의 행복 크기는 자신 마음에 달렸다
마음공부로 마음 속 평안 · 지혜 얻어야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말했다. 나와 네가 둘이 아니기에(自他不二) 산은 물이고 물이 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은 산=물이고 물=산의 경지를 초월했기에, (수행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산=산 물=물과는 다르다.

선지식들은 사량분별에 의한 시비를 여읠 것을 강조했다. 선악 미추 야타를 비롯해 상견과 단견, 긍정과 부정의 분별 모두 무의미하다. 하지만 이 분별을 여의라는 가르침의 바탕은 이에 대한 믿음이요, 긍정이다. 불교신행의 기본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이다. 믿음 · 이해 · 수행 · 증득의 과정 중 믿음부터 갖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수행은 철저한 자기 믿음과 자기 긍정에서 시작된다. 믿고 행[修行]하면 행복해진다.

#꽃을 보는 사람은 가시를 보지 않아

장미가 있다. 장미꽃을 보는 사람에게 그 가시는 보이지 않는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시를 보는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기 힘들다.

육조혜능 선사가 법성사에 들렀을 때 일이다. 그 때 마침 두 스님이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라 우기고 있었다. 육조혜능은 이 두 스님에게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다만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바람과 깃발이라는 인식 대상(六境)이 눈(六根)을 통해 비춰진 상태에서 흔들림이라는 생각(六識)이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는 주관적 견해를 만들었다. 결국 모두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달렸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면, 가시보다 꽃을 보자. 긍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마저도 부정적으로 취급해 버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긍정은 생명의 에너지요, 창조의 원동력, 행복의 근원이다.

#세계 곳곳에 부는 긍정의 바람

긍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5년 BBC는 슬라우라는 작은 도시에서 3개월간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이론을 적용해 다큐멘터리 행복을 제작 · 방영했다.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이 프로그램은 책으로도 발간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버트란트 러셀(1872~1970)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부단한 자아성찰 △투철한 자기신뢰 △강한 생의 긍정을 꼽았다. 1998년에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창한 '긍정 심리학' 은 심리학계의 발상을 전환시켰다.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치중했다면, 긍정 심리학은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 하버드대 메모리얼 강당에는 새벽부터 인파가 몰렸다. 마련된 자리는 900석이었으나 8000명이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달라이 라마의 '마음교육' 강연회를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었다. 이보다 수일 앞서 캘리포니아 UC버클리의 그리스 극장에서 열린 '자비심을 통한 평화' 강연회 티켓 7000장도 발매 수 분 만에 매진됐다.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의 불교 입문 강연 티켓 1만3000장도 금새 마감됐다.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려 안심법문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었다.

달라이 라마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구 문명의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폭력, 테러, 환경오염, 경제위기 등의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즉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과 물질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행복은 가족과, 친구, 마음의 평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며 "인생의 목적은 문명이 아닌 행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이 망명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자신과 모든 티베트인들은 반드시 티베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베이징 지도부가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수일 내에 해결될 문제"라며 전혀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제는 73세의 노령으로, 50년 망명생활에도 티베트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달라이 라마.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달라이 라마의 희망은 수행을 통한 자신감. 투철한 자기긍정의 당연한 결과다.

사사불공(事事佛供)이면 처처불생(處處佛生)이라 하지 않았는가?

조동섭 기자

불자정보 753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 평수 약 50평, 삼불, 소불 53위, 신중탱화, 종
● 방 5(큰방1, 작은방3, 공양간1)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9987-4100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서동
● 법당 29평, 요사채방 2칸
● 친견실 1칸
● 2층건물 중 2층
● 가액: 전세 5백, 월 32만원
● 답사후 시설 절충(급)양도
010-8517-2357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2753-7089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중심지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5개, 거실 1, 주방 2
● 가액: 2억 3천만원
● 주인직접, 절충 가능 함
011-792-896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 3층 건물에 60평
● 방 3개, 공양간
● 면목역에서 7분거리 동원사거리쪽, 혜원여중고 후문 2219번 버스정류장앞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9060-2604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450평(등기필), 와가법당20평
● 2층 요사채 38평(창고 15평) 옥외 화장실 6평
● 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은 방문시 보시고 절충가능
010-3791-703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읍내
● 대지: 145평, 건평 47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각
● 요사채 24평, 방 4개
● 현대식 주방, 화장실 2, 창고
● 주차장 넓음, 전답 300평 무료사용
● 가액: 3천 5백만원
061)552-0014
010-9870-108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대전시 중구 중촌동
● 약 300평
● 도심 포교를 할 수 있는 절터로 참 좋습니다
● 평당 550만원
● 사정상 싸게 양도합니다
010-5895-1472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시장내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8299-4747

사 찰 안 내
● 위치: 여수 돌산
● 땅 250평
●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길음동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1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시 직산읍 시내
● 제일 프라자 8층 중 3층
● 엘리베이터 사용(총 약 30편)
● 가액 : 보500백 월 30만원
● 시설비 없음
011-9365-3653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0-1
● 월드프라자 빌딩 605호
● 평수: 약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협의가능
● 모든 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31)851-9108
011-9280-2562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전 통 사 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법당 : 46평
- 요사 : 30평외 2동
- 부지 : 150평
- 가액 : 7억 8천 (요사2동, 부지 90평 제외시 가액 4억 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조정가)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역세권)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30평
- 산밑
- 가액 : 4억 5천

- 위치 : 전북
- 대지 : 45,000평
- 인법당 : 35평
- 산세수려, 모든조건 완비
- 가액 : 평당 2만 2천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40평
- 인법당 : 35평외
- 요사: 25평
- 가액 : 6억 3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공원)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부산 전통 와가 사찰(3층)

- 총대지 : 약 108평
- 법당(와가) 30평, 삼성각, 주지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방 8칸
- 법당 뒤편 산(공원)
- 버스 도로 접
- 가액 : 4억 3천(은행 2억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비밀보장 철저

소백산자락 큰 터 안내

- 위치 : 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 270m높이
- 독립구역 전 5,300평(관리지역)
- 인입도로 포장(주차장포함) 및 전기 완료
- 4개 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가능
-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대가람터로 손색없음)
- 가액: 평당 41,000원
- 사진참고: www.ddajuki.re.kr

016-573-2032
(원하시는 분만 연락요)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124평, 법당 13평
- 요사채 24평, 방 2, 현대식거실, 주방, 2층 다락방1
- 가액: 2억 2천 (융자 5천 5백 포함)
- 마을안 전원 주택같은 암자

010-9249-19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줄기
- 임도 삼리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하실분

- 현 포교당(60평)인수하실 분
- 가격 절충
- 위치: 시장 입구 전망 좋음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통 입구 , 지하철 2호선 구명 · 구남역에서 2분거리

주간 051)338-8607
야간 051)338-8606
011-9515-8606

고 찰 사 지 안 내

- 부산 근교 가야시대 창건한 문화재 보존 사찰임
- 문화재 발굴 후 건축할 수 있음
- 대가람 중창의 대력 원력의 인연만 연락요
- 약 700평 ●가액: 5억 5천

055)273-0053
010-3571-0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3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108-0108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포교원 최고의 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1번출구 앞
- 포교원 임대 하실 분
- 90평형, 130평형

010-3400-94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동부산 대학교입구
- 평수: 30평 , 3층
- 가액: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1)545-5572
011-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 삼존불, 시설일체
- 전세 500만원

063)543-5551
010-4427-225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 + 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응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011-563-15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동래 (지하철2분거리)
- 현 법회 기도중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스님 공찰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있음
- 문의 오후 5시 이후

017-586-569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백안동 백안삼거리 교통요지
- 2층중 1층 한옥주택 임법당(20평)
- 방2개, 거실 및 법당, 욕실
- 주차장 완비
- 현재 철학강의중
- 가액: 전세 2천5백만원

010-9911-34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564-80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 총 30평
- 관음보살부처님
- 보증금, 시설비 포함 총 1천만원 월 25만원

010-3780-6183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 대지: 200평, 건평: 50평(1층, 2층)
- 2층법당, 삼존불
- 시설 완벽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권리, 비품대) 8000만원

016-9620-099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전 120평
- 임법당 15평, 큰방 2칸 작은방1
- 삼존불, 지장불, 산신각 2평 집기 일체
- 비구니스님기도처 적합
- 가액: 8,500만원
- 꼭 필요 하신분 연락 주세요

011-340-5963
010-6667-577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신중, 산신, 소불 120불
- 가액: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7710-820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부 팔달구 마을 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 236평
- 임법당: 13평, 방 2개,
-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 하실 새로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 가액: 7,000만원

033)682-4652
011-865-358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 10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벽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038-77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 대지 605평, 건평 130평
- 4동, 법당 60평, 다용도실 10평
- 슬라브집 30평, 창고, 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

010-3174-2336
010-2874-8844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앞 뒤 산이 보이는 전망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없음

011-9342-979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금정시장 입구)
- 2층 , 평수: 약 50평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7백만원

010-4432-270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해시
- 임법당: 20평, 대지 300평
- 요사채 별도 1동 , 주차장, 화장실 (현대식) 창고2,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 충

010-2570-9566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31억 7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8천만원 절 사신분에게는 2천만원을 불사하겠습니다

011-540-3313

포교원 안내

- 위치: 마산역 시장 내
- 포교원 인수하실 분
- 방2, 삼존불, 탱화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11-9696-0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4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건물 법당 25평, 요사 30평 2동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6억 5천만원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79평, 건물 25, 슬라브 2동
- 가액: 2억 5천만원

018-554-6198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 금호 ● 부지: 106평, 건평 60평
- 법당1, 거실1, 방3, 공양간1 창고, 보일러실, 화장실,지하수
- 조경 – 뒤에는 작은산, 앞에 큰 저수지 有
- 조용하고 아담한 수행도량
- 비구니 스님에게 적합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 2, 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토 굴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 부지면적: 전 600평(오미자, 오갈피 재배 농업보호구역)
-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곳, 집입로 500m비포장,방위 동남향,
- 개울물이 흐르는 해발 500m 임야지역 주봉 백두대간 문복대
- 가액: 2천 4백만원

010-8555-44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굴, 장보살2자반 동굴,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아래
- 평수: 5층 건물 중 3층
- 약 60평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 최상의 시설로 주차장과 모든 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32)553-9799
011-617-4013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공원 입구
- 대지: 108평, 건평 2층 104평
- 철골조
- 가액: 14억
- 동북권 개발 지역

010-3124-3952

내·외국인에 한국 대표 전통문화체험으로 자리매김

"발우공양을 체험해보니 음식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 · 위생적인 식사법이라는 점에서 불교가 더 좋아졌습니다." (법흥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108배를 하고 나니 가슴이 벅차 와락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법흥사 템플스테이 참가자2)

"살다 힘들어지는 순간은 다시 오겠지요?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납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

"나는 한국어를 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내 안의 부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외국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도(佛道)를 닦는 수행처이자 중생을 제도하는 전법(傳法)의 장, 나약한 중생들이 속세의 번뇌를 씻고 올바른 진리를 찾아오는 곳. 사찰은 불국토를 현실에 장엄한 성지(聖地)다.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피안(彼岸)의 세계인 사찰로 향하고 있다.

웰빙을 넘어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로하스(Lohas)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자연을 벗 삼아 '참 나'를 찾는 템플스테이가 성장가도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종교와 국적을 떠나 옛 전통을 체험하며 가려운 곳은 긁어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중심이 돼 한 · 일 월드컵 기간 외국인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사찰을 개방해 외국인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토록 하는 관광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수행공간인 사찰에 일반인들이 머무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었지만 스님들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안거기간 임에도 선방을 외국인에게 내어주기 시작했다.

2002년 한 · 일 월드컵 당시에는 33개 사찰에서 26개국의 외국인 991명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이어 열린 아시안 게임 때에는 14개 사찰에 1567명이 다녀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참가사찰 수는 30.9%, 참가인원 수는 27.2%로 매년 급성장했다. 특히 외국인 참가 증가율이 매년 59.1%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2009년 현재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로 등록된 사찰은 100곳, 참가인원은 첫해 2558명부터 시작해 올해는 11만2800명이 다녀갔다. 누적 인원만 48만9000여 명이 참가했다.

최근에는 예불, 108배, 다도, 참선 등의 기본 프로그램을 뛰어넘어 차를 직접 덖어 마시고, 산 · 들과 바람 따라 떠나는 사색 트레킹, 선무도 체험, 황토염색, 직접 씨뿌린 약초 캐기, 김치 · 된장 · 고추장 담그기, 기업연수, 암투병 환자 명상프로그램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33관음성지 순례 등으로 문화교류사업에 새로운 교량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색 템플스테이

#33관음성지 순례

2008년 8월 7일 직지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는 일본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관음성지 33곳은 4대 관음사찰로 불려온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과 조계사, 용주사, 수덕사, 마곡사, 법주사,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 백양사 등이다. 일본인들은 33개의 사찰을 서남권, 남부권, 동남권, 동북권의 4개 코스로 묶어 3박4일 또는 4박5일간 5~10개 사찰을 둘러볼 수 있는 순례 상품을 시행해갈 예정이다.


33관음성지순례사업 창설 1주년을 맞아 10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 · 일 양국 합동법회에서 일본 스님들이 의식을 행하고 있다.

33관음성지순례사업 창설 1주년을 맞아 10월 5일에는 한 · 일 양국 합동법회 및 기념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템플스테이가 연속성과 상시성을 갖는 국제프로그램이자 문화연대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24~25일에는 공주 마곡사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일대에서 불자 연예인 '김민종과 보내는 33관음성지 템플스테이 인 마곡사'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에 참가한 일본팬들은 마곡사 견학, 108염주 만들기, 불화 그리기, 사찰요리 맛보기, 참선 및 명상, 토크쇼 및 미니 라이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암 투병 불자 위한 산사 명상

암 환자를 위한 명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산사에서 진행한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동성)과 함께 10월 29일~11월 1일(1차)과 11월 26~29일(2차) 양주 육지장사에서 개최한다. 20~65세 암 진단자 중 집단상담과 단체생활이 가능한 각 차별 15명 내외의 소수가 참여하는 소집단 형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불교와 상담심리를 비롯해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체험 · 연구하는 집단지도자와 집단상담 명상 산책 휴식 산사체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참가비 무료. 10월 19일까지 선착순 접수. (02)720-3629

#기업연수

템플스테이는 기존 기업연수프로그램의 대안으로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교육위주, 대규모 단체 참여로 인한 비효율성, 술로 마무리하는 기업연수를 대신해 참선, 스님과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호 이해 증진, 조직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기업연수 템플스테이가 눈길을 끈다. 템플스테이 기본프로그램에 기업별 교육 내용이나 연수 목적에 따라 사찰과 협의해 자체 교육이나 세미나 일정을 넣어 운영한다. 또 연수 시기와 일정, 프로그램도 사찰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0월 5~9일 경기도 Y사찰에서는 모 은행의 실적 저조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해당 은행의 인력개발 담당자는 "UDT 극기훈련, 해병대 극기체험과 템플스테이를 고민하던 중 내면 성찰을 통한 자기 변화와 타인 존중, 명상의 생활화로 인한 마인드 컨트롤 등을 고려했을 때 템플스테이가 더 유익하다고 판단해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대우증권, 신한은행, 메리츠 증권 등 금융기관, 중앙대 등 교육기관, 삼성전자 임직원, 현대자동차 임직원, 코엑스 임원, 미국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 청와대 직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한 외국인 대사관 직원 등 다수의 유수 기업과 단체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체험하고 픈 템플스테이


참선 후 포행.

● 참사람의 향기가 나는 해남 미황사=2008년 지리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해남 미황사는 전남지역에서 템플스테이 참가자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미황사는 어린이 한문학당과 청소년 문화학교, 참사람의 향기, 상시 템플스테이 운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 참사람의 향기는 매달 한 번씩 7박8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 자연을 배우고 느끼는 서산 부석사=주변의 태안, 안면도 등 주변 관광지를 이용한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살려 천수만의 철새들을 관찰하는 탐조(探鳥) 템플스테이로 유명하다. 모든 만물이 다 어우러지는 생태적 관점으로 보는 천수만에 대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 '움직이는 禪의 물결' 경주 골굴사=템플스테이 체험의 원조격이다. 1992년부터 한국불교전통을 체험하기 위해 선무도 수행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전통 불교의 무술인 '선무도' 강좌, 21세기 신화랑을 주제로 청소년 수련회도 진행한다. 기본 1주일부터 4주까지 체험이 가능하다.

● 지리산 속에 담긴 구례 화엄사=산사의 일상(상시휴식형)체험, 정기체험과 함께 최대 2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해 단체체험이 가능하다. 또 1인 1침구를 지급하며 기업체 연수, 청소년문화체험, 단체수련회 등을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도 화엄사, 천은사, 도림사 등 일대 3사에서 3박 4일간 체험하는 3색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처처가 꽃밭 김제 금산사=태권도, 춤명상, 화전놀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등 계절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해 경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외국인이라면 꼭 가볼만한 묘각사=서울 중심에 위치한 묘각사에는 템플스테이를 시작함과 동시에 담당 스님도 영어공부에 매진하는 열의를 보였다. 도심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중 가장 활발한 곳이다.


외국인들의 발우공양.

● 단기출가 평창 월정사=단기출가로 유명한 월정사에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 걷기 명상으로 해마다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든다.

● 직접 체험하는 문경 대승사=대승사는 큰 사찰은 아니지만 수제 차 덖기, 돌탑쌓기, 도자기 체험, 산약초 재배 등 지역 문화관광 상품을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걷기 명상.

● 꿈을 찾아 떠나는 영월 법흥사=꿈의 실현을 특화한 프로그램이 특징. 꿈낭만들기는 자신의 꿈을 적은 카드가 보관된 주머니를 1년 후 다시 찾아와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 숲길이 아름다운 가평 백련사=잣 숲길 걷기가 유명하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활동사진 등을 올려 참가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경허 | 용성 | 혁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스스로 수행하는 삶 이끄는 징검다리

템플스테이의 과제는?

템플스테이 관련 시설의 규모 확장,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내 · 외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사람들은 이제 템플스테이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이동익 팀장은 "정착, 안정기로 보기 힘들다. 실무현장에서는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체험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정적 안정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계화, 인력구축, 시설 및 재반시설 확보 등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홍보와 전파, 불교사상과 문화 확산에 일신하고 있다. 종교의 역할과 함께 관광적 측면에서도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100여 개의 운영등록 사찰이 있지만 모두 다 성공적인 결실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보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담당자의 의지 부족, 사찰 내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환경, 인력부족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내는 곳도 많다.

2009년 9월 14~19일, 21~26일 미얀마에서 진행된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 리셉션에서 실무자들은 "대중생활, 신도관리 등 사중 업무와 실무를 진행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 "실무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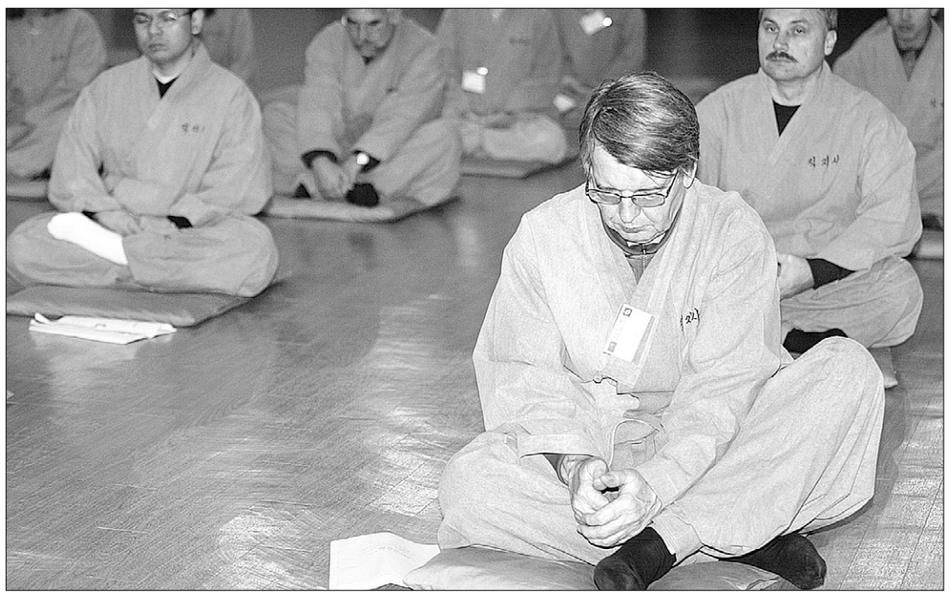
한편 스님들은 실무자의 △교육시설 확보 및 전문교육 필요 △실무자 급여 및 근무체계의 정립 △운영지정을 위한 경쟁은 필요하나 강압적인 관리 지양 △신규운영사찰을 위한 기본교육 및 비전제시 필요 △사찰내부에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지적했다.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은 "그동안 젊은 고급인력이 와도 기본 근무조건이 보장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쉽게 떠나곤 했다"며 "현 실무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근무시간, 4대 보험 가입, 연봉 협상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사찰의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전담스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지스님이 바뀔 때 마다 담당스님이 바뀌는 문제는 템플스테이 상설운영에 치명적이다. 템플스테이 전담자를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리와 홍보강화 등 내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

템플스테이가 시행 초기만큼 이색적이지는 않다. 참여사찰이 늘어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지 않고 모방에 그치는 사찰이 많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템플스테이 담당자는 끊임없는 변화와 보다 참신하고 치밀한 기획, 사찰의 신앙적 특성이나 문화적, 환경적, 입지적 특성 등과 연계한 특화상품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영월 법흥사 곽현준 포교 팀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성화가 돼 '새로운 것' '다양한 것' '참가자 욕구 충족' 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다"며 "템플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제 하나라도 확실히 전달할 것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희생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희생은 감행해야 한다. 정확한 목표 전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인구의 0.1%도 아직 체험하지 않은 템플스테이가 변화보다는 각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들에게 반가부좌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수행문화고, 수행체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다양성과 특성화 정착 돼야
실무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절실

#외국이 원하는 수행체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은 한국불교, 그 중에서도 수행 체험이다. 눈여겨 볼 것은 2007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 및 만족도'에서 국내 참가자들보다 예불이나 참선 등 한국의 수행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다. 예불, 다도, 참선, 숙소, 음식 등에서 매우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

종훈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포교의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템플스테이의 운영 방향의 열쇠는 수행에 있다"며 "전 세계 우수 수련센터에 대한 벤치마킹, 지역과 환경적 상황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지정 사찰에 대한 과감한 선택과 집중, 템플스테이 운영자 교육을 통한 사명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님은 봉사자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해 "재이민귀국자, 은퇴자, 향토사학자, 문화재 해설사 등의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불교수행과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템플스테이의 대중화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국제사업이다. 국내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살아있는 불교를 선보여야 한다. 한국 불교는 살아있는 불교다. 희망이 있다. 템플스테이가 앞서가는 여가 선용문화의 대안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올 4월에는 템플스테이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가 개관됐고 6월에는 건평 3000평에 300명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을 개원했다. 신정동 국제선센터 건립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도약은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템플스테이가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을 알리는 대표 브랜드로 '영원히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한국을 대표하는 꼭 체험해야하는 상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템플스테이 체험수기공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체험수기공모를 실시한다. 전국 100여 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체험담과 참가 배경, 소감 등을 200자 원고지 5장 내외로 작성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templestay.com)에 등록하면 된다. 응모접수는 10월 26일까지다. 대상 1명에게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2인) 등 모두 4명에게 상품이 수여된다. (02)2031-2034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해외 템플스테이 성공사례

템플스테이가 실시된 지 8년의 시간이 지났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를 위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에는 정신수양과 결합된 상징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은 초기불교 수행법인 위빠사나 명상을 가르치는 미얀마 '마하시 명상센터', 절에 묵으며 사찰요리, 다도, 온천을 즐기는 일본의 '슈쿠보(宿坊)', 대규모 수행 센터를 갖추고 체계적인 염불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만 불광산사 등이 유명하다. 이들 수행센터의 공통점은 종교성을 띄지 않고 어느 누구나 마음수양을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으며 자유로운 수행을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틱낫한 스님의 프랑스 보르도 플럼빌리지



틱낫한 스님이 참가자들과 수행하는 모습.

사원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도시인들에게 색다른 명상체험을 제공해 세계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틱낫한 스님은 위빠사나 정념(正念)수행을 채택하고 있다. 또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아는 수행을 24시간 실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밥먹을 때 밥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잠잘 때 잠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는 임제종 생활선의 대중화이기도 하다. 플럼빌리지에서의 법문은 걸으면서도 듣고 풀밭에 누워서도 엎드려서도 듣는다.

1983년 제1회 여름수련회가 열렸을 당시 참석자는 117명, 대부분 베트남인들이었으며 서양인들이 드문드문 끼어있었다. 9회 참석인원 1030명, 20회 1800명으로 늘어났고, 그 구성도 서양인이 주를 이루게 됐다. 프로그램은 1회에는 좌선과 걷기 명상, 차 명상, 스님과의 상담으로 간단했지만, 2002년에는 노래 명상, 지구와 접하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추가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다람살라 투시타센터



투시타센터를 찾는 이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인도 다람살라의 투시타(tushita: 미륵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는 천상의 정토)센터는 티베트 스님들이 세계 140여 지회를 두고 있는 불교센터로 1973년 라사와 티베트에 있었던 수행처를 다시 세운 것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티베트 불교를 배우러 찾아온 서구인들이며 1년 내내 다양한 수행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이곳은 항상 수행자들로 북적인다. 수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도법사들도 서양 스님들이 티베트 스님보다 많다.

수행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티베트 불교철학과 현대화된 명상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이 많이 체험하는 초보과정은 6~10일 과정이다.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 배제돼 있는 대신 일상에서의 평화와 행복, 자비에 관한 불교적 기술들이 내용에 포함돼 있다. 수행자세 또한 정형화돼 있지 않다.

그밖에도 3개월 간 바즈라사트바 안거, 고급과정으로 숙련된 수행자들을 위한 1년 수행과정이 마련돼 있다.

●인도 명상 세계화 이끈 라즈니쉬 명상센터



오쇼 라즈니쉬 명상센터 입구.

<배꼽>이란 책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오쇼 라즈니쉬(1931~1990)가 생전에 세운 명상센터다. 명상 공간을 중심으로 깔끔한 게스트 하우스, 카페와 식당, 공연장, 수영, 탁구, 농구 등 스포츠 시설, 미용실, 우체국, 마사지실 그리고 책방들이 조화롭게 잘 배치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라즈니쉬 명상은 음악과 춤 등을 활용한 대중성으로 서구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명상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침 6시 광장에서 하는 아침 기체조를 시작으로 6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센터 내의 사람들이 하루 중 원하는 시간대에 한 시간씩 원하는 장소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면면한 선맥이 굽이친 대선사들의 생애 찬연히 빛나



㉓ 선불교 중흥의 기상 품은 청계사

청계산은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 아래 마을마다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휴양시설이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산으로 들고 봉으로 오르는 길도 늘 산행인파로 붐빕니다. 청계(淸溪)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의 공간이고, 울창한 숲은 새로운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기운을 넣어 줍니다.

지친 사람의 육신에 힘을 넣어주고 마음에 희망을 채워주는 복지(福地)를 닦은 옛 절이 청계사입니다. 절은 옛 절이지만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중생에게 내일의 생기를 채워주는 도량이기에 무한한 시간 속에 한량없는 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사는 신라대에 창건된 절로 보이지만 기록을 남긴 것은 고려후기부터입니다. 1284년 평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막대한 사재를 들여 절을 중창한 이후 500년이 넘도록 그 가문은 청계사의 단월이 됐습니다. 목은 이색과 변계량 등 고려 말과 조선 초기를 풍미했던 문장가들도 청계사를 읊은 시를 남겼으니 서울의 남쪽 푸른 계곡의 서기(瑞氣)를 온 몸으로 흠모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묵객들의 가슴에 남은 '풍경'으로서의 청계사는 본질일 수 없습니다. 수행자에게 간단없는 정진의 도량이 되고 시주단월들에게는 무량한 공덕의 밭이 되어야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사의 본질을 꾸준히 이어온 수많은 걸승들의 흔적은 시절인연이 혼탁해 상세하게 전하지 않지만, 도량 곳곳에 스민 향화의 흔적은 천년고찰의 아늑함으로 다가옵니다.

10월 6일 청계사에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으로 이어 내려온 한국 선불교의 중심 법맥의 주인공들께 올리는 다례재가 열린 것입니다. 선대의 은사를 위한 다례재를 올리는 일도 거룩한데 이 날은 그간 모시지 못했던 보월 스님의 부도를 제막하는 날이어서 더욱 밝은 날이었습니다. 5대 선사의 부도와 탑비(행적비)가 5년의 불사를 마치고 완성됨으로써 청계사 부도밭은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는 선불장(選佛場)이 됐습니다. 부처를 뽑는 시험장이란 선방을 달리 부르는 이름인데, 청계사 부도밭이 선불장인 것은 바로 한국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청청한 법맥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5대 선사들은 부처에 급제해 중생계에 우뚝한 영봉을 이뤘고 그 법향이 그윽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 부도밭을 참배하는 후학들에게는 더없이 고매한 가르침의 공간입니다.

"경허 선사로부터 주위의 밝음을 얻으니 만공 선사의 얻고 받음이 크신 지혜요, 그를 받아 금오 대선사로 전하니 뜻이 어디에 있음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금오 선사께서 월산 선사에게 오른손을 들어 보이시되 한 순간에 답하시며 불조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네 분의 족적 외에 보월 스님의 무애무심이 있음으로 우리가 길을 얻어 나아감이요 혹 그 길을 잃음에 다시 찾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음입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다례재 법어는 바로 다섯 분의 선사들이 전해 온 서래밀지(西來密旨)의 밝고 큰 한 덩어리가 오늘날의 우리 가슴에서 쿵쾅거리고 있음을 알아 차리라는 직지(直指)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가을 햇살 아래서 청아한 음률에 얹어 노래한 5대 선사의 오도송은 산 빛 보다 찬란하고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청계사 5대선사부도밭 전경(왼쪽)과 새로 조성한 보월 스님 부도를 설명하는 종상 스님(왼쪽). 그 옆으로 월탄 · 장주 스님.

부도마다 독특한 양식에 선사의 삶과 사상 표현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 5대선사 부도와 행적 담은 부도밭은 '선불장'

10월 6일 다례재 봉행, 오도송에 가락 얹어 공연도

희 구름 바람만 오고 가는구나.
무슨 일로 달마는 서쪽 하늘을 넘었던고
훼치는 닭 오시(五時)에 울고
태양은 인시(寅時)에 뜨는 것을.
(만공선사 오도송)

벽담(碧潭)에 달 잠기지만
보월(寶月)은 오감이 있던가.
학정(鶴頂)에 홍일점
설야(雪夜)에 화출(畵出)터니
덩그런 허공에
금오(金烏) 비상하네
명호(鳴呼) 우차(吁嗟)여!
선사의 진역은
청풍인가 명월인가
텅 빈산 달 오르자
봄 냇가에 호조일성(好鳥一聲)을.
(보월선사 오도송)

시방법계를 투철(透徹)하고 보니
없고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
낱낱이 모두 다 그러하기에
근본을 찾아봐도 또한 없고 없을 뿐.
(금오선사 오도송)

참 모습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사 어디에 있는가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몸을 뒤쳐 사자후를 하노라.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도다.
(월산선사 오도송)

청계사 부도밭은 아늑한 오솔길이 다하고 절로 오르는 높다란 계단을 바라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2단으로 조성된 부도밭의 아랫단은 행적비와 옛 비석이 놓여 있고 윗단에는 5대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조성된 청계사 부도밭에 들어서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5대선사의 부도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듬어졌는데 그 뒤를 지키고 서있는 탑비의 모양은 통일시켰습니다. 선사마다 달리 보여 준 수행과 활달한 기상 그리고 허공 같은 가르침의 세계를 돌에 담아 표현하려는 그 정성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 하나 청계사 부도밭이 아름다운 이유는 부도와 탑비의 크기를 통일시킨 점입니다.

법은 형상이 없고 가르침에는 편차가 없으니 선대 은사들의 부도에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미 부처에 급제해 무상정등정각의 소식을 중생계에 떨쳤으니 그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풍이 그대로 부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모셔진 경허 선사의 부도는 석종입니다. 메말라가던 선의 토양에 커다란 울림으로 선맥을 되살린 경허 선사의 생애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 스님이 찬했습니다.

다음에 서 있는 만공 스님의 부도는 허공에 덩그런 일원상을 띄워둔 형상입니다.

'닭은 오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 그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용주사 주지를 지낸 정락 스님이 찬한 비명이 선사의 한 생애를 상세히 안내하는데 찬찬히 읽어보면 한 수행자의 생애는 '한 생애'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가운데 새로 모셔진 보월 선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고 불국사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이 그 행적을 기록하고 덕화를 찬탄해 비에 새겼습니다. 그 옆에는 금오 선사의 부도가 서 있는데, 석종형을 계승해 보주 부분을 강조한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비명은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이 지었습니다. 맨 왼쪽의 월산 스님 부도는 기존의 부도 형식을 다분히 탈피해 새로운 조형미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둥근 원을 안으로 깎고 그 속에 석종을 넣었습니다. 불국사문화관장 종상 스님이 찬한 비문의 내용은 월산 선사의 삶과 정신을 융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계사 부도밭에서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부도의 조형을 감상해야 하고 그 부도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의 생애를 적은 탑비를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눈이 아파도 정성을 들이는 만큼 콧구멍없는 소를 만날 수 있고 훼치는 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계사 부도밭은 근현대 한국불교 선맥의 정수리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현대불교신문 15th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硏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현대불교신문 창간15주년 기념

현불샵 5종 특가 세일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수의 등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전통오동나무 앤틱원목 수납장
(압축 참숯부착) – 슬림형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가로×세로 ×높이) : 42×41×90 cm
⊙ 서랍(내부) : 32×32×14 cm

전통오동나무 원목수납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욕실 수건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전통오동나무 참숯850서랍장
(압축 참숯부착)



⊙ 재질 : 오동나무(원목),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규격 : (가로 × 세로×높이) 85×41×50cm
⊙ 서랍(내부) : 32×32×14cm

전통 오동나무 참숯 서랍장 용도
- 아이들 옷, 기저귀,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어른용 속옷, 양말 등의 수납

■ 217,000원
➔ **167.000원** (23%DC)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방
氣 giban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의)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10%DC

■ **제품 사용처** :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희담석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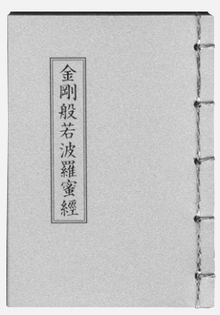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동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의 원만추진을 서원합니다

총 인 도 흔
사서실장 회 성

통 리 원 장 혜 정
총 무 부 장 수 성
총 무 국 장 원 암
기 획 국 장 상 명
전 산 국 장 수 혜
전산미디어팀장 재 당
재 무 부 장 관 천
포교·문화사회부장 덕 정
포 교 국 장 범 주
문화사회국장 대 원
건 설 국 장 의 신
전승원건립추진 팀장 법 정
전승원건립추진전담당 원 주
국제불교연구소장 덕 정

교 육 원 장 경 정
교 법 부 장 지 정
교 법 국 장 효 원
교 육 부 장 상 제
교 육 국 장 증 혜

종 의 회 의 장 성 초
부 의 장 진 성
부 의 장 대원심

사 감 원 장 효 운
사 감 부 장 정 훈
사 무 국 장 청 효

진 각 대 학 원 장 수 성
교 학 처 장 혜 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

奉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祝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 / T : 02)763-0054 / F : 02)763-5851
www.kwanum.kr

현대불교신문 15th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도기
이사 화엄
이사 일명
이사 경담
이사 자명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원로의장 금봉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위원 무찰
청송
수암
송은
원각
원경

종회의장 경원
사무처장 삼주
종회의원 덕봉
재성 정일
만성 무상
경담 자명
도정 지연
자견 법안
지허 경담
도허 승원
법경 일운
지공 해월
상원 현암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총무원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용운
교무부장 지언
재무부장 보월
사회부장 혜성
규정부장 진송
홍보부장 고봉
교육부장 법해
포교부장 지현
교육국장 진율
홍보국장 지현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용주
대구교구 고봉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광은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승원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지우
제주교구 경운

www.llbung.org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TEL 02)998-8161,2 / FAX 02)998-8384

대 한 불 교 총 화 종

종 정 이동광
부 종 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 법 부 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혜오 감찰부장 김일봉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호 계 부 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북부)종무원장 유법경
충 청 종 무 원 장 김법현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제 주 종 무 원 장 김청해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경 북 종 무 원 장 정일광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 북 종 무 원 장 이기종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대 전 종 무 원 장 윤법전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부 산 종 무 원 장 최만재
광주, 전남종무원장 김현산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수진사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 정 석정관

총무원장 도 선

종 도 일 동

"전 종도와 함께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을 봉축합니다"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호 관법사 전화 054)682-5808

"창간 15주년을 맞이한 현대불교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和諍平和中央教院 現代佛教曹溪宗

宗 正 碧雲 海光
總務院長 東華 漆桶
宗會議長 靑松 法性
布敎院長 緣潭

副 宗 正 回天 性柱
元老院長 慧正 石成
糾正院長 東雲 慧圓
敎育院長 外 종도 일동

화엄신도회, 포교사단, 만해불교대학, 만해대학

입종 및 출가자 안내
입종하고자 하는 스님, 포교사를 정중히 모십니다.
승려, 포교사, 법사의 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연수과정 수료 후 자격을 부여하니 지원 바랍니다.

총무원 보광사 주지, 총무원장 동화 합장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전화 042)283-5896